

국립해양박물관
경북대 인문학술원 HK+사업단
공동학술대회

문자자료로 본 동아시아 해양문명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13:00 ~ 18:00

| 장소 |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컨퍼런스홀



| 주최 | 국립해양박물관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 한국연구재단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국내학술대회

문자자료로 본 동아시아 해양문명

-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13:00 ~ 18:00
- 장 소: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컨퍼런스홀
- 주 최: 국립해양박물관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개회식】

사회: 윤용구(경북대)

13:00~13:20	접수	
13:20~13:30	개회사(경북대 인문학술원장) · 축사(국립해양박물관장)	
		사회: 이동주(경북대)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13:30~14:00	목간으로 본 신라의 물류	이용현(경북대)
14:00~14:30	광개토태왕릉비문 속 海자의 의미	백승옥(국립해양박물관)
14:30~15:00	신라국 집사성첩에 보이는 海民의 이동 실태와 도해 허가 문서	정순일(고려대)
15:00~15:20	휴식	사회: 김재휘(국립해양박물관)
15:20~15:50	신안선 목간으로 본 몽골제국의 물류체계	정동훈(서울교대)
15:50~16:20	태안해역의 수중발굴과 목간	김병근(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6:20~16:30	단상정리	
16:30~18:00	종합토론: 이영호(좌장, 경북대) 이수훈(부산대), 이주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홍승우(경북대)	
18:00	폐회/기념촬영	

문자자료로 본 동아시아 해양문명

발표주제

- | | |
|---|----|
| 목간으로 본 신라의 물류
이용현(경북대) | 5 |
| 광개토태왕릉비문 속 海자의 의미
백승옥(국립해양박물관) | 41 |
| 신라국 집사성첩에 보이는 海民의 이동 실태와 도해 허가 문서
정순일(고려대) | 55 |
| 신안선 목간으로 본 몽골제국의 물류체계
정동훈(서울교대) | 71 |
| 태안해역의 수중발굴과 목간
김병근(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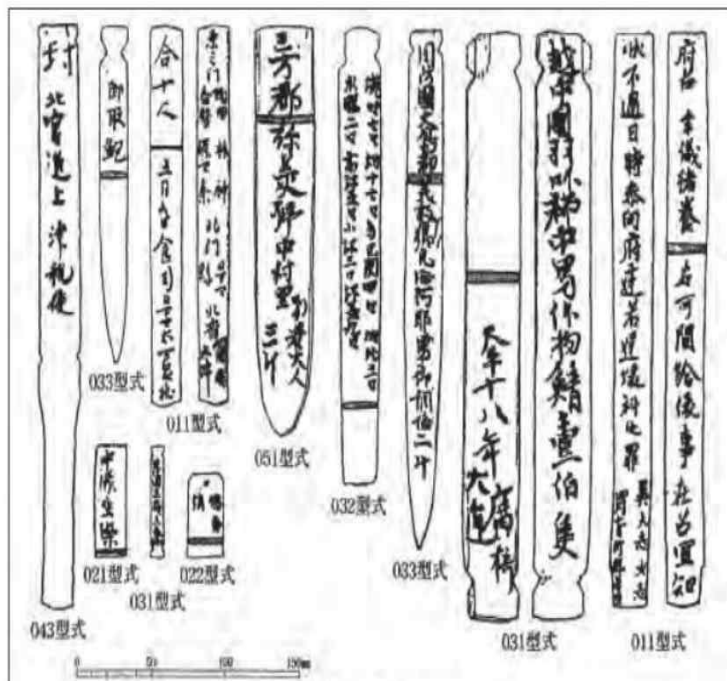
문자자료로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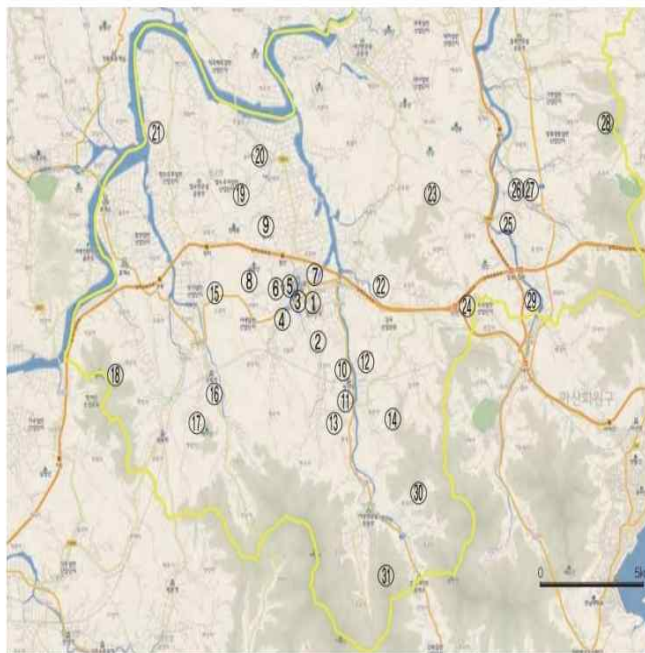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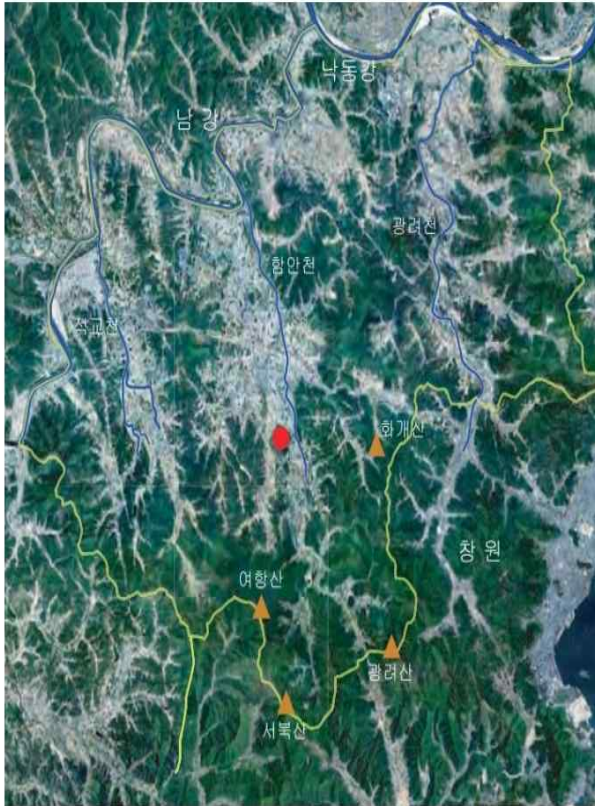
동아시아

해양문명

목간으로 본 신라의 물류와 낙동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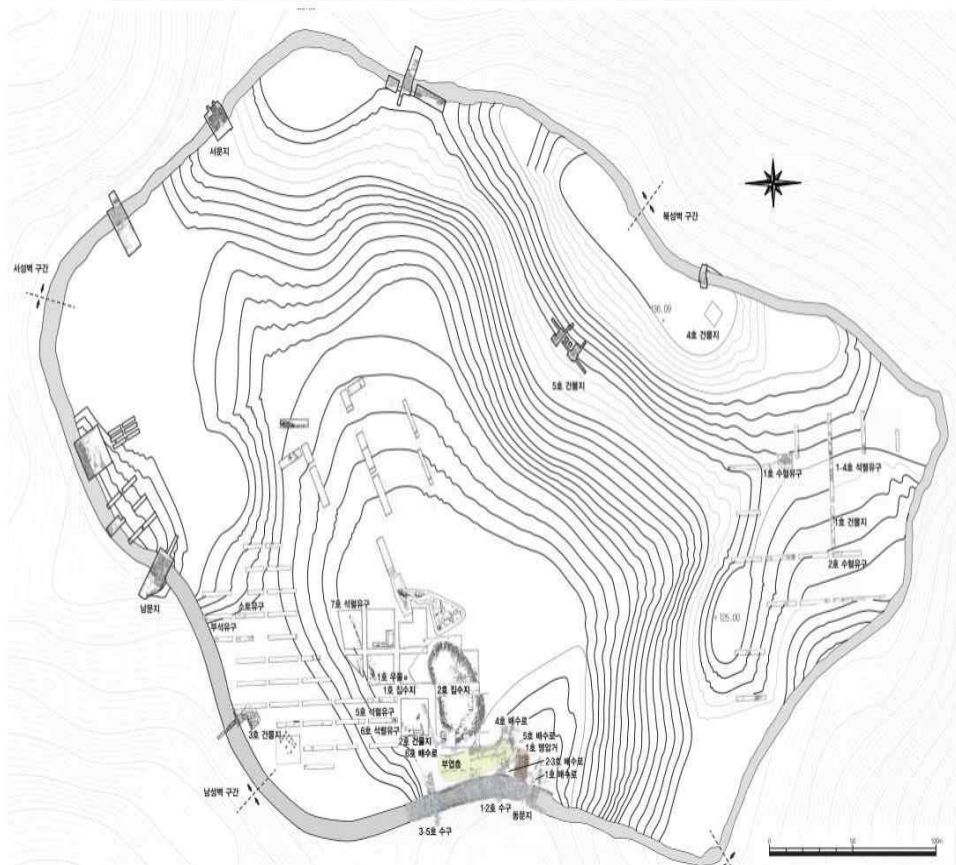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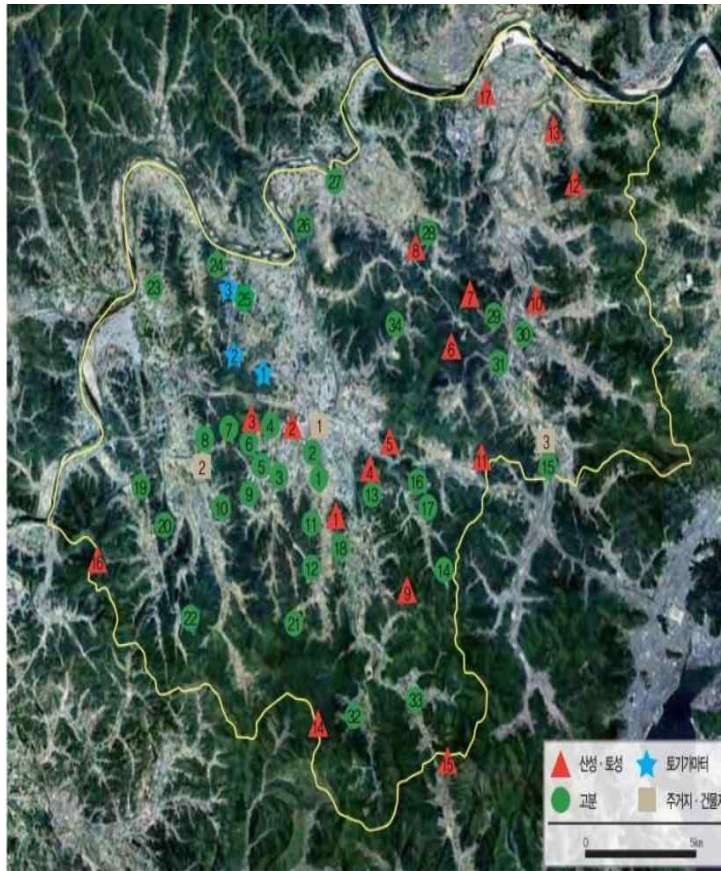
• 이용현(경북대 인문학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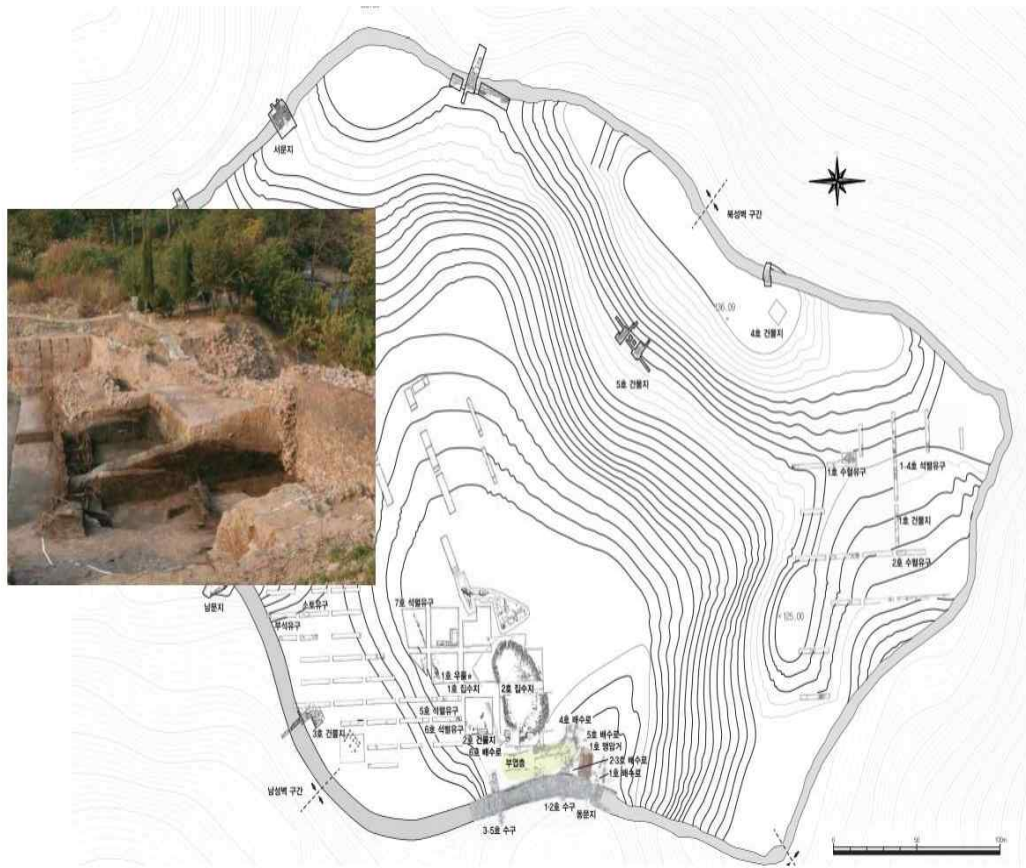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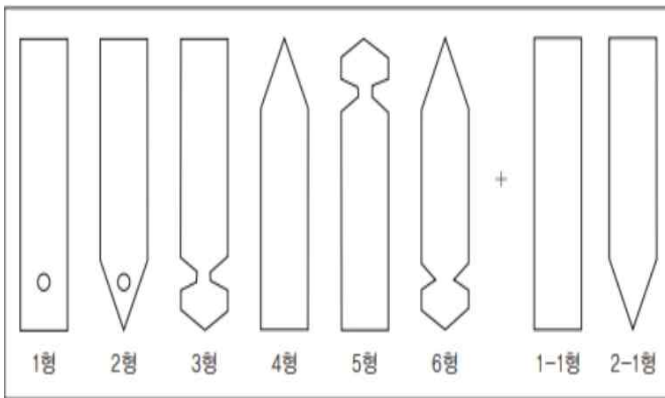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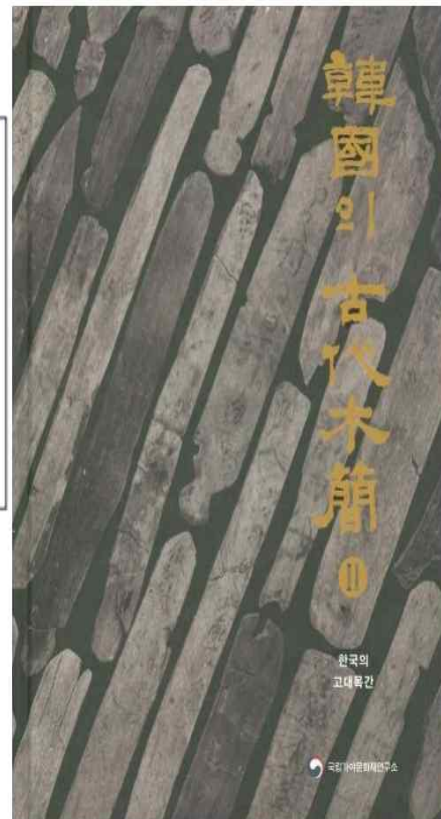
1. 말이산교분군 2. 성산산성 3. 도항리택지부지 유적 4. 남문외교분군 5. 가야리제방유적
6. 가야리전토성지(가야리유적) 7. 충의공원유적(대형건물지) 8. 봉산성 9. 묘사리토기가마터
10. 광정리지석묘 11. 함안읍성 12. 대신리석불 13. 함안향교 14. 성점산성
15. 소포리유적 16. 군북지석묘 17. 명관리공룡발자국화석 18. 방어산마애불
19. 우거리 구석기유적 20. 윤외리고분군 21. 황사리고분군 22. 문암산성 23. 칠원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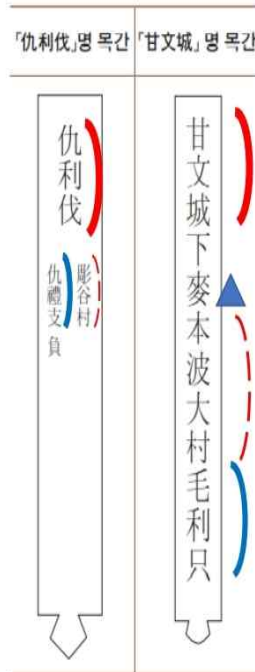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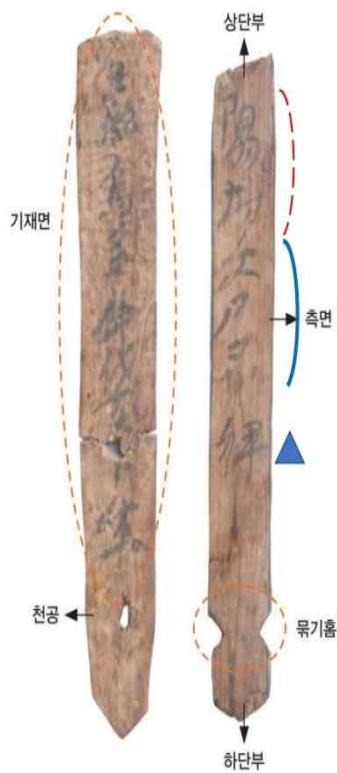
목간
木簡



224 출토
2415은 하찰
4점은 문서

(언제)
어디의
누가
무엇을
얼마

구리벌, 상삼자촌
차루
피
1섬



	하찰목간		문서목간	합계
	단면	양면		
1차	-	-	-	-
2차	4	-	-	4
3차	-	-	-	-
4차	16	4	-	20
5차	-	-	-	-
6차	-	-	-	-
7차	48	15	-	63
8차	-	-	-	-
9차	-	-	-	-
10차	-	-	-	-
11차	15	13	-	28
12차	47	26	-	73
13차	1	1	-	2
14차	12	8	2	22
15차	-	-	-	-
16차	6	6	-	12
17차	12	8	1	21
합계	161	81	3	245

그림 8. 구리벌명 목간

	일자형	삼각형	곡선형	비정형
상단				
수량	37	58	63	16

① 구멍을 피해서 목서한 목간 ② 물품에 매달기 전 목서한 목간 ③ 묶기홈에 끈을 매단 후 목서한 목간

그림 12. 묶기홈의 끈(기야5594, 가야4689)

구분	측면보기	전면보기	일자형	삼각형	곡선형	비정형
			하단	하단	하단	하단
수량	131	15	18	61	64	29

그림 9. 띄어쓰기 목간 그림 10. 전도부호 있는 목간 그림 11. 중목부호 있는 목간



그림 13. 무기홈이 위에 있는 목간



4. 무기홈이 아래에 있는 목간



그림 15. 천공이 있는 목간

	무기홈		구멍	수량
	상	하		
구리벌	-	12	-	12
고 타	-	8	1	9
감문성	-	4	-	4
급벌성	-	9	-	9
기 타	6	107	12	125
합 계	6	140	13	159



그림 16. 각 지역별 목간 배열(구리벌-고타-감문-급벌)

	포항 냉수리 신라비 (503)	울진 봉평리 신라비 (524)	단양 신라 적성비 (~551)	창녕 신라 진흥왕척경 비(561)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일금지 (一今曆)	● 36	●			
▲발척 (伐尺)					●
급발척 (及伐尺)					●
거발척 (居伐尺)		●			●
6부명 沙喙部	1점	가야5594			
경위 大畬	1점	가야5598			
외위	一伐	10점	김해1286, 김해1287, 가야68, 가야83, 가야1989, 가야2002, 가야2012, 가야4688, 가야5593		
	一尺	1점	가야28		
	上干支	3점	김해1265, 가야4688, 가야5592		
阿尺	1점	가야2639			
외위	▲伐尺	1점	가야2005		
	及伐尺	1점	가야2639		
	居伐尺	1점	가야5587		

등위	경위(原位)	외위(外位)
1등	이벌천(伊伐湫)	
2등	이척천(伊尺湫)	
3등	갈천(靑湫)	
4등	파진천(波珍湫)	
5등	대아천(大阿湫)	
6등	아천(阿湫)	
7등	일갈천(一吉湫)	약간(藥干)
8등	사천(沙湫)	술간(述干)
9등	급발천(級伐湫)	귀간(貴干)
10등	대사리(大舍里)	천간(天干)
11등	나미(奈美)	고간(高干)
12등	대사(大舍)	상간(上干)
13등	소사(小舍)	간(干, 下干)
14등	김사(吉士)	일발(一伐)
15등	대오(大烏)	일척(一尺)
16등	소오(小烏)	피일(彼日, 彼旦)
17등	조위(造位)	아척(阿尺)

	포항 냉수리 신라비 (503)	울진 봉평리 신라비 (524)	단양 신라 적성비 (~551)	창녕 신라 진흥왕척경 비(561)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591)
약간 (藥干)					
술간 (述干)				●	
귀간 (貴干)					
천간 (天干)			●		
고간 (高干)					
상간 (上干)					●
간 (干, 下干)		●	●		
일발 (一伐)		●			●
일척 (一尺)		●			●
피일 (彼日, 彼旦)					
아척 (阿尺)		●	●		●



지역명	수량		목간번호	추정 지역
	대분류(수량)	소분류		
甘文城 (8)	-	5	가야62, 가야2057, 가야4687, 가야5595, 진주1279	경북 김천시 개령면
	大村	2	가야1590, 가야2026	
	旦那村	1	진주1268	
及伐城 (9)	-	9	가야41, 가야70, 가야75, 가야2004, 가야2005, 가야2023, 가야2630, 가야2633, 진주1273	경북 영주시 순흥면
	-	11	가야35, 가야1596, 가야2012, 가야2036, 가야2619, 가야2627, 가야5593, 김해1287, 진주1288, 가야1613, 가야2008	경북 의성군 / 흥북 목천군
營形村	1	가야2034		
形谷村	1	가야32		
上多者村	4	가야33, 가야5589, 진주1263, 김해1275		
丘利伐	-	1	가야5592	-
仇伐 (4)	-	3	가야50, 가야1987, 가야2018	경북 의성군 단촌면
	干好(津)	1	김해1272	
丘伐(3)	-	3	가야1988, 가야2029, 가야5587	-

상주上州	伊伐支	경북 영주시 부석면	-	2	가야2038, 가야4688	경북 안동시
	伊骨利村		3	가야27, 가야1623, 진주1283	경북 북부지역	
	新村		2	가야28, 가야1991		
	一古利村		8	가야30, 가야1992, 가야1995, 가야1998, 가야2006, 가야2014, 가야2636, 가야4685,		
	□利村		1	가야2019		
	表津 (7)		-	4	가야29, 가야44, 가야1593, 김해1284	경북 북부지역
	支斯石村		1	가야2011		
	表津支城		2	가야2025, 가야2058	경북 의성군 금성면	
	冷水里碑		-	1		가야1607
	蘇文(村) (4)		-	1		가야38
□□□村		1	가야52			
車只村		1	가야2033	경북 상주시		
須伐		-	1		가야72	
賈谷村		-	2	가야1598, 가야2051	경북 안동시 도산면 및 예안면	
勿思伐		-	1	가야1996	경북 북부 / 경북 예천군	
伊伐支		-	4	가야74, 가야1614, 가야2024, 김해1269	경북 영주시 부석면	
小伊伐支		-	2	가야61, 가야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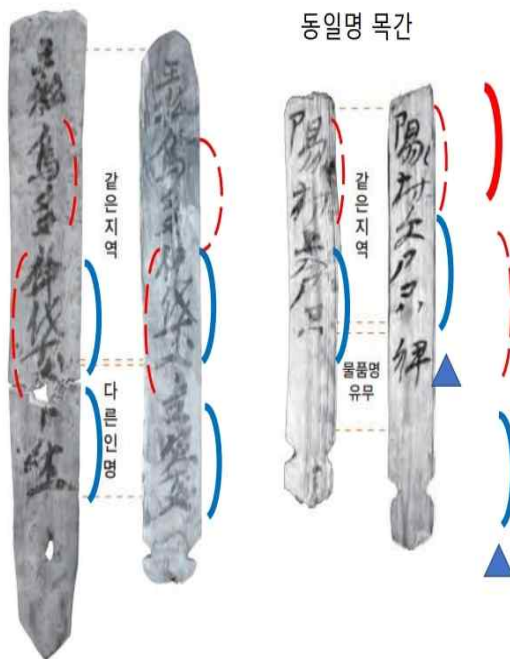
상주上州	比思伐		-	1	가야2639	경상남도 함녕군
	小南兮城 大村		1	가야596	-	
	大村		-	2	가야51, 김해1286	-
	次次支村		-	1	가야1600	-
	帶支村		-	1	가야2641	-
	陳城		-	2	가야40, 김해1282	-
	隔村		-	2	가야42, 가야1597	-
	勿利村		-	1	가야1599	-
	上莫村		-	2	가야43, 김해1271	-
	巴路兮城 巴路兮村		1	가야57	-	
	巾夫支城		-	3	가야2009, 가야2021, 가야5591	-
	千竹利		-	2	가야65, 가야66	-
	上勇刀茶村		-	1	가야31	-
	秋乡利村		-	1	가야2016	-
	伊大兮村		-	1	가야2015	-
	農村		-	1	가야2020	-
	赤伐 支勿村		1	가야2035	-	

245점 중
물품명이 확인되는 것 114점

96점 피稗 약 84%
18점 보리麥, 쌀米, 술酒 각각 약 10%,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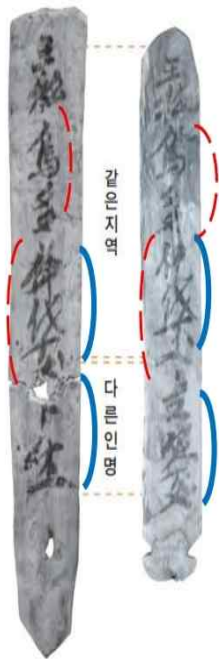
품명	유물번호	수량	도서내용		지역별 출토 수량
			1면	2면	
米	가아2017	5점	粟(米)稗石		·甘文城 : 1점 ·帶支村 : 1점 ·大村 : 1점
	가아2026		甘文城下□米 十一斗 大村 卜只次持去		
	가아2641		帶支村烏多支 米一石		
	가아4697		…(阿)那只旆米		
	가아5599		壬子年□(改) 大村□刀只	米一石	

가아46	可物智□須麥 石		
가아51	大村主旆麥		
가아1590	甘文城下麥本 波大村毛利只	一石	
가아1620	□□□麥石		
가아2011	夷津支支斯石 村末□□旆	麥	
가아2025	夷津支城下麥 王□巴旆兮村	弥次二石	·夷津支 : 3점 ·甘文城 : 4점 ·小南兮城 : 1점 ·大村 : 1점
가아2058	夷津支城下麥 鳥列支負	□□□石	
가아4686	三月中鐵山下麥 十五斗	左旆□河礼 村波利足	
가아4687	甘文城下麥 十五石甘文	本波加本斯 稗一石之	
가아5595	甘文城下麥 十五石甘文本波	伊次只去之	
가아5596	小南兮城麥 十五斗石大村…		
진주1279	甘文城下麥甘 文本波王(村)	□利村(知) 利分負	



동일명 목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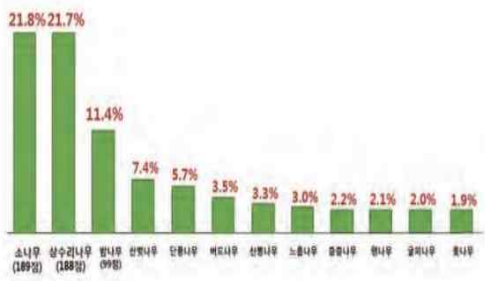
연번	유물번호	도서내용	
		1면	2면
1	가아2003	呵盖奈夷利稗	
	가아2635	呵盖奈…	
2	가아1614	王松烏多伊伐支卜旆	
	김해1269	王松烏多伊伐支乞負支	
3	가아2004	及伐城文尸伊稗石	
	가아2005	及伐城文尸伊急伐尺稗石	
	가아2633	及伐城文(尸)□稗石	
4	가아42	陽村文尸只	
	가아1597	陽村文尸只稗	
5	가아65	千竹利…	
	가아66	千竹利	
6	가아40	陳城巴兮支稗	
	김해1282	陳城巴兮支稗	



동일명 목간



7	가야33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진주1263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가야5589	仇利伐 上多者村 □□□□	
8	김해1275	仇利伐 上多者村	乞利
	가야43	上莫村居利支碑	
9	김해1271	上莫村居利支碑	
	가야30	古陲-古利村末那	毛羅次尸智碑石
	가야1992	古陲-古利村末那	殆利夫碑
	가야1995	古陲-古利村末那仇□	(稗)(石)
	가야1998	古陲-古利村□…	乃兮支碑石
10	가야2014	古陲-古利村末那沙見	日系利碑石
	가야2636	古陲-古利村本波	陲*支碑發
	가야4685	古陲-古利村本彼	陲*只碑發



수	종	수량	수	종	수량
1	소나무류	218	5	굴피나무류	1
2	버드나무류	11	6	팽나무류	1
3	밤나무류	5	7	산향나무류	1
4	전나무류	4	8	산벚나무류	1

총 242점(채취불가 3점)



수종	지역명 [추정지역]	목간번호
소나무류	甘文城 [경북 김천시 개령면]	가야62, 가야1590, 가야2026 가야2057, 가야4687 가야5595, 진주1268 진주1279
	仇利伐 [경북 의성군 / 충북 옥천군]	가야32, 가야33, 가야35 가야1596, 가야2012 가야2034, 가야2036 가야2619, 가야2627 가야5589, 가야5593 진주1263, 김해1275 김해1287, 진주1288
	夷津 [경북 북부지역]	가야29, 가야44, 가야1593 가야2011, 가야2025 가야2058, 김해1284
	鄒文(村) [경북 의성군 금성면]	가야38, 가야52, 가야1607 가야2033
	賈谷村 [경북 안동시 도산면 및 예안면]	가야1598, 가야2051

比思伐 [경상남도 창원군]	가야2639
須伐 [경북 상주시]	가야72
仇伐 [경북 의성군 단촌면]	가야1613, 가야1987 가야2018, 김해1272
소나무류 丘伐	가야2029, 가야5587



현나무류 목간



밤나무류 목간



그림 23. 버드나무류 목간

比思伐 [경상남도 창원군]	가야2639
須伐 [경북 상주시]	가야72
仇伐 [경북 의성군 단촌면]	가야1613, 가야1987 가야2018, 김해1272
소나무류 丘伐	가야2029, 가야5587
전나무류	가야1988
소나무류 及伐城 [경북 영주시 순흥면]	가야41, 가야70, 가야2004 가야2005, 가야2023 가야2630, 가야2633 진주1288
밤나무류	가야75
소나무류 古陘 [경북 안동시]	가야27, 가야28, 가야30, 가야1623 가야1992, 가야1995, 가야1998 가야2006, 가야2014, 가야2019 가야2636, 가야4685, 가야4688 김해1278
버드나무류	가야1991, 가야2038

'구 리벌'명 목간은
상부에 지역명을 크게 적고
그 아랫부분에 두 줄로 묵서

다른 목간들과 비교하여 크기가 비교적 큰 편

'구리벌'명 목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목간은
평균 길이 20cm 전후,
너비 2.0cm 전후

문서목간은 직육면체
평균길이 29.5cm, 너 비 1.9cm, 두께 2.0cm





「祝新代 上多齋村 文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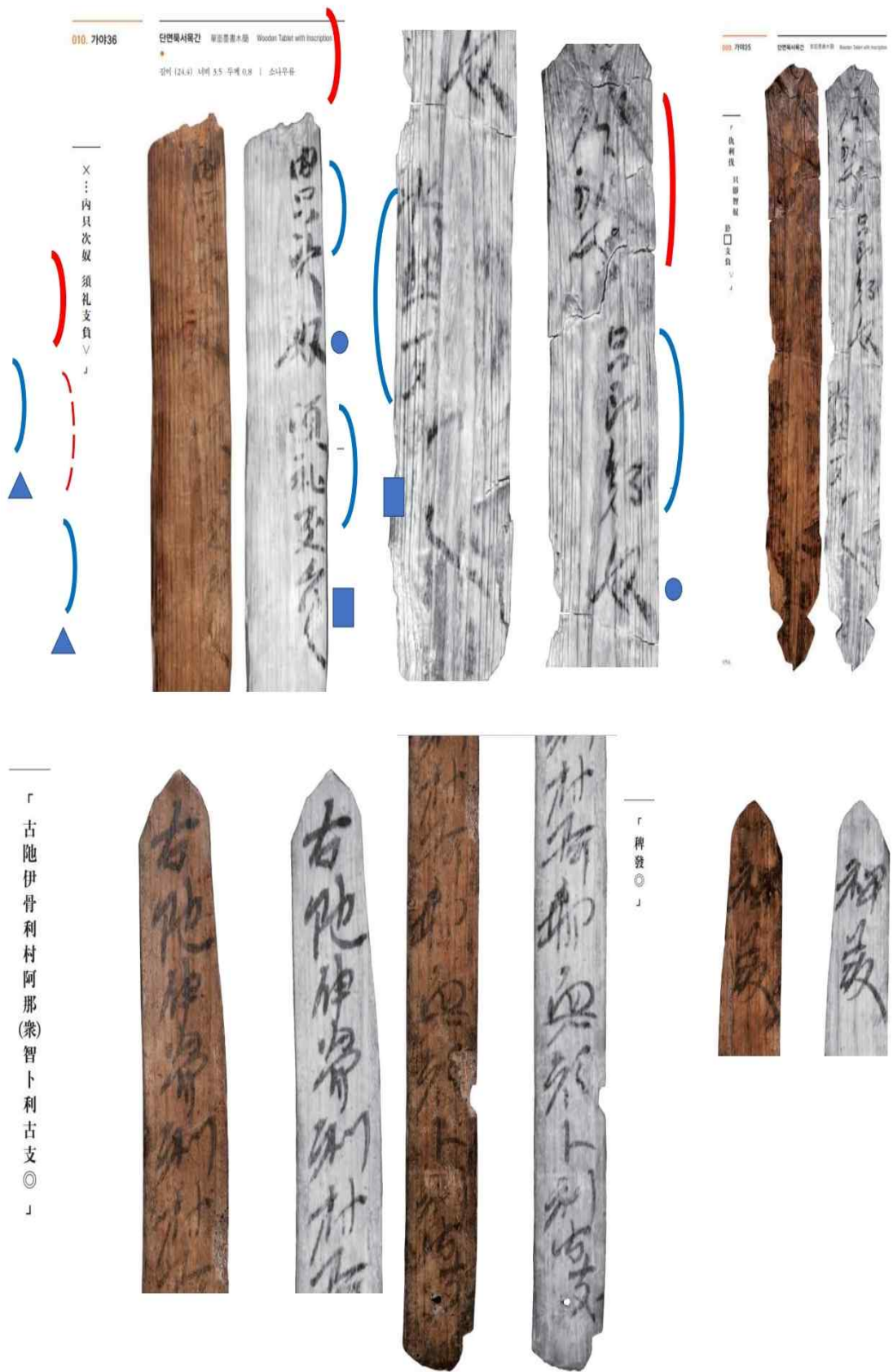


002



「向與知 人 居易交 人」





「古地新村智利加」尺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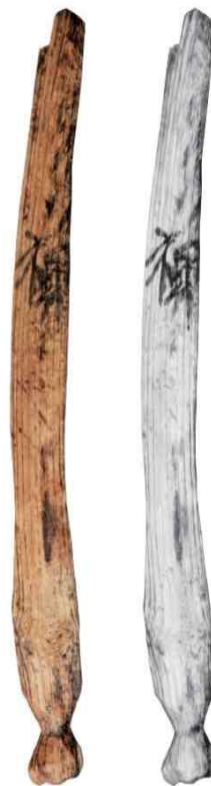
「豆兮利智禪石」



「夷津支阿那古刀羅只豆支」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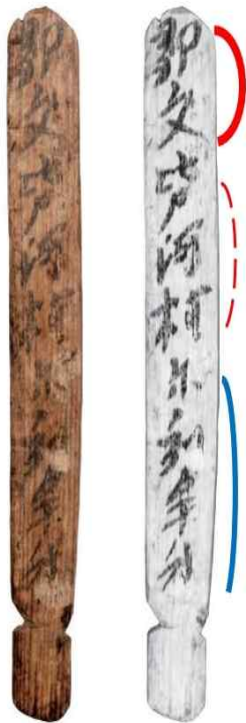
「古陸一古利村末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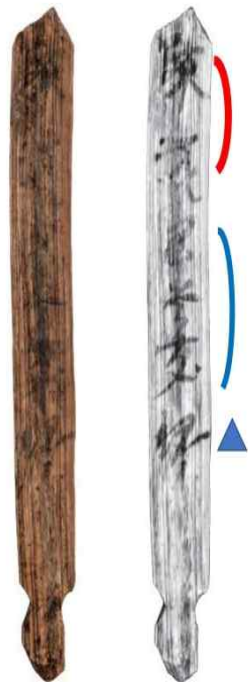
「毛羅次尸習碑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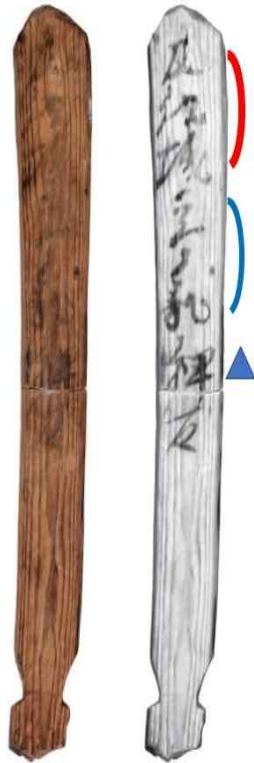
「鄒文比尸河村余利牟利」



「陳城巴兮支碑」



「及伐城立(能)碑石」



충주 : 거대철산

021. 기아47

단편목서목간 單面書寫木簡 Wooden Tablet with Inscription
길이 116.0 | 너비 2.0 | 두께 1.3 | 소나무종



× : (能) 鐵十之



100. 7014686

단편목서목간 單面書寫木簡 Wooden Tablet with Inscription 1
길이 173.0 | 너비 2.0 | 두께 0.4 | 소나무종

「三月中鐵山下及十五年」



「左施 河孔村政利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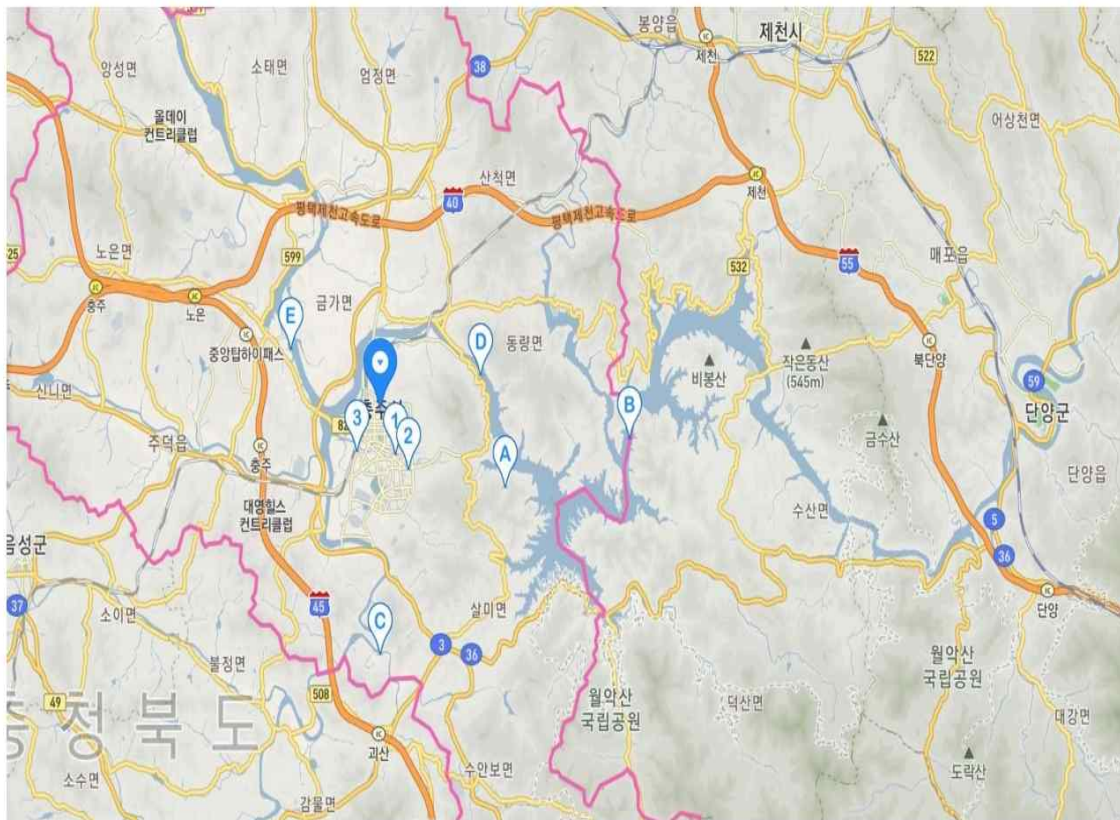


충주에는 보물로 지정된 철불이 3점
일명 "충주의 3대 철불좌상"
백운암, 단호사, 대원사

충주의 철산지와 철기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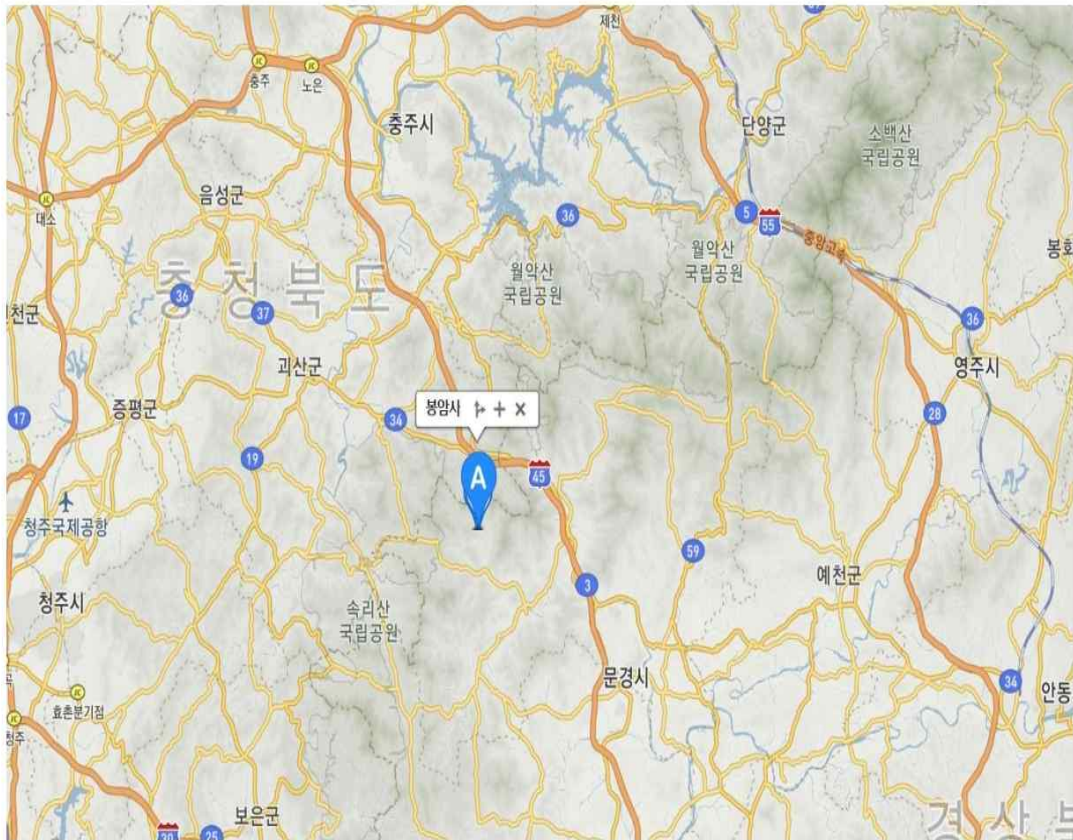
국내 3대 철산지의 하나

칠지도의 생산지를 곡나철산(谷
那鐵山)





沈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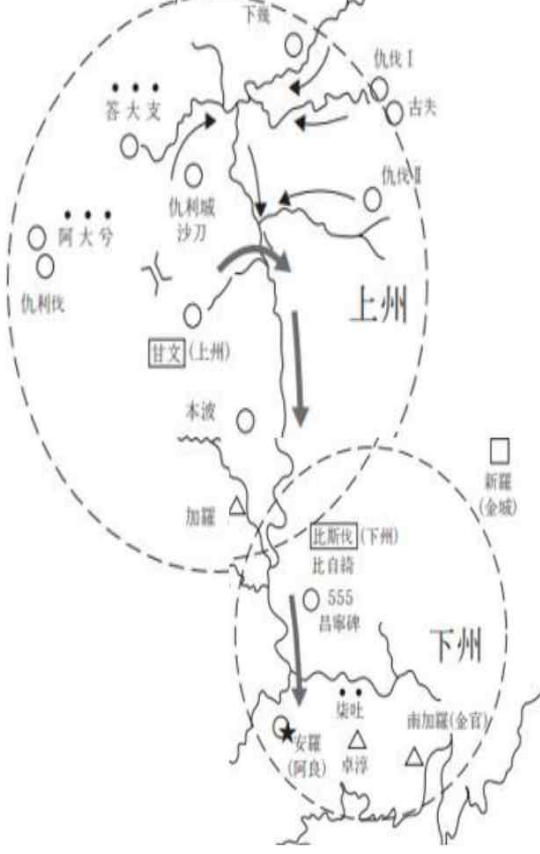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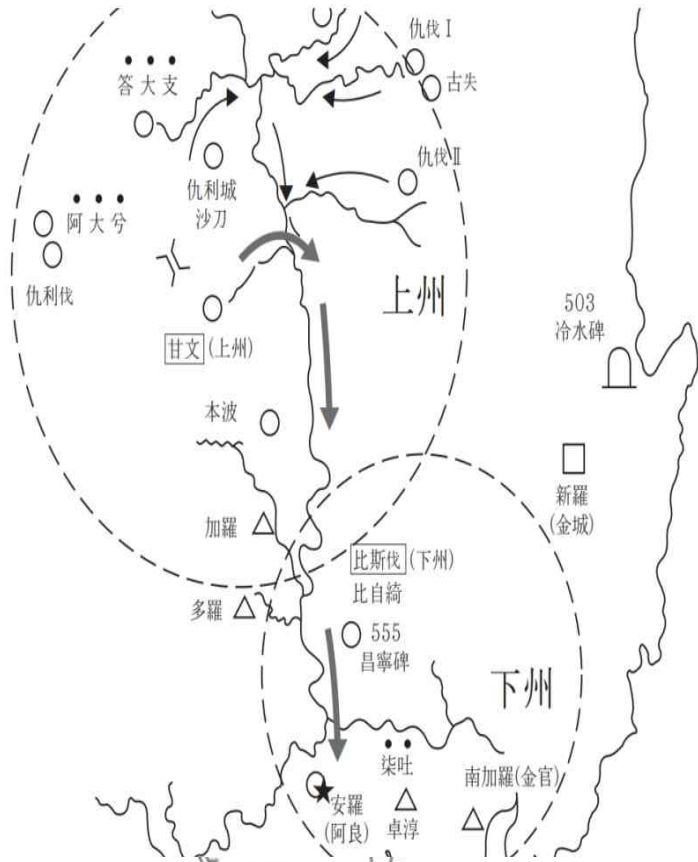
×
∴
城
稗
石
」



1 말먹이

2 인간의 식료





신해년(진평왕 13년(591))2월 26일에 남산(南山)에 신성(新城)을 만들었다. 이 때, 법에 따라 만든 지 3년 이내에 무너져 파괴되면 죄로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교령으로 서약케 하였다.

아량나두(阿良邏頭)인 사탁(沙喙)〈부(部)〉의 음내고(音乃古) 대사(大舍), 노함도사(奴舍道使)인 사탁〈부〉의 합친(合親) 대사, 영고도사(營沽道使)인 사탁〈부〉의 〰〰지(〰〰知) 대사이다.

흉(胸)
비(丕)

등위	경위(原位)	외위(外位)
1등	이별천(伊伐漢)	
2등	이척천(伊尺漢)	
3등	갈천(誼漢)	
4등	파진천(波珍漢)	
5등	대아천(大阿漢)	
6등	아천(阿漢)	
7등	일갈천(一吉漢)	막간(曷干)
8등	사천(沙漢)	술간(述干)
9등	급별천(級伐漢)	귀간(貴干)
10등	대내(大奈)	천간(價干)
11등	나매(奈麻)	고간(高干)
12등	대사(大舍)	상간(上干)
13등	소사(小舍)	간(干, 下干)
14등	갈사(吉士)	일벌(一伐)
15등	대오(大烏)	일척(一尺)
16등	소오(小烏)	피일(彼日, 彼日)
17등	조위(造位)	아척(阿尺)

군상촌주(郡上村主)인 아량촌(阿良村)의 금지(今知) 찬간(撰干), 칠토(柒吐)지이리(柒吐知余利) 상간(上干),
장척(匠尺)인 아량촌의 말정차(末丁次) 간(干), 노사촌의 차(次)례(次禮) 간,
문척(文尺)인 〰문지(〰文知) 아척(阿尺)이다.
성사상(城使上)인 아량의 물내생(沒奈生) 상간(上干), 공척(工尺)인 아질정차(阿叱丁次) 간,
문척(文尺)인 죽생차(竹生次) 일벌(一伐), 면착상(面捉上)인 진건(珍巾) 〰, 면착상인 지례차(知札次),
〰착상(〰捉上)인 수이차(首余次), 소석착상(小石捉上)인 옥모차(辱次) 〰 〰이다.
11보(步) 3척(尺) 8촌(寸)을 <국가로부터> 할당받았다.

아차혜촌(阿且兮村) 도사(道使)인 사탁(沙喙)〈부(部)〉의 물생차(勿生次) 소사(小舍) 구리성(仇利城) 도사인 사탁〈부〉의 급지(級知) 소사(小舍), 답대지촌(答大支村) 도사인 사탁〈부〉의 소질공지(所叱孔知) 〰이다.

등위	경위(原位)	외위(外位)
1등	이별천(伊伐漢)	
2등	이척천(伊尺漢)	
3등	갈천(誼漢)	
4등	파진천(波珍漢)	
5등	대아천(大阿漢)	
6등	아천(阿漢)	
7등	일갈천(一吉漢)	막간(曷干)
8등	사천(沙漢)	술간(述干)
9등	급별천(級伐漢)	귀간(貴干)
10등	대내(大奈)	천간(價干)
11등	나매(奈麻)	고간(高干)
12등	대사(大舍)	상간(上干)
13등	소사(小舍)	간(干, 下干)
14등	갈사(吉士)	일벌(一伐)
15등	대오(大烏)	일척(一尺)
16등	소오(小烏)	피일(彼日, 彼日)
17등	조위(造位)	아척(阿尺)

군중상인(郡中上人)인 사도성(沙刀城) 출신인 평서리지(平西利之) 귀간(貴干) 구리성(久利城) 출신인 수구리지(首仇利之) 찬간(撰干), 장척(匠尺)인 사호성(沙戶城) 출신의 가사리지(可沙里知) 상간(上干),
문척(文尺)인 미질리지(美叱利之) 일벌(一伐). 아대혜촌 출신의 작상인(作上人)인 소평지(所平之) 상간(上干), 장척(匠尺)인 가사리지(可尸利之) 일벌(一伐), 문척(文尺)인 득모(得毛) 〰 일척(一尺), 면석착인(面石捉人)인 행이지(行余之) 일벌(一伐), 면석착인인 수질혜지(首叱兮之) 일척, 〰석착인(〰石捉人)인 을안이지(乙安余之) 피일(彼日) 소석착인(小石捉人)인 정리지(丁利之) 피일이다.
7보(步) 4척(尺)을 <국가로부터> 할당받았다.

군상인(郡上人)은 <이동성(伊同城)의> 예안지(曳安知) 찬간(撰干),

생벌(生伐)의 ㉨문(㉨文) 상간(上干)이다.

장척(匠尺)은 동촌(同村)의 내정(內丁) 상간(上干), ㉨곡촌(㉨谷村)의 무리지(另利支) 일척(一尺)이다.

문척(文尺)은 생벌(生伐) 只次(只次) 일벌(一伐)이다.

성착상인(城促上人)은 이동촌(伊同村)의 ㉨시정(㉨尸丁) 상간(上干)이다.

공척(工尺)은 지대(指大) ㉨촌(指大㉨村)의 입부(入夫) 일벌(一伐)이다.

문척(文尺)은 이동촌(伊同村)의 ㉨차혜(㉨次兮) 아척(阿尺)이다.

면척(面促)은 백간지촌(伯干支村)의 지도(支刀) 일척(一尺)이다.

면척(面促)은 동촌(同村)의 서(西) ㉨ 아척(阿尺)이며,

㉨작인(㉨捉人)은 이동촌(伊同村)의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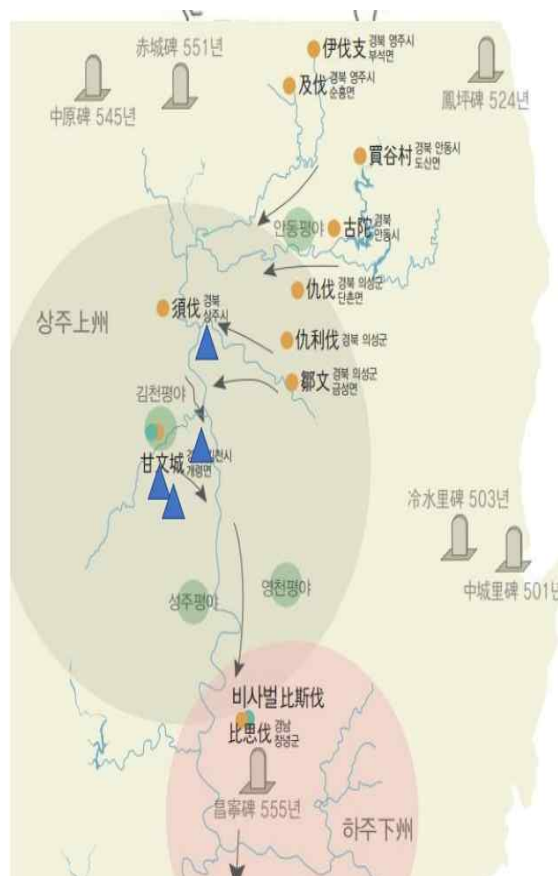
소석작인(小石捉人)은 백간지촌(伯干支村)의 무칠(戊七) ㉨이다.

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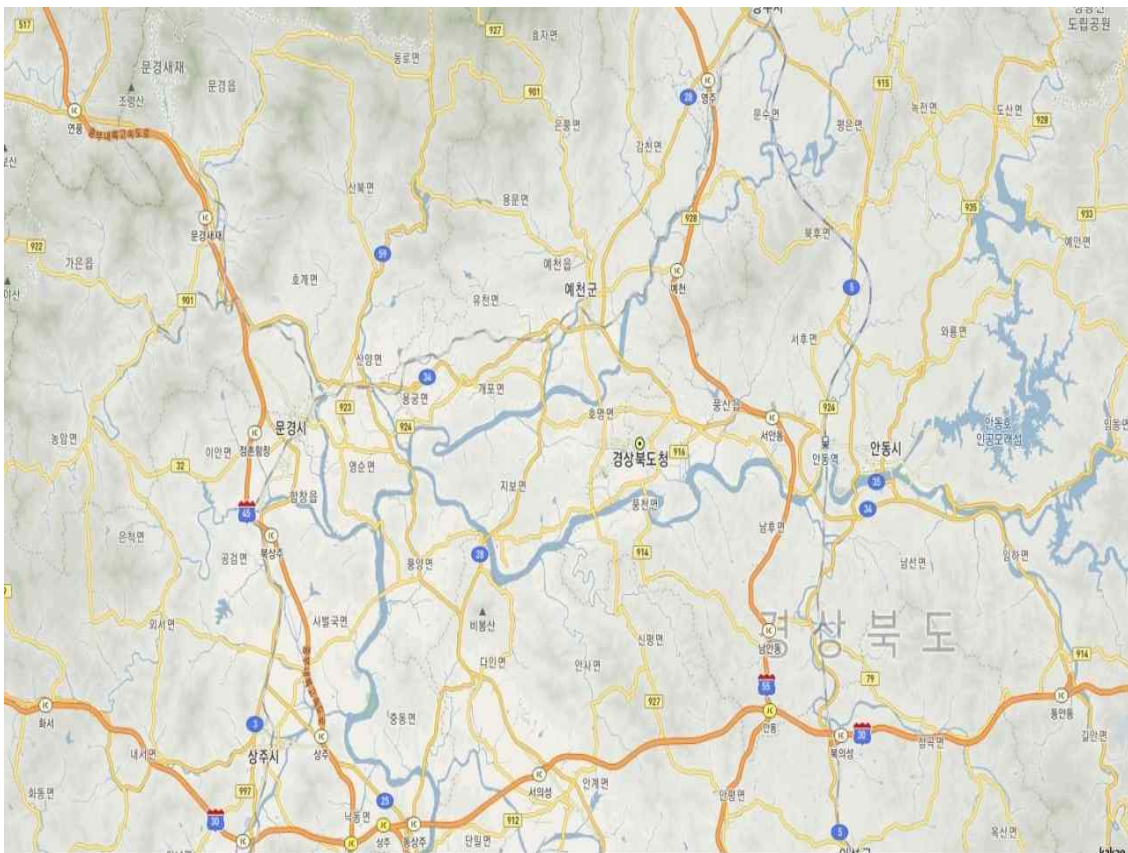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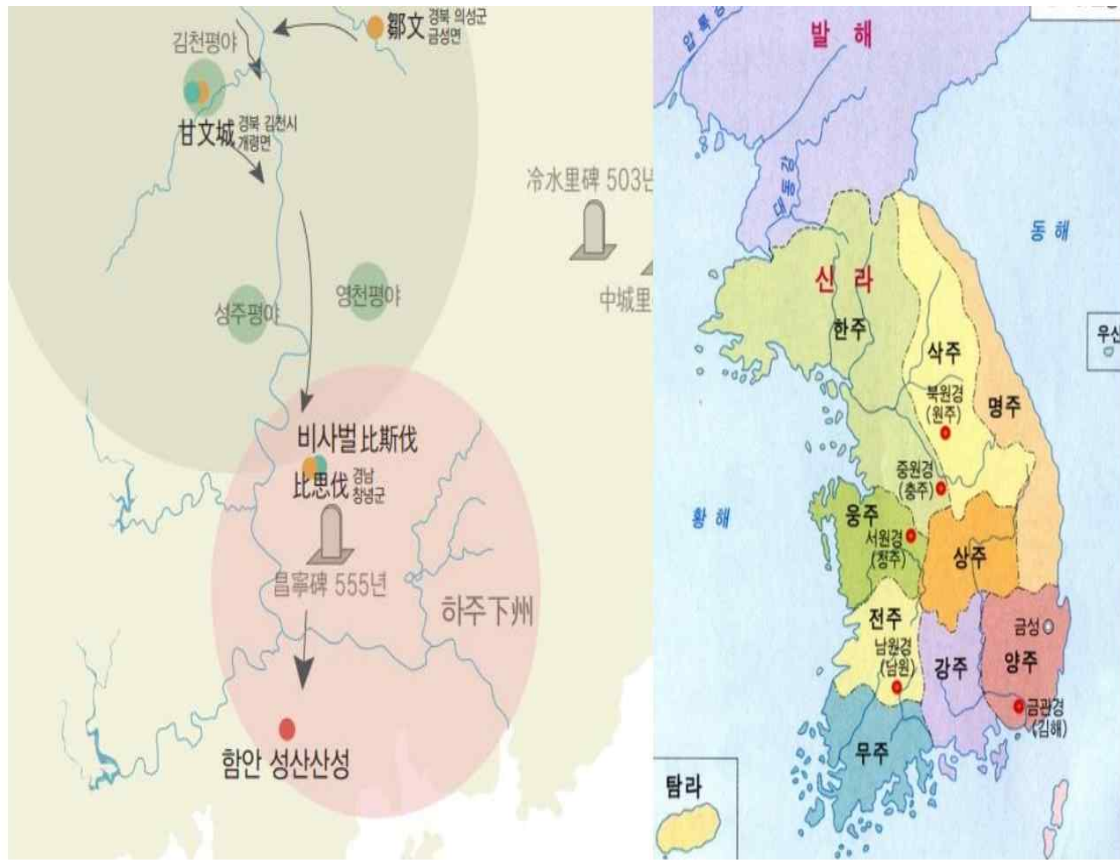
525년 군주 파견, 상주 설치
사벌주 군주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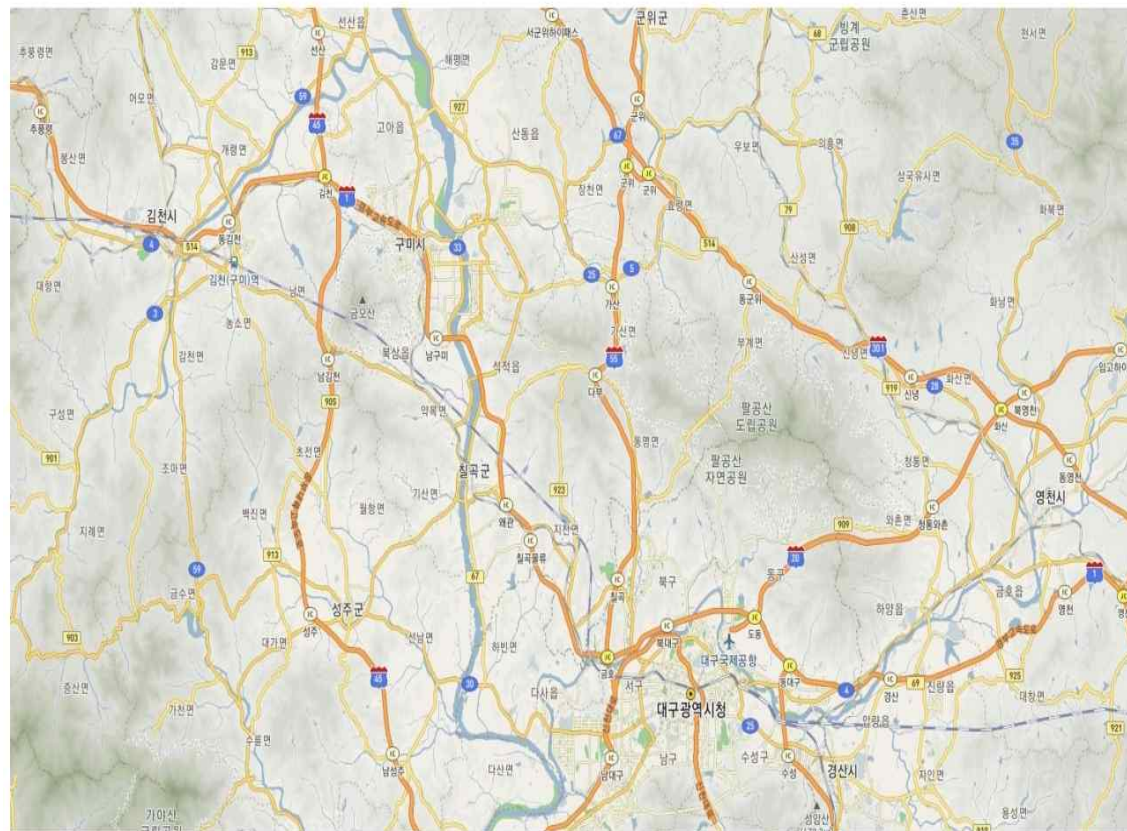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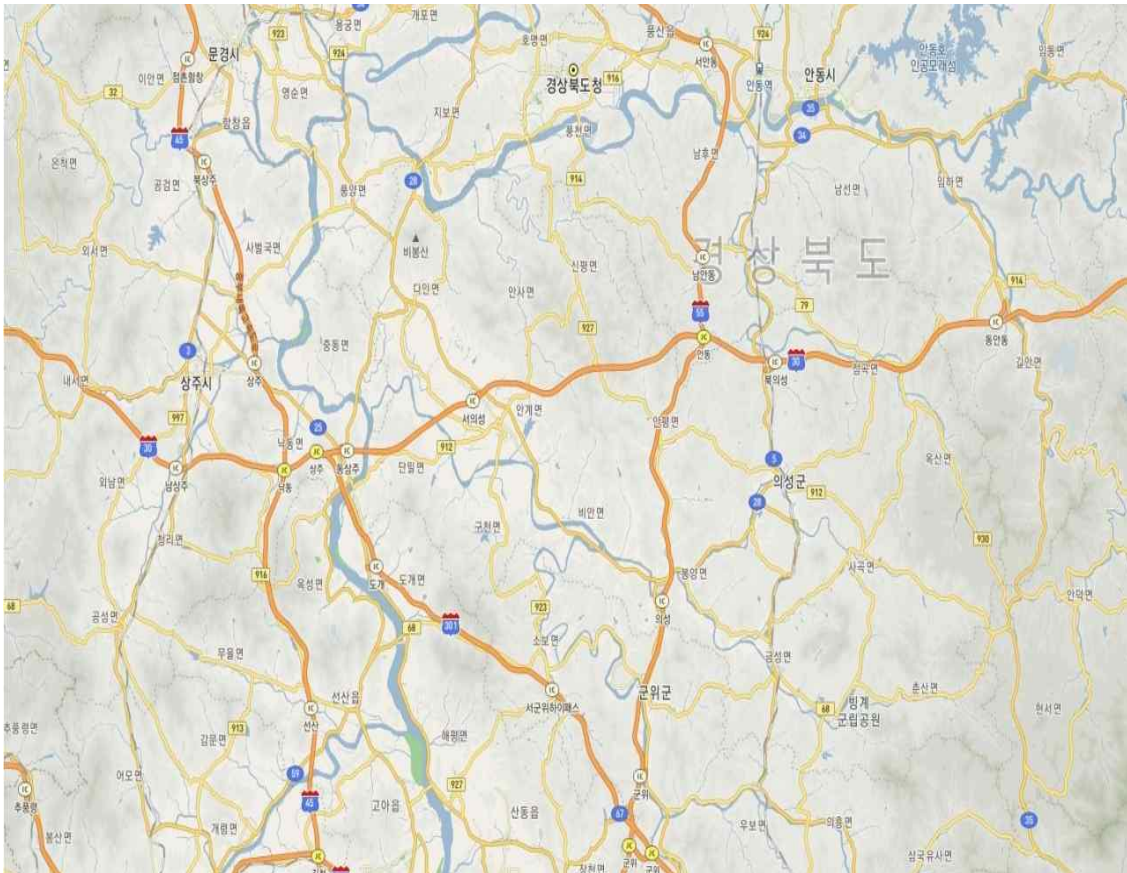
557년 감문주로 이동
(개령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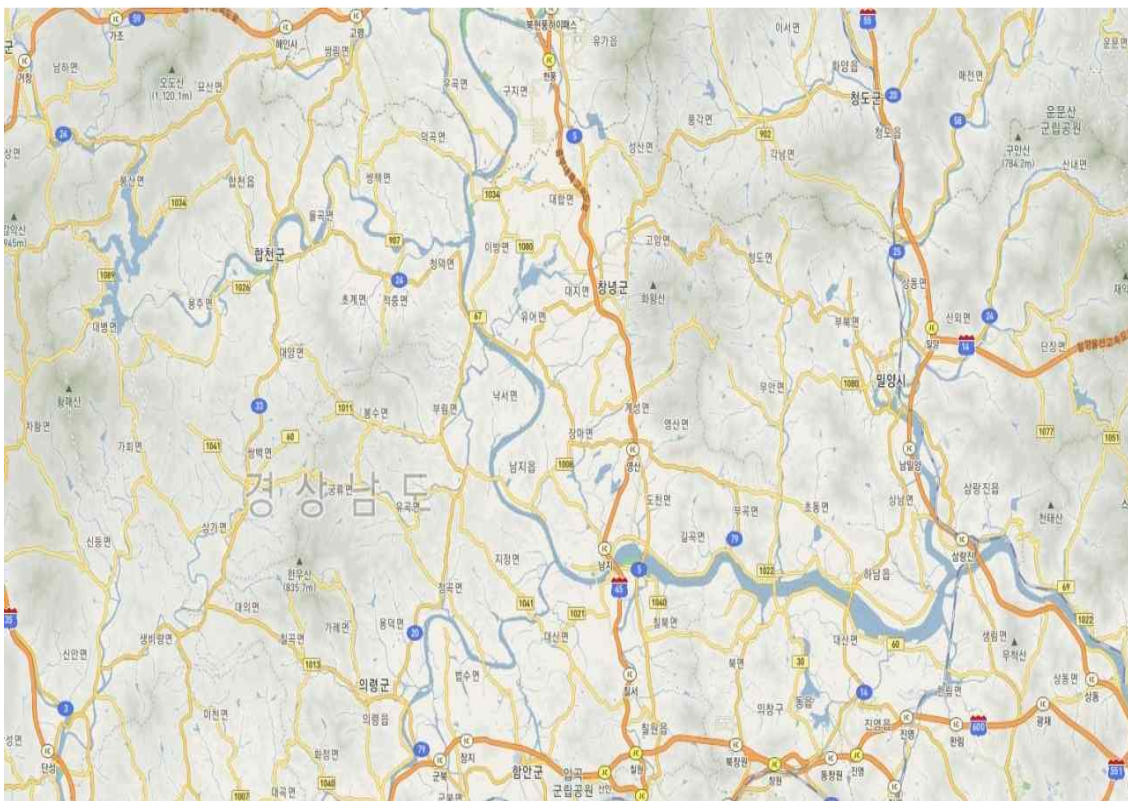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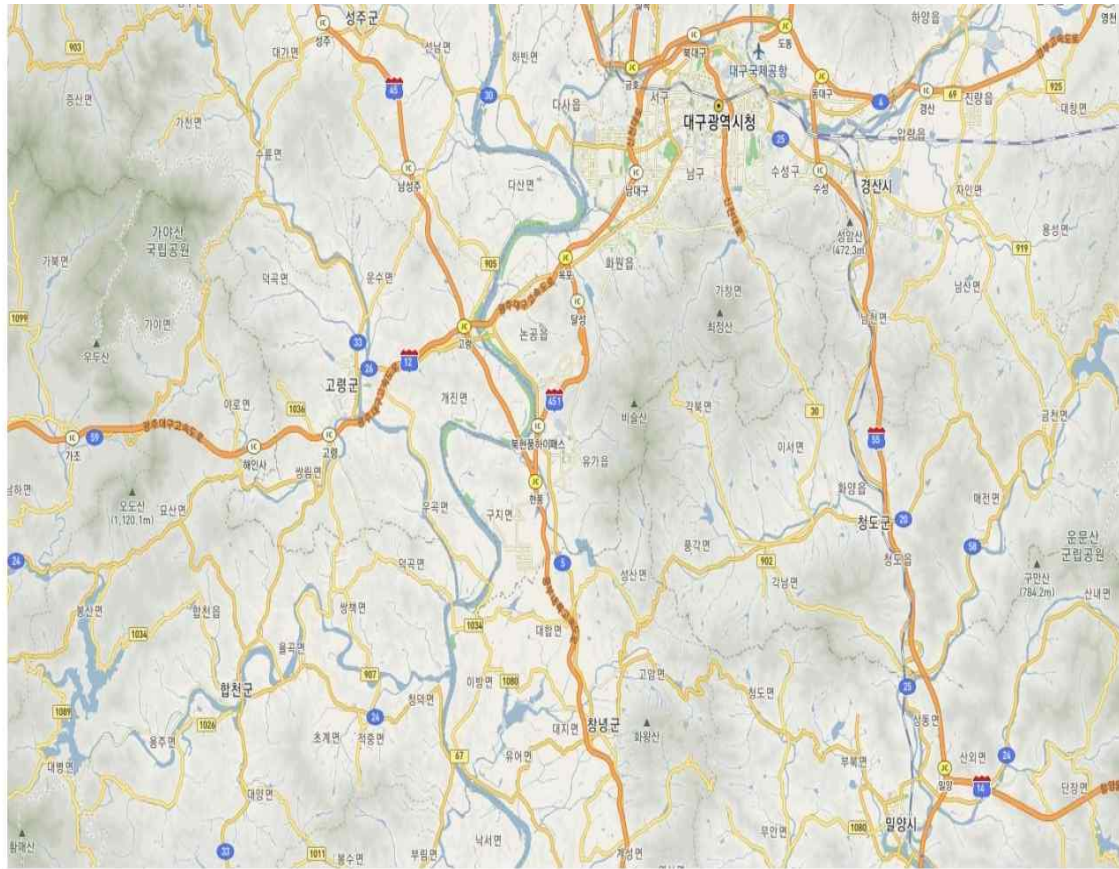
614년 일선군(구미)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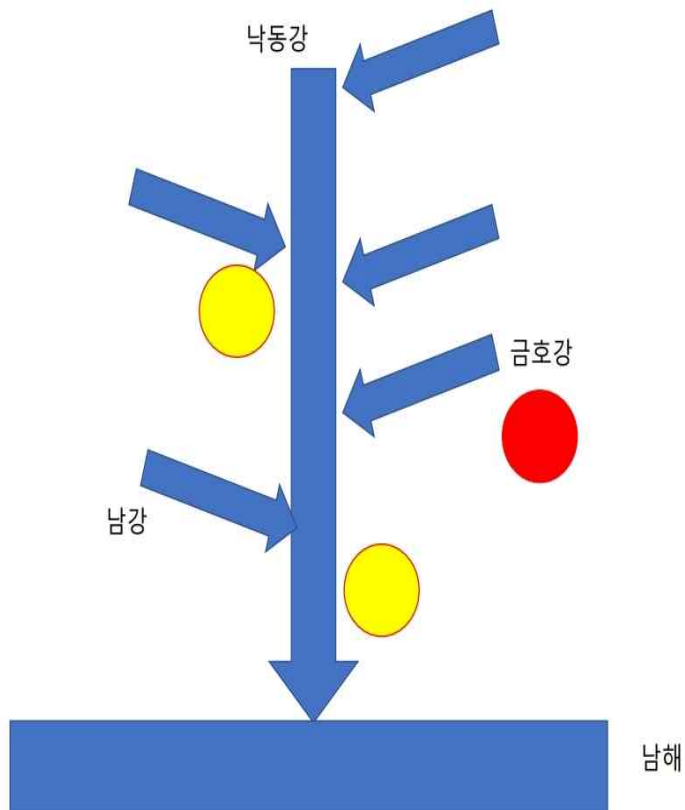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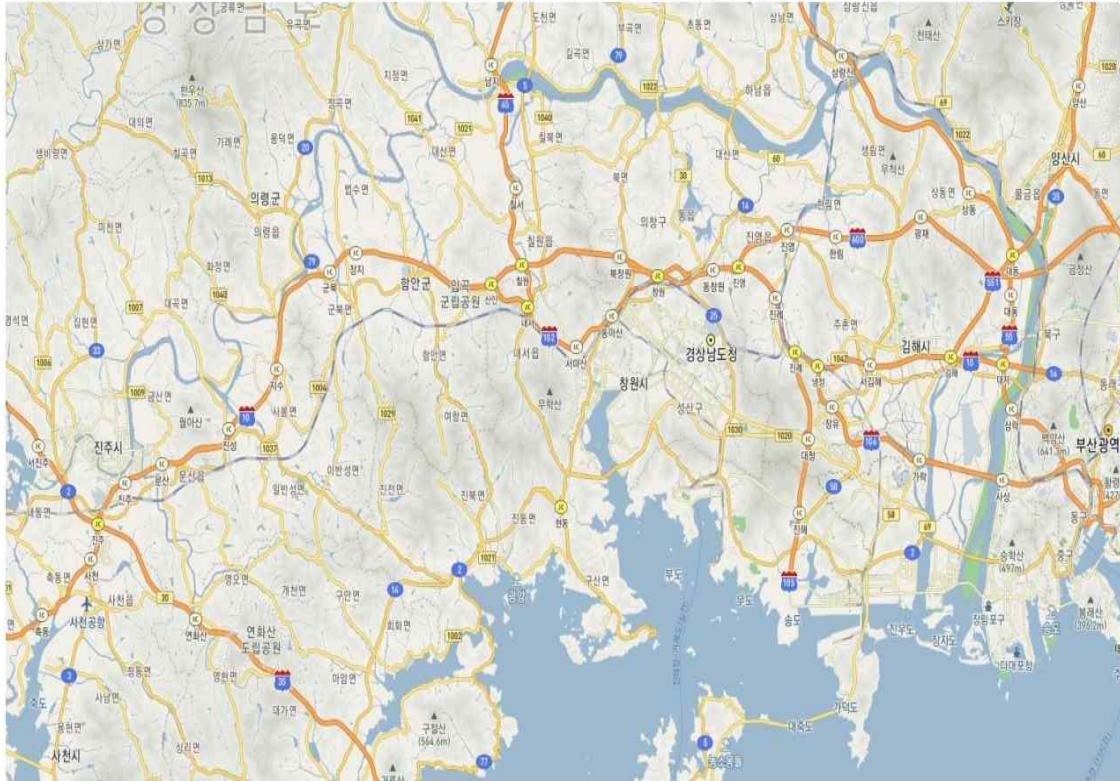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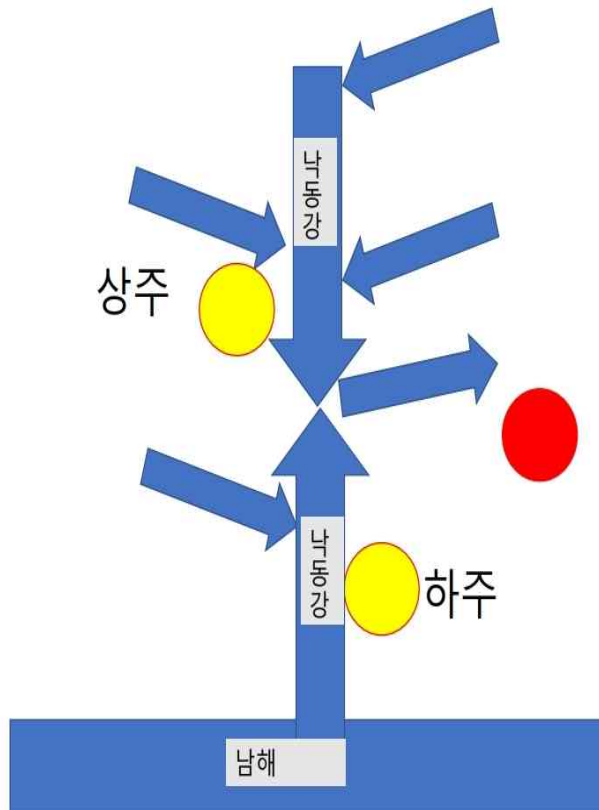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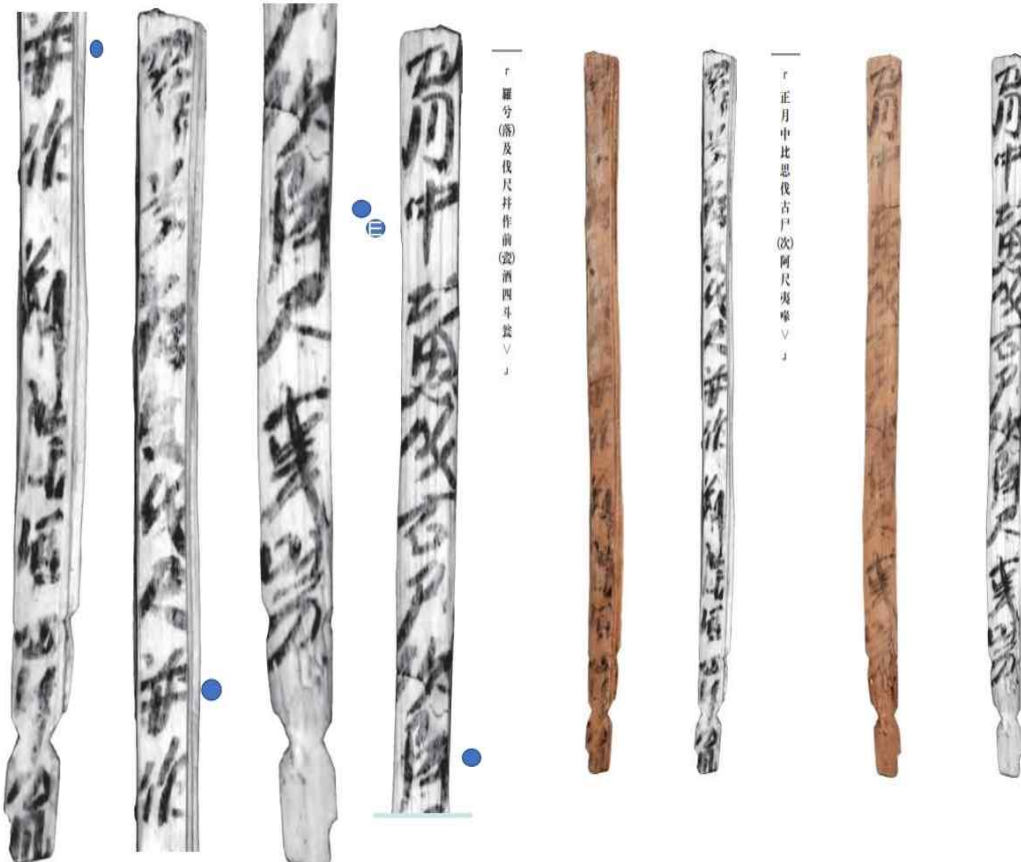






丁 몇
盆
丁 몇
村





5월에
비사벌성의
고시차 아척과 이탁라해지 급벌척이
함께 만들

전용주 4두옹(4말짜리 항아리)

등위	경위(京位)	외위(外位)
1등	이벌천(伊伐演)	
2등	이척천(伊尺演)	
3등	잡천(泥演)	
4등	파진천(波珍演)	
5등	대아천(大阿演)	
6등	아천(阿演)	
7등	일길천(一吉演)	역간(嶽干)
8등	사천(沙演)	술간(述干)
9등	급벌천(級伐演)	귀간(貴干)
10등	대나미(大奈麻)	찬간(撰干)
11등	나미(奈麻)	고간(高干)
12등	대사(大舍)	상간(上干)
13등	소사(小舍)	간(干, 下干)
14등	길사(吉士)	일벌(一伐)
15등	대오(大烏)	일척(一尺)
16등	소오(小烏)	피일(彼日, 彼旦)
17등	조위(造位)	아척(阿尺)

거벌척(급벌척)

(조관)촌

이 집은 도령의
집인데

도둑이 있었음

「此負刀塚負盜人有」



「 邑(知)村」



「卒日始之人(此人鳥國城置不行道之白)」



「 去(純)石日(術)說 美 荷(勞)」



「 曹(我)大 由 功六 大城從人士卒日」



「六月申 多壽城 (濟)村主敬白之 鳥 成行之」





3월에
진내멸 춘주가 삼가 아뢰었다.

이모라	급벌척	3월
이탁라혜지	거벌척	정월

<대성에 계신 미족이지 대사께 가서 말씀드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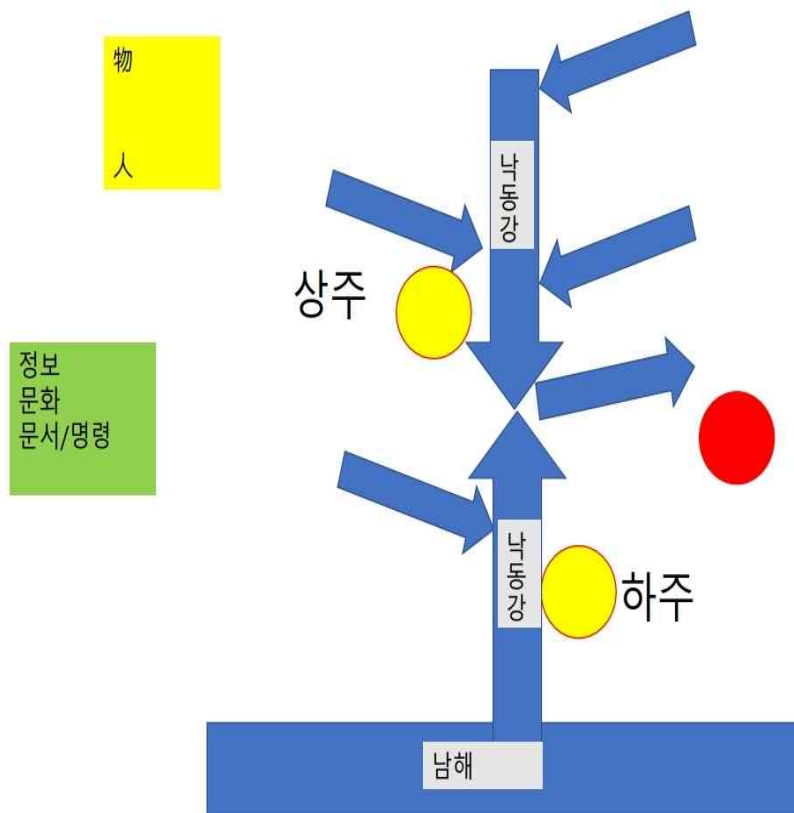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앞서 60일을 대신 하는 법이 미숙하여
 이모라 급벌척이 말하기를
 << 법을 30으로 대신하였다고 고하고>>
 30일을 먹고 갔습니다.>

毛

비사벌=창녕

진내멸 춘주 => 미족이지 대사

이모라 급벌척 =>



591년 왕경 축성 사업
전국의 인원 동원 촌 단위

592년 함안 성산산성 등의 축성 사업
전국에서 식료 및 물자 송부

일부 지역에서는 인원도 동원(근처)

그 수송의 중심은

낙동강

낙동강은 신라 경영의 중요 기반, 기재

광개토태왕릉비문 속 海자의 의미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목차

I. 머리말

II. 拓本の 종류와 제작시기론

1. 탁본의 종류

2. 제작시기론

III. 비문 속의 海자

1. 1면 5행 21~22자 ‘四海’의 의미

2. 1면 9행 11~14자 ‘來渡海破’의 검토

3. 3면 8행 31~33자 ‘東海賈’

IV. 맺음말

I. 머리말

廣開土太王陵碑(이하 '능비'로 약칭한다)¹⁾ 고구려 장수왕이 父王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414년에 세운 것이다. 1500년 가까이 잊혀져 있다가 세상에 다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비는 건립 당시부터 줄곧 현 지점에 세워져 있었지만, 한국과 중국의 사서 등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의아한 의문 중의 하나이다.

능비는 1880(혹은 1876)년 발견 이후 곧 拓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탁본은 130여 본에 이른다.²⁾ 그런데 같은 碑로부터 채탁한 탁본이지만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 원인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탁본이라 부를 수 없는 것도 있으며, 비면에 석회를 바른 후 탁출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존 비는 석회 고착화로 인해 원래의 상태를 잃

1) 碑에 대한 명칭도 廣開土王碑, 廣開土王陵碑, 廣開土大王碑, 廣開土太王碑, 廣開土大王陵碑, 好太王碑, 廣開土好太王碑 등 다양하다. 필자는 碑가 王陵과 세트 관계라는 점과 아울러 비문 속에서 ‘太王’이라 쓴 점을 고려하여 ‘廣開土太王陵碑’라 쓴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 『광개토태왕릉비 탁본-張明善 탁출-』에 실린 고광의, 조우연, 백승옥의 논고 참고, 2019.

어버린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비문의 원래 글자를 읽어 내기 위해서는 발견 초기에 탁출된 탁본이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탁본의 선후 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비문의 원래 글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비문의 글자 석독은 탁본에 대한 이해가 우선인 것이다.

능비 발견 후 지난 140여 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³⁾ 그러나 능비 탁본에 대한 관심과 탁본 編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일본학계에서 시작되어 일부 중국학자의 연구가 학계에 제출되어있다.⁴⁾ 반면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탁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탁본의 제작 연대와 그에 따른 상대 편년에 관한 소개 글이 2편 있으며,⁵⁾ 실물 자료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탁본과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에 대한 검토가 있을 뿐이다.⁶⁾

Ⅱ장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탁본에 대한 종류와 제작시기론에 대해 설명한다.⁷⁾ Ⅲ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탁본을 바탕으로 ‘海’로 석독되는 글자에 대한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拓本の 종류와 제작시기론

1. 탁본의 종류

1) 제작 방법에 따른 분류

지금까지 능비 탁본이라 불리어지는 것에는 墨水廓填本, 原石拓本, 石灰拓本, 雙鉤本, 模刻本 등이 있다. 이는 탁본의 제작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만주에 파견되었던 일본 육군본부의 사코우 카게노부(酒匂景信) 중위가 1883년 일본으로 가져온 이른바 사코오(酒匂)본은 기존에 雙鉤加墨本이라 불렀다. 그러나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은 이를 墨水廓填本이라 해야 한다고 하였다.⁸⁾ 雙鉤加墨本은 탁지를 비면에 직접 대고 윤곽을 그려낸 후 먹을 가하여 완성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코오본은 비면에 직접 종이를 대고 文字의 윤곽을 그린(이를 雙鉤라고 한다)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墨水廓填本은 비면에 종이를 대고 탁본을 뜬 후, 그 탁본을 보아가면서 문자를 읽고, 그 위에 별도의 종이를 대고 베낀 것을 말한다. 베낄 때 먼저 얇은 먹으로 자획의 주위를 그린다.

- 3) 연구 방향의 정리는 早乙女雅博, 「『日本에 있어서 廣開土王碑拓本과 碑文 研究』에 대해서」『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고구려연구2, 학연문화사, 1996, 63~64쪽 참조. 연민수·서영수 외,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3에 능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논고들이 실려 있어 참고된다.
- 4)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長正統, 「九州大學所藏好太王碑拓本の外的研究」『朝鮮學報』99.100輯, 1981. 武田幸男, 『廣開土王陵碑原石拓本集成』, 1988. 橫山昭一, 「目黒區所藏拓本の採拓年代と外的特徴」『目黒區所藏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寫真集』, 目黒區守屋教育會館郷土資料室, 1990. 早乙女雅博, 「東京大學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小拓紙からみた制作年代の考察-」『고구려연구』 21, 2005. 徐建新, 『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 東京堂出版, 2006. 武田幸男,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2009. 古瀬奈津子 編,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東京, 同成社, 2013.
- 5) 백승옥, 「廣開土太王陵碑 拓本の 編年方法-연구현황을 中心으로-」『木簡과 文字』제8호, 한국목간학회, 2011. 이정빈, 「광개토왕릉비 탁본 연구방법의 성과와 과제」『동북아역사논총』49, 동북아역사재단, 2015.
- 6) 백승옥,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광개토대왕릉비 탁본의 특징과 제작시기」『탁본-광개토대왕릉비에서 해인사 대종까지-』, 동아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2017.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廣開土太王陵碑 탁본의 특징과 제작시기」『高句麗渤海研究』제67집, 고구려발해학회, 2020.
- 7) 이 부분은 필자의 전고들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 8) 武田幸男,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東京), 2009, 220~226쪽.

그 다음 진한 먹으로 덧 그려 완성시키는데, 사꼬오본은 이러한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공정 과정에서 바탕이 된 원석탁본을 당시의 사람이 어떻게 읽었는가라는 점에서 墨水廓填本의 사료적 가치는 있다.⁹⁾ 현재 알려진 墨水廓填本은 앞의 사꼬오본과 2004년 徐建新에 의해서 소개된 중국 북경 개인 소장본(李超瓊 舊藏本)이 있다.¹⁰⁾ 이초경 구장본에는 네 건의 발문이 붙어 있는데, 이들 발문을 종합하여 보면 이 본은 1881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¹¹⁾

原石拓本은 비면에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탁한 탁본을 말한다. 비 발견 후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 원석탁본이라고도 한다. 북경대학 도서관 A, B, C, D본과, 청명본(임창순 구장본), 혜정본, 대만의 부사년 갑, 을본, 일본의 水谷本과 金子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능비 탁본이 세상에 알려지자 탁본을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이에 탁본의 量産과 명확한 글자를 요구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면에 석회를 바른다. 이를 石灰拓本이라 한다. 석회탁본은 1890년 무렵부터 初天富와 그의 아들 初均德이 대를 이어 채탁 작업을 하면서 양산되어졌다. 初均德이 1938년 무렵 현지를 떠날 때까지 약 50년 가까이 석회탁본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탁본의 대다수가 석회탁본이다.¹²⁾

이 외에 雙鉤本, 模刻本 등으로 불리는 것이 있다. 이들은 모두 원 비석으로부터 탁본한 것이 아니어서 탁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쌍구본은 楊守敬의 것이 대표적이다. 楊守敬의 쌍구본은 본인 소장의 석회탁본을 원본으로 하여 글자의 모양을 그려 만든 것이다. 宣統元年(1909)에 木版本으로 간행 배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등이 있다.

模刻本은 翻刻本이라고도 한다. 原刻의 문자를 돌이나(石板) 나무판(木板), 종이판(紙板)에 복제해서 제작한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상당수 확인된다. 능비 탁본이 고가에 매매되자 불량한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것이다. 석회탁본이 유행하던 1920년대~30년대 초반에 이미 제작되어 배포된 것도 있다. 북경대학도서관본, 월전 장우성 화백 구장본¹³⁾, 일본의 池上庄治郎 舊藏本과 高麗神社本 등이 모각본이다. 그러나 연구 부족 등으로 인해 모각본의 제작시기와 제작자, 제작기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2) 보관 상태에 따른 분류

현존하는 능비 탁본들은 그 보관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능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능비 탁본을 全張의 형태로 보관하기가 쉽지 않다. 능비 탁본은 제작 당시에도 각 면한 장의 탁본지로부터 수십 매의 탁본지로 만들어졌다. 이후 이를 자르거나 붙여 보관하였다. 裝幀의 방법도 다양했다.

(1) 全張의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도 ①채탁 당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접어서 보관하거나, ②뒷면과 측면에 약간의 종이만 덧대어 假裝幀의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 ③두루마리나 ④액자에 粧潢하여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9) 백승욱, 「廣開土太王陵碑 拓本の 編年方法-연구현황을 中心으로-」『木簡과 文字』제8호, 한국목간학회, 2011, 20쪽.

10) 徐建新, 『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堂出版(東京), 2006.

11) 백승욱, 「廣開土太王陵碑 拓本の 編年方法-연구현황을 中心으로-」『木簡과 文字』제8호, 한국목간학회, 2011, 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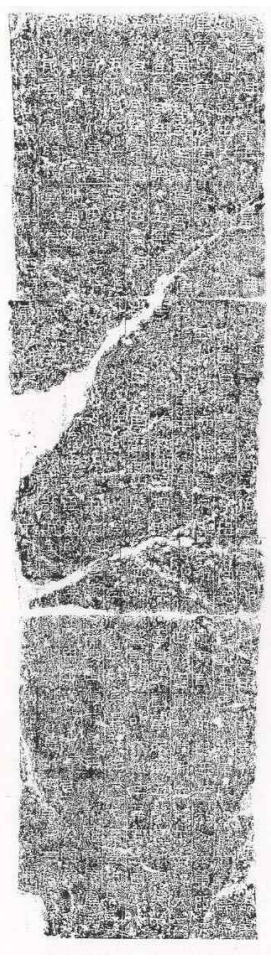
12) 국립문화재연구소, 『廣開土太王陵碑 拓本- 張明善 탁출』, 2019에 실린 고광의, 조우연, 백승욱의 논문 참고.

13) 장우성 화백 구장본에는 석회탁본도 있다.

(2) 탁본을 잘라서 冊으로 엮어 보관하는 경우이다. 이전에는 이러한 형태를 剪裝本 또는 剪帖本이라 하였다. 剪裝本과 剪帖本은 탁본을 가위로 잘라서 裝幀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일본학계의 용어를 그대로 쓴 것이다.¹⁴⁾ 한 면에 4~6字 씩 장정하여 책으로 엮는 방법이다. 책을 엮는 방법은 실을 사용하는 방법과 풀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실을 사용하여 책을 엮은 것을 ⑤線裝本이라 할 수 있다. 풀을 사용하는 방법은 책이 병풍식으로 꺾여 이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⑥折帖本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線裝本에는 원석탁본인 혜정본과 석회탁본인 국립중앙박물관 선장본¹⁵⁾ 등이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은 절첩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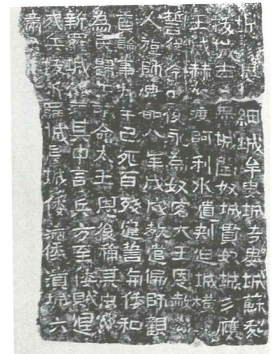
목수곽전본
(海勾景信本)



원석탁본(水谷本)



석회탁본(샤반느본)



모각본
(북경대학도서관 H본)

〈그림 1〉 제작 방법에 따른 탁본의 종류

- 14) 武田幸男,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東京), 2009.
 15)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석회탁본 2벌이 있다. 하나는 4축으로 표장된 全張本이다(유물번호 본관6490). 이는 1918년 입수된 것이다. 또 하나는 선장본으로 2006년 입수한 것이다. 선장본은 전 10책으로, 18.㎝×30.7㎝의 사이즈이다. 유물명은 ‘광개토호태왕비 석회탁본 전첩’으로 되어 있다. 유물 관리 번호는 ‘구5248’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금석문자료』④,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자료 총서 10, 2010, 19쪽 참조.

		
		
<p>혜정본 1권의 외형과 내면</p>	<p>중앙박물관 선장본(구5248)</p>	<p>규장각본(상)과 청명본(하)</p>

〈그림 2〉 선장본(좌, 중)과 절첩본(우)의 예

2. 제작시기론

탁본이 언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 탁본에 담긴 글자의 신뢰도와 관계된다. 때문에 제작 시기에 대한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미즈타니 데이지로(水谷悌二郎)는 처음으로 탁본의 종류를 쌍구묵전본, 원석탁본, 석회탁본으로 나누었다.¹⁶⁾ 이러한 구분은 이후 탁본 분류의 기본이 되었다. 水谷은 1884년부터 쌍구묵전본이 만들어지며, 원석탁본은 1887년부터, 석회탁본은 1899년부터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본인 소장본은 원석탁본이라 하였다.

다케다 유키오는 탁본의 공백부분(着墨되지 않은 부분)의 형태 변화에 주목하여 탁본을 편년하였다.¹⁷⁾ 다케다는 각종 묵본의 유형을 A형(原石拓本), B형(墨水廓填本), C형(石灰拓本), D형(模刻本)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A형(原石拓本)은 비가 발견된 1880년 이후부터 1890년까지 약 10년간 탁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케다는 묵본을 拓出法(수탁 수법의 섬세한 정도 및 拓字의 두터운 정도), 着墨法(착묵한 곳의 有無와 廣狹), 用紙法(각 면의 段과 매수, 합계 매수, 層數)을 기준으로 다시 A1~4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번 석회를 바른 후에 다시 석회를 바르지 않았다면, 석회탁본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알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탁출할 때에 석회 보수를 계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획의 변화만으로 탁본의 선후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武田의 분류법만으로는 탁본의 편년이 쉽지 않다. 능비 탁본의 탁출 연대와 관련한 편년안에 대해서는 제가들의 견해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이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16) 水谷悌二郎, 「好太王碑考」 『書品』 100号, 1959; 동씨, 『好太王碑考』, 開明書院(東京), 1977.

17) 武田幸男, 『廣開土王陵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東京), 1988., 243~251쪽.

18) 백승옥, 「廣開土太王陵碑 拓本の 編年方法-연구현황을 中心으로-」 『木簡과 文字』 제8호, 한국목간학

- I 기(1880~1890) : 목본 및 원석탁본 제작기
 - I -1소기(1880~1882) : 담목 단편 원석탁본, 목수곽전본, 쌍구가목본 병행시기
 - I -2소기(1882~1889) : 원석탁본 제작시기
- II 기(1890~1920년대 후반) : 석회탁본 제작기
 - II -1소기(1890~1899) : 석회탁본 형성기
 - II -2소기(1900~1920년대 후반) : 석회탁본 전성기, 모각본 제작
- III 기(1920년대 후반.30년대 초~1960년대 초) : 석회 박락기
- IV 기(1960년대 초 이후~현재) : 석회 잔존 상태 비면 고착기

III. 비문 속의 海字

능비문 속에는 1면 5행 22자, 9행 13자, 3면 8행 32자에 ‘海’가 보인다. 이 가운데 1면 5행 22자는 ‘四海’의 용어로, 3면 8행 32자는 ‘東海賈’의 형태로 보임은 물론 석독에도 이견이 없다. 그런데 1면 9행 13자는 ‘來渡海破’의 형태로 설명되어 왔지만 13자가 ‘海’자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이는 임나일본부설의 주요 근거가 되는 이른바 辛卯年 기사이다. 아래에서 각각 검토해 본다.

1. 1면 5행 21~22자 ‘四海’의 의미

비문 1면 4행 24자부터 5행 22자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遷之十七世孫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号爲永樂太王 恩澤洽于皇天 威武振被四海”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7세손에 이르러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 18세에 즉위하여 부르기를 영락태왕이라 하였다. (태왕의)은택이 하늘까지 두루 미쳤고, 위력과 무력은 사해(사방)에 떨쳤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광개토왕은 19대 왕이다. 능비문에서 17세손이라 기록한 것은 비문에 기록한 추모왕과 이를 이은 2대 유류왕, 그 다음의 3대 대주류왕으로부터 17세손에 이른다는 것이다. ‘遷’의 음은 답인데, ‘及’와 ‘迨’와 같은 뜻으로 ‘미치다’, ‘이르다’의 의미이다.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은 왕의 시호 전체(풀네임)를 기록한 것이다. 『삼국사기』 18권 고구려본기 제 6에는 廣開土王이라 하고, 장수왕 본기에는 開土王이라고도 쓰고 있다.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廣開土大王이라고도 적고 있다. 이는 모두 능비문의 것을 약칭해서 부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왕이 돌아가신 후 붙인 시호이다. 생전의 호칭은 영락태왕이었음을 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름은 談德이었다.

‘二九登祚’라 하여 18세에 왕위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2×9=18임을 기록하여 이 시기 이미 곱셈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恩澤洽于皇天’의 부분은 ‘태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두루 미쳤다’라고 해석된다. 다만 시조

회, 2011, 24쪽.





추모왕이 스스로 皇天의 아들이라고 한 만큼 광개토태왕 자신 또한 황천의 자손이 된다. 따라서 그의 은택이 황천에 미쳤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베푼 왕의 은택이 황천에까지 알려졌다는 과장적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威武振被四海’ 또한 과장된 표현이긴 하나 왕의 위업을 사방에 알린 것이다. 광개토태왕 시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은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한 왕이다. 무력으로 왕의 위업을 천하에 떨쳤다는 표현이다.

동일한 표현이 『삼국사기』 권6, 신라 문무왕 10년(670)조에도 보인다. 이미 멸한 고구려 殘民을 달래기 위해 安勝을 고구려왕으로 삼으면서, 그 책봉문에 ‘公太祖 中牟王 積德北山 立功南海 威風振於靑丘 仁教被於玄菟[공의 시조 중모(추모)왕이 일찍이 덕을 북산에 쌓고 공을 南海에 세웠으며, 그 위풍은 靑丘에 떨치고 仁教는 현토에 덮이였으며~]’라고 쓰고 있다. 북산은 북방을 의미하고 남해는 남방, 청구는 『山海經』 권9 海外東經條 처음 등장하는 지명으로 동방을 가리킨다.

四海는 孔子 이전에 만들어진 유교 경전인 爾雅에 처음 보인다. 이야는 13경의 하나로 문자의 뜻을 고증하고 설명하는 사전적인 성격을 지닌 책이다. 이에 “九夷, 八狄, 七戎, 六蠻, 謂之四海”라 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의 모든 오랑캐들을 사해라고 인식하고 있다. 광개토태왕의 능비문에 보이는 사해도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배여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로 보아 비문의 ‘威武振被四海’는 고구려가 이미 중국의 고전을 습득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내재화 한 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四海는 사방의식 속에서 나온 표현이며, 그 중심은 고구려임을 당연시하는 선언적 의미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고구려인의 천하관인 것이다. 비문의 다른 곳과 기타 다른 자료들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다. 시조는 북부여에서 나셨는데, 天帝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414년, 광비 1-1-1~25]’, ‘河伯의 손자이며 日月의 아들인 추모성왕이 북부여에서 태어나셨으며, 천하 사방은 이 나라 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5세기 전반, 모두루묘지]’, 435년 북위 사신 李傲의 견문기[위서 고구려전], ‘『삼국사기』 동명왕 주몽설화’ 등이다.

청명본	金子本	북경대C본	북경대D본
			

〈그림 3〉 광개토태왕릉비문 초기 원석 탁본에 보이는 ‘四海’

2. 1면 9행 11~14자 ‘來渡海破’의 검토

1면 9행의 11~14자인 ‘來渡海破’는 이른바 辛卯年條 기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 신묘년조 기사란 비문 1면의 제8행 34자부터 9행 24자까지를 말한다(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破百殘□□新羅以爲臣民). 이 기사는 비문 1775자 가운데 32자에 불과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당시 동북아 각국의 역사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비문 연구 가운데 가장 주목받았던 곳이다. 신묘년조 기사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글자는 1면 9번째 줄 13번째 글자이다. 이 글자에 대하여 기존에는 대개 ‘海’로 읽었다. 그러나 석회를 바르기 이전의 여러 탁본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보면 이 글자는 ‘海’로 읽기가 어렵다.¹⁹⁾

이제까지 1-9-13자에 대한 석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글자의 변인 ‘彡’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이다. 인정하는 견해는 ‘海’와 ‘溟’로 보았고, 변이 없다고 보는 설은 ‘困’ 혹은 ‘每’나 ‘冫’로 보았다. 석회 박락이 상당히 진행된 시기의 탁본인 주운대 탁본(1981년 탁출)에 의하면 이 글자는 해당위치에서 현저하게 왼쪽에 치우쳐있다는 것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²⁰⁾ 따라서 주 탁본에 의하는 한, 이 글자에 ‘彡’변이 있다고 가정하면 비문 상에 행간을 구분하기 위해 그은 종선 상에 위치하거나 그 보다 더 왼쪽, 즉 종선 밖으로 놓이게 됨으로 ‘彡’변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주운대 탁본 하나만으로 ‘彡’변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초기 원석탁본으로 인정되는 水谷本 등에서는 ‘彡’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운대 탁본에는 비문에 전혀 글자 흔적이 없는데도 탁본에는 도리어 명확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곳도 일부 있다. 또한 원석탁본에 의하는 한 1-3-27자는 ‘天’이다. 그런데 주 탁본에는 여전히 ‘困’이다. 이러한 점들은 주운대 탁본만으로는 ‘彡’변의 존재를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운대 탁본은 석회가 많이 박락된 이후의 탁본이긴 하나 여전히 석회가 잔존한 상태에서 탁출한 탁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발견된 혜정본 및 청명본, 금자본, 북경대 도서관 소장본²¹⁾ 등에서도 ‘彡’가 확인된다. 따라서 ‘困’자와 ‘每’자로 보기는 어렵다.

‘彡’변의 존재를 인정한 견해로서는 대세를 이루는 ‘海’字說과 ‘溟’字說이 있다. ‘溟’字說은 탁본에 의하면 대부분 ‘目’ 아래 부분에 ‘八’ 모양의 획이 확실히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원석탁본을 정밀히 관찰하면 이는 글자획이 아니라 비면이 깨져 파인 부분이 탁출된 것이다. 따라서 ‘溟’字說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1-9-13자가 海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동안 학계에 제출된 석독에 의하면 능비문 상에는 ‘海’로 석독되는 글자가 1-9-13자 외에 위에서 설명한 ‘四海’와 아래에서 설명할 3-8-31~32자에서의 ‘東海’이다. ‘四海’와 ‘東海’는 그 필획이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모두 ‘海’로 읽을 수 있다. 이 둘과 1-9-13자를 비교해 볼 때 1-9-13자는 ‘海’로 보기 어렵

19) 필자는 이를 전문으로 다룬 논고를 이미 발표한 적이 있다. 백승욱, 「廣開土太王陵碑文 辛卯年條에 대한 新解釋」 『東洋學』 第58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15. 본 발표문의 내용도 이에 근거한다.

20) 주운대 탁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 탁본이 갖는 결점 등에 관해서는 박진석, 『호태왕비와 고대 조일관계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3, 52~59쪽에 잘 정리 되어 있다.

21) 『晋高麗好太王碑 李龍精拓整紙本 五分第三』이란 潘祖蔭의 친필 題簽이 붙어있는 탁본(北京大學圖書館 拓片室- 3021326-3), 全 4쪽 원석탁본(林基中,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校 出版部, 1995, 357쪽). 徐建新的 北京大學 A본(徐建新, 「北京に現存する好太王碑原石拓本の調査と研究 - 北京大學所藏拓本を中心に -」, 『朝鮮文化研究』 第3号, 東京大學文學部朝鮮文化研究室, 東京, 1996, 32~33쪽. 이는 당시 北京 최고의 拓工으로 인정받던 李雲從이 拓出した 것을 潘祖蔭이 최초 소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탁본이다. 따라서 북경대학 A본은 潘祖蔭이 1890년 사망함으로써, 그 이전에 탁출된 것이 분명한 탁본이다. 이는 원석탁본임은 물론 탁본의 편년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북경대 A본으로 약칭한다.

다. 1-9-13자의 오른쪽 방을 살펴보면 가로 획이 海가 확실한 3-8-32자는 좁은 반면, 1-9-13자는 넓다. 위 부분의 필획 존재 여부를 떠나 1-9-13자는 海로 보기 어렵다.

1-9-13자를 혜정본, 청명본, 수곡본, 금자본, 부사년 갑본, 북경대 A~D본 등의 초기원석 탁본을 바탕으로 정밀히 비교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왼쪽의 변은 삼수변으로 볼 수 있다(모든 탁본).

둘째, 오른쪽 방은 가로로 긴 네모꼴이다(모든 탁본. 수곡본을 바탕으로 석독을 시도한 水谷悌二郎과 武田幸男은 이를 伏字로 처리했으나 수곡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口’의 오른쪽 위 가로획이 길게 존재하며, 끝부분에서 기억자 모양으로 꺾여 내려오는 획(‘ㄱ’)이 확실하다. 그리고 좌하 부분의 획(‘ㄴ’)도 보인다).

셋째, 오른쪽 방의 위쪽의 획 유무에 대해서는, 혜정본, 반조음본에서는 획으로 볼 수도 있는 선이 희미하게 있으나, 청명본과 금자본, 부사년 갑본으로 보아 획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부사년 갑본에서도 혜정본과 반조음본에서 보이는 선이 보이거나 이는 같은 글자 내의 필획이 확실한 부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획으로 보기 보다는 비석의 스크래치 부분이 탁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청명본에서 보면 필획이 아님이 더욱 확실하다.

넷째, 오른쪽 방의 안에는 정중앙의 약간 아래 부분에 가로획이 확인된다. 왼쪽 1/2 부분까지는 모든 탁본들에서 보이고, 금자본에서는 오른쪽 끝부분까지 확인 되지는 않지만, 혜정본과 청명본, 반조음본, 부사년 갑본, 북경대 B본 등에서는 중앙획을 인정할 수 있다.

다섯째, 오른쪽 방의 가운데 부분 세로획의 유무와 관련하여, 혜정본과 청명본, 북경대 A본(반조음본), 부사년 갑본 등 대부분의 탁본들에서 중앙 아래 부분은 필획으로서의 획이 확실히 확인된다. 윗부분의 획은 확실하지 않지만, 혜정본과 청명본, 북경대 A본(반조음본), 부사년 갑본으로 보아 필획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 보았을 때, 1-9-13자는 삼수변에 田가 합쳐진 글자인 ‘泐’으로 석독된다. 능비문 상 또 다른 곳에는 ‘泐’자가 보이지 않아 비교해 볼 수는 없다. 다만 1-8-30자가 田자여서 필획의 비교가 가능하다. 이 田자는 필획이 비교적 명확하다. 1-9-13자의 오른쪽 부분과 비교해 보면 유사함을 느낄 수 있다. 다만 ‘田’의 가운데 부분 ‘十’의 가로획이 1-9-13자에서는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이 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13자의 위치가 원비에 段差가 있는 곳에 위치함으로 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田’의 十부분 가로획의 오른쪽 부분과 세로획의 윗부분도 원비면의 문제로 인해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泐’은 ‘水勢가 廣大하다. 또는 그 모양’이라는 뜻이다. 우리 말 음은 ‘전’이다.

이 글자의 뜻은 ‘넓은 강’의 의미이다. 광개토태왕은 영락 6년 백제와의 전쟁에서 아리수를 건너 백제의 국성을 공격한다. ‘泐’은 漢江 즉 ‘阿利水’를 지칭한 다른 말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신묘년조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百殘(백제)과 新羅는 오래전부터 (우리 고구려의) 屬民이었다. 그래서 朝貢을 바쳐왔다. 그런데 倭가 辛卯年에 (우리 속민의 땅에 침범해)오므로, (왕이) 아리수를 건너 백제를 치고 新羅를 ??하여 臣民으로 삼았다.”

부사년 갑본	북경대 B본	북경대 D본
혜정본	금자본	청명본
혜정본 1-9-13자 상세	반조음(북경대 A)본	수곡본
혜정본 1-8-30자(田)		

〈그림 4〉 광개토태왕릉비문 초기 원석 탁본 신묘년조의 주요 부분

3. 3면 8행 31~32자 ‘東海賈’

능비문 속 또 하나의 海字는 이른바 수묘인연호 기사 속에 나온다.

‘守墓人烟戶 賣句余民 國烟二 看烟三 東海賈 國烟三 看烟五(3-8-16~39)’

광개토태왕은 생존 시 지시하기를 자신이 직접 정복한 韓穢 지역에서 220家を 차출하여 묘 관리를 하게 하였다. 다만 이들이 묘 관리에 대한 법칙을 잘 알지 못함으로 舊民 110家を 합해 모두 330가로 수묘하게 하였다. 그 중 국연은 30家이고, 간연은 300家이다. 그리고 구민은 14곳 신민은 36곳이다. 東海賈는 구민 14곳 중의 한 곳이다. 광개토태왕 이전 시기 고구려에 편입된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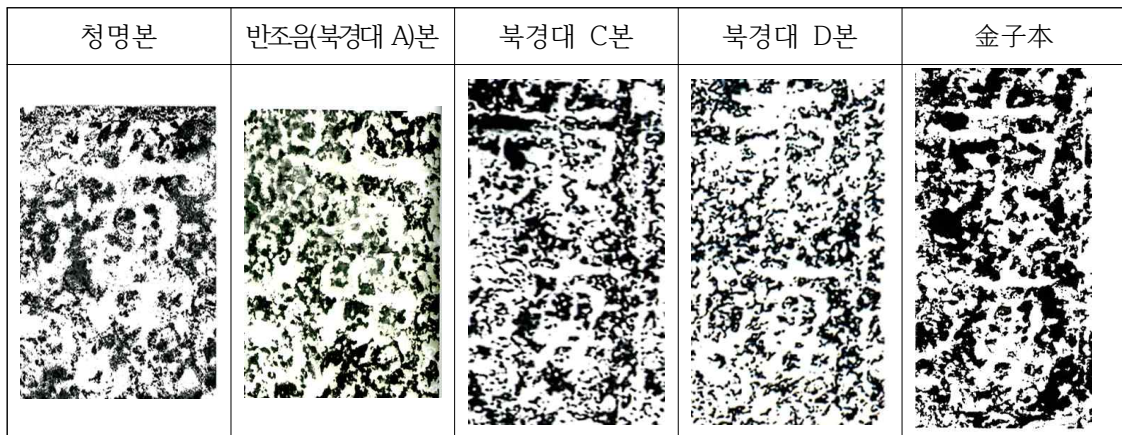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동해고는 어디인가가 궁금해진다. 東海는 『삼국사기』권14, 민중왕4년(47) 9월조에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보인다. “東海人 高朱利 獻鯨魚目 夜有光(동해 사람 고주리가 고래의 눈을 바쳤는데, 그 눈이 밤에는 광채가 났다.)” 그리고 같은 책 권15, 태조대왕 55년(108) 10월조에는 “東海谷守 獻朱豹尾 長九尺(동해곡의 태수가 붉은 표범을 바쳤는데, 꼬리의 길이가 9자나 되었다.)” 이는 같은 책 권17, 서천왕 19년(288) 4월조에는 “海谷太守 獻鯨魚目 夜有光(해곡 태수가 고래의 눈을 바쳤는데 밤에도 광채가 있었다)”라고 보인다. 이들 기사에서의 東海=東海谷=海谷은 모두 같은 곳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 왕도는 환도, 즉 국내성이었다. 동해는 이곳에서 동쪽 해안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東海賈에서의 賈의 의미는 무엇일까? 비문에는 수묘인 연호를 표기함에 있어서 그 차출지를 賣句余民, 敦城民, 平壤城民, 俳婁人, 三客賢韓, 巴奴城韓, 百殘南居韓 등과 같이 ○○韓, ○○民, ○○人으로 표기하는 곳이 있다. 동해고의 賈도 이에 대응되는 특정 성질을 가진 집단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賈는 한자 뜻 그대로라면 商賈, 즉 상인 집단을 의미한다. 동해고는 동해안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무대로 활동하던 상인 집단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說文』제 11편 下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鮪魚也 出葦邪頭國. 魴魚也 出葦邪頭國. 鱮魚也 皮有文 出樂浪東曬”. 鮪은 민어라는 설도 있으나 글자 그대로는 조기를 가리킨다. 葦邪頭國은 濊의 야두국으로 동해에 인접한 지역일 것이다. 魴는 큰 새우이다. 鱮는 동자개 웅자이긴 하나 민물고기인 동자개(빠가사리)는 아닌 듯 하다. 무늬가 있다고 하니 班魚皮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²²⁾ 낙랑군의 동이현에서 난다고 하니 동해안 지역이다. 동해안의 특산물들은 일찍부터 조공품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동해고는 옥저를 포함한 예족 집단 가운데, 동해안의 어로활동을 기반으로 집단적 상인활동을 한 주민들이 거주한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는 광개토태왕 이전 단계에 이미 이곳에 진출하여 이들을 통제 하에 두었다. 장수왕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차출하여, ‘國烟三 看烟五’로 편성 父王 묘를 수묘케 한 것이다.

22) 『삼국지』 권30 동이전, “樂浪檀弓 出其地 海出班魚皮 土地饒文豹 又出果下馬 漢桓時獻之 ”



〈그림 5〉 광개토태왕릉비문 초기 원석 탁본에 보이는 (동)해

IV. 맺음말

금석문 연구를 위해서는 釋讀이 일차적 작업이다. 석독을 위해서는 원비와 탁본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광개토태왕릉비의 경우는 상황이 좀 특수하다. 능비는 세월의 풍상과 火難 및 석회 도포와 보존처리의 미숙 등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을 잃은 채 존재하고 있다. 이에 가장 기준이 되는 일차자료는 석회 도포 전의 이른바 초기 원석탁본들이다. 그러나 이들 초기 원석 탁본들은 글자를 명확히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질의 탁본을 비롯한 탁본들 간의 상호 비교 검토를 통한 석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능비문 속의 海자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Ⅱ장에서는 탁본에 대한 설명으로 그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Ⅲ장에서는 비문 속에 보이는 海자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1면 5행 17~22자 ‘威武振被四海’ 속에 四海가 보인다. 이는 고구려가 이미 중국의 고전을 습득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내재화 한 후 사용한 것이다. 四海는 사방의식 속에서 나온 표현이며, 그 중심은 고구려임을 당연시하는 선언적 의미의 표현이다. 곧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그들의 천하관을 능비문을 통해 보여 준 것이다.

1면 9행 13자는 이른바 신묘년조 속의 핵심적인 글자이다. 그동안 이 글자는 ‘海’로 석독하거나 모르는 글자로 보아왔다. 그러나 여러 초기 원석 탁본들을 비교 검토한 바 ‘海’자로 읽기는 어려움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泔’자로 읽었다. 泔은 곧 비문 2면 3행 33~35자의 ‘阿利水’를 의미한다. 고구려가 한강을 거슬러 올라 가 당시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는 내용이다.

3면 8행 31~32자 ‘東海賈’는 동해안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무대로 활동하던 상인 집단으로 보았다. 이들은 이미 광개토태왕 즉위 이전부터 고구려 영속 하에 있었던 지역이었다. 장수왕은 東海賈에서 수묘인들을 차출하여 ‘國烟三, 看烟五’로 편성 한 후 묘역을 수묘케 한 것이다. 이 또한 고구려 천하관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도록 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廣開土大王陵碑 拓本圖錄(國內所藏)』, 1996.
 국립문화재연구소, 『廣開土大王陵碑 拓本-張明善 탁출』, 2019.
 국립중앙박물관, 『금석문자료①-삼국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자료 총서 10, 예맥출판사, 2010.
 동북아역사재단 편, 『혜정 소장본 廣開土太王碑 원석탁본』, 2014.
 林基中,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校 出版部, 1995.
 任世權·李宇泰 編著, 『韓國金石文集成(1)』, 韓國國學振興院, 2002.
 吉村武彦 외 3인, 『明治大學圖書館所藏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 八木書店(東京), 2019.
 武田幸男, 『廣開土王陵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東京), 1988.

〈논저〉

-한국어-

- 다케다 유키오, 「광개토왕비 연구의 제문제」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3.
 朴時亨,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백승옥, 「史料로서의 墨本을 통해서 본 광개토왕비 연구의 새 지평 -武田幸男 著, 『廣開土王陵墨本の研究』(2009)에 대한 서평」, 『지역과 역사』25, 부경역사연구소, 2009.
 백승옥, 「廣開土太王陵碑 拓本の 編年方法 -연구현황을 中心으로-」 『木簡과文字』제8호, 한국목간학회, 2011.
 백승옥, 「廣開土太王陵碑 拓本 惠靜本の 외형적 특징과 복원」 『혜정 소장본 廣開土太王碑 원석탁본』, 동북아역사재단, 2014.
 백승옥, 「廣開土太王陵碑文 辛卯年條에 대한 新解釋」 『東洋學』제5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백승옥,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광개토태왕릉비 탁본의 특징과 제작시기」 『탁본-광개토왕릉비에서 해인사 대종까지-』, 동아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2017.
 백승옥, 「廣開土太王陵碑 탁본 『惠靜本』의 탁본사적 위치-『水谷本』과의 비교 검토를 바탕으로-」 『목간과 문자』24, 2020.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廣開土太王陵碑 탁본의 특징과 제작시기」 『高句麗渤海研究』제67집, 고구려발해학회, 2020.
 손영종,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사회과학원, -도서출판 중심 편, 2001.
 이정빈, 「광개토왕릉비 탁본 연구방법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역사논총』49, 동북아역사재단, 2015.
 李亨求·朴魯姬, 『廣開土大王陵碑文의 新研究』, 동화출판공사, 1986.

-중국어-

- 高明士, 「傳館藏好太王碑原石拓本乙本完整的發見」 『廣開土太王과 東아시아 世界』, 제11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발표요지, 2005.
 耿黎, 「好太王碑拓本分類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
 王健群,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1984.

-일본어-

古瀬奈津子 編,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同成社(東京), 2013.

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説』, 岩波書店(東京), 1989.

武田幸男,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東京), 2009.

濱田耕策, 「故足立幸一氏寄贈の京都府立福知山高校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について」『日本の植民地支配下における朝鮮の研究』,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調査研究報告 NO.24, 1990.

水谷悌二郎, 「好太王碑考」『書品』100号, 1959; 『好太王碑考』, 開明書院(東京), 1977.

徐建新, 『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堂出版(東京), 2006.

徐建新, 「好太王碑拓本の編年方法とお茶の水女子大學本の制作年代」,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同成社(東京), 2013.

徐建新, 「東アジア學界の廣開土王碑研究史」, 『明治大學圖書館 所藏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 八木書店(東京), 2019.

辻本雅英 等, 「館藏好太王碑拓本二種」『ビブリア』第87号, 天理圖書館, 1986.

李進熙, 『好太王碑研究とその後』, 青丘文化社, 2003.

長正統, 「九州大學所藏好太王碑拓本の外的研究」『朝鮮學報』99.100輯, 1981.

早乙女雅博, 「東京大學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小拓紙からみた制作年代の考察-」『고구려연구』21, 2005.

早乙女雅博・橋本繁, 「お茶の水女子大學本の調査と小拓紙貼り 合わせから見た年代」『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同成社(東京), 2013.

佐伯有清, 『研究史 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東京), 1974.

横山昭一, 「東京都目黒區所藏拓本について」『廣開土王碑と古代日本』, 學生社(東京), 1993.

新羅國 執事省牒에 보이는 海民의 이동 실태와 渡海許可文書

정순일
고려대학교

- I. 執事省牒이 전하는 海民의 이동 양상
 - (1) 신라국 집사성첩의 몇 가지 논점
 - (2) ‘嶋嶼之人’의 渡海 樣相
- II. 海商의 이동과 渡海許可文書의 지참
 - (1) 상인의 활발한 왕래와 문서 지참
 - (2) 渡海許可文書의 형태와 내용
 - (3) 劃期로서의 호기 연간(宝龜年間)
- III. 生業集團의 은밀한 도항과 문서의 위조
 - (1) 生業集團의 밀항 실태
 - (2) 渡海許可文書 및 官印 偽造 橫行의 가능성

I. 執事省牒이 전하는 海民의 이동 양상

(1) 신라국 집사성첩의 몇 가지 논점

[집사성첩 사본 조사의 경위]

정순일, 『속일본후기』所収 신라국 집사성첩에 보이는 ‘嶋嶼之人’(『일본역사연구』37, 일본사학회, 2013)에서 최초로 교정 본문을 제시한 바 있다.

鈴木靖民·金子修一·石見清裕·浜田久美子編『訳註日本古代の外交文書』(八木書店, 2014年)의 36번 외교문서로서 신라국 집사성첩이 다루어진 바 있다.(집필자: 정순일)

이상의 두 가지는 모두 10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국서의 회(国書の会)”라는 외교문서 운독회 활동의 성과이며, 科学研究費補助金「8~10世紀東アジア外交文書の基礎的研究」(研究代表者: 金子修一, 研究課題番号: 23520875) 교부를 받아 행해진 공동연구 성과의 일환이기도 하다. 『訳註日本古代の外交文書』출판을 준비하면서 운독회는 아이치 대학(愛知大学) 히로세 노리오(廣瀬憲雄) 교수를 필두로 하는 寫本班을 조직, 운영하였는데 필자는 당시 사본반의 일원

으로서 신라국 집사성첩의 여러 사본을 직접 조사, 수집, 정리하였다.

이후 2020년 7월 무렵, 사본반 반장이었던 히로세 교수가 『『訳注日本古代の外交文書』本文文字異同一覧(完全版)』을 자체 제작하여, 일본 내의 주요 도서관에 배포하였다. 이 일람(완전판)은 『訳注日本古代の外交文書』(2014년)의 별책 부록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비매품에다가 70부 정도만 간행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요 소창처는 CiNiiBooks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²³⁾ 『訳注日本古代の外交文書』와 일람(완전판) 사이에 글자가 다른 부분은 아래 [교정 본문]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해둔다.

[교정 본문]

新羅国執事省牒日本国太政官

紀三津詐称朝聘兼有贄賚，及檢公牒佞偽非実者

牒. 得三津等状称, 奉本王命, 専来通好. 及開函覽牒, 但云, 修聘巨唐, 脱有使船, 漂着彼界, 則扶之送過, 無俾滯過者. 主司再發星使, 般²⁴⁾問丁寧, 口与牒乖, 虚実莫弁. 既非交隣之使, 必匪由衷之賂. 事無據実, 豈合虚受. 且太政官印, 篆跡分明. 小野篁船帆飛已遠, 未必重遣三津聘于唐国. 不知嶋嶼之人, 東西窺利, 偷学官印, 佞造公牒. 用備斥候之難, 自逞白水之遊. 然两国相通, 必無詭詐. 使非専対, 不足為憑. 所司再三請, 以政²⁵⁾刑章, 用阻姦類. 主司務存大体, 舍過責功. 恕小人荒迫之罪, 申大国寬弘之理. 方今時属大和, 海不揚波. 若求尋旧好, 彼此何妨. 況貞觀中, 高表仁到彼之後, 惟我是頼, 唇齒相須, 其来久矣. 事須牒太政官并牒蕃州, 量事支給過海程粮, 放還本国, 請処分者, 奉判准状, 牒太政官, 請垂詳悉者.

[해석문]

신라국 집사성이 일본국 태정관에 첩(牒)한다.

키노미쓰가 조정의 사자를 사칭하고 아울러 지신(贄賚)(=贈物)을 가지고 왔으나, 공첩을 조사하기에 이르니 거짓으로서 진짜 사자가 아님이 밝혀진 일.

첩한다. 【키노미쓰등의 장을 받아보니, “本왕의 명을 받들어 오로지 와서 통호한다.” 함을 열어 첩을 보기에 이르니, 단지 말하기를 “巨唐과 修聘하니 만약 使船이 그쪽 땅에 표착하면 즉시 이를 도와 送過하고, 지체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주시는 다시 星使를 보내어 般問을 정중히 하였지만, 구두 발언이 첩과 괴리해 있어 허실을 분별할 수 없었다. 이미 교린의 사절이 아니다. 반드시 성의 있는 증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이 진실되지 못하다. 어찌 거짓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편 태정관인은 篆跡이 분명하다. 오노노 타카무라(小野篁)의 배는 돛을 날려 이미 멀리 갔다. 반드시 거듭하여 미쓰를 보내어 唐国에 조빙할 필요는 없다. 嶋嶼의 사람들이 東西로 이익을 엿보고, 몰래 官印을 배우며 가짜로 공첩을 만들어 이로써 斥候의 어려움에 대비하면서 스스로 白水[郎]의 遊를 마음껏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양국이 서로 교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속임이 없어야 한다. 사절은 専対가 아니라서 믿고 의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所司가 재삼 청하기를, 형장을 바로잡아, 이로써 부정한 무리를 막아야 한다고

23) <https://ci.nii.ac.jp/ncid/BB15625750>

24) 일람(완전판)에서는 ‘設’로 해두었다. 각종 사본에서는 ‘般’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우세하지만 국사대계본에서 뜻에 따라 ‘設’로 고쳤다는 것이다. 일람(완전판) 46~47쪽. 그런데 일람(완전판) 47쪽에서 ‘般’은 ‘仔細查問或清點, 參見般量’이라고 보충 설명을 붙이고 있으며, ‘般量’은 ‘清查盤點’으로 ‘체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25) 일람(완전판)에서는 ‘正’으로 해두었다. 대부분의 사본에서 ‘政’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사대계본이 뜻에 따라 ‘正’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正’과 ‘政’은 서로 의미가 통하는 글자이다. 일람(완전판) 47쪽.

한다. 주사는 힘써 일의 대강을 알아, 허물을 버리고 공을 채근한다. 小人의 황박한 죄를 용서하고 大國의 관대한 도리를 펼치고자 한다. 바야흐로 지금, 때는 평화롭고 바다는 파도마저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旧好를 구하여 찾는다면 서로 무엇이 방해가 되겠는가. 하물며 貞觀年間(당의 연호. 627~649년)에 高表仁이 일본에 도착한 이후, 오직 우리에게만 이를 의지한다. 입술과 이처럼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 지 오래되었다. 일은 모름지기 태정관에 첩하고 아울러 청주에 첩하여, 일을 헤아려 바다를 건널 때 필요한 程糧을 지급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니, 처분을 청한다.”고 한다.】 判을 받들어 장에 준하여 태정관에 첩한다. 상세히 조사하여 문제를 밝혀주기를 청한다.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

:: 태정관인의 전적(篆跡)이 분명= 신라(집사성) 측에 태정관인의 전적을 판단할 수 있는 감정 능력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관인에 새겨진 전각(전서)의 진위를 판별해야 할 정도로 감정이 필요한 때가 잦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도서지인(嶋嶼之人)= 크고 작은 섬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종래에는 ‘해도인’과 유사한 표현으로 장보고 또는 그 관련 세력(집단)으로 이해해온 측면이 있으나, 집사성첩의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일본열도 측 도서지역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 백수지유(白水之遊)= ‘白水郎’의 ‘遊’를 줄인 말로 보인다. 즉 白水郎(아마)=해민의 이동 양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청주(강주)의 역할과 기능²⁶⁾

◎조와기(承和期) 일본의 對신라외교와 그 공간: 청주(靑州)와 강주(康州)

고대 일본의 대외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상황이며, 대 신라 교류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일본 측의 관문이었던 다자이후(大宰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밝혀진 반면, 신라의 경우 어느 지역이 대 일본 교통의 주된 창구였는지 충분히 논의된 바가 없다. 특히, 일본의 견신라사가 입항한 곳이나 신라의 대외 사절이 출항한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듯 보인다. 한편,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신라 측의 주된 대 일본외교의 공식 창구로서 김해나 울산 등을 상정해왔지만, 그것은 명확한 사료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조와기에 행해진 두 차례의 교섭 사례이다.

『続日本後紀』承和3年(836) 12월 丁酉(3일)条, 『続日本後紀』承和12年(845) 12월 戊寅(5일)条는 9세기 중엽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신라와 일본 간 공식 외교의 한 측면을 이야기해준다. 여기에서는 외교 공간으로서 ‘靑州’, ‘康州’라는 신라 측의 구체적인 지명이 확인되는데, 양자는 별도의 지역이 아니라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수차례에 걸쳐 지명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대 국가 신라에서는 이 지역의 명칭이 최종적으로 ‘강주’로 정착하였으며,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사료에 등장하는 경우에도 ‘강주’라는 지명으로 더욱 자주 확인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편의상 지명을 ‘강주’로 통일해서 부르거나 양자를 병기하기로 한다.)

◎‘첩(牒)’으로 보는 청주(강주)의 기능

강주(康州)(=청주 [靑州])라는 지명이 ‘첩식 문서’와 세트를 이루어 등장하는 『続日本後紀』

26) 鄭淳一, 「承和年間における対外交渉と新羅康州」, 『九世紀の来航新羅人と日本列島』, 勉誠出版, 2015 참조.

承和3年(836) 12월 丁酉(3일)条, 『続日本後紀』承和12年(845) 12월 戊寅(5일)条의 사례를 통해서 이 공간이 가지는 기능을 어느 정도 추정해볼 수 있다.

강주는 외국 사절이 도착했을 때, 방문 목적을 파악하고 그들이 지참한 외교문서를 접수하여 왕경으로 송부하였으며, 1차적인 영접 의례 등을 담당하였다. 나아가, 일본 사절의 체재 시에 침식을 제공해주는 등 제반 조치를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사절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에는 식량을 조달해주는 등 도항 수속을 맡았고 표류민 송환 기능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라의 강주가 일본의 태정관(太政官)과 동등한 레벨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지역이 신라 국내에서 지나는 위상을 잘 보여준다. 즉, 집사성이 신라의 최고 관부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사성과 강주가 단순히 종속관계,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외교 교섭의 영역에서만은 강주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한다.

◎그 이외의 지역적 성격

외교적 기능 이외에도 신라 국내에서 강주(청주)가 맡고 있던 역할은 다수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국가 제사, 종교, 신앙과의 관련성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강주로부터 진귀한 동물의 진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것은 앞서 말한 국가 제사 시 행해지는 동물의 희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최근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문자자료를 보면, 이 지역에 불교 신앙 결사(佛教信仰結社)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이외에 군사 업무와의 깊은 연관성이 확인되며, 소성왕(昭聖王) 원년(700) 3월, 청주(菁州=강주) 거로현(居老縣)을 학생녹읍(學生祿邑)으로 삼았다는 기사로부터 국가 토지 지배와의 깊은 상관성도 엿보인다.

다만, 이상과 같은 기능과 성격이 강주(청주) 지역의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으며, 신라 지방 제도의 전체상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두고자 한다.

◎동아시아 해역의 지역 간 교류와 신라의 대외관문 기능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동아시아라는 지역 범위에서 강주(청주)가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원종대사 비문(慧目山高達禪院國師元宗大師之碑)」, 『삼국사기(三國史記)」, 『쇼유키(小右記)』 등 여러 사료에서는 강주(청주)가 출항지 또는 입항지로서 등장한다. 특히, 원종대사 비문에서는 원종대사(元宗大師) 찬유(璨幽: 生沒年代 869~958년)가 입당 수행 후, 신라로 돌아왔을 때 도착한 항구가 ‘강주 덕안포(康州德安浦)’였다는 사실도 전해진다. 10세기 초, 신라의 지방 세력인 왕봉규(王逢規)는 ‘천주절도사(泉州節度使)’로서 후당(後唐)과 외교를 맺는데, 여기 보이는 ‘천주’는 강주 강양군(康州江陽郡)의 의상현(宜桑縣)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강주의 왕봉규가 당을 상대로 독자적인 외교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해 지역이 대당 외교에 있어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쇼유키(小右記)』에는 고려 강주인 미근달(未斤達)이 일본의 치쿠젠 국(筑前国) 시마군(志摩郡)에 표착한 경위가 전해지고 있는데, 미근달의 행적은 당시 존재하고 있던 해상 루트의 일단을 보여준다. 즉, 미근달이 신라(고려)의 ‘강주’, 당(송)의 ‘명주(明州)’, 일본의 ‘치쿠젠(筑前)’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삼국의 항만 도시를 왕래하였다는 사실은 중국의 명주 및 일본의 치쿠젠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강주가 대외 교통로로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4~6세기 무렵 일본열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가야 제국의 위치라든지, 중세 왜국

의 상륙 경로, 그리고 근세 토요토미(豊臣)정권에 의한 조선 침공 루트를 아울러 고려해본다면 강주 지역이 가지는 대외 현관문으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강주 덕안포의 비정

원종대사 비문에 등장하는 ‘강주 덕안포(康州德安浦)’라는 문자열(文字列)은 강주 지역이 관찰하고 있던 구체적인 항구의 명칭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정보라고 생각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니혼쇼키(日本書紀)』, 『고려사(高麗史)』의 관련 사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강주 덕안포’는 ①문무왕(文武王) 3년(663) 시점에 백제와 신라의 경계였던 지역, ②당시 백제 영역의 남부, ③적어도 정명(貞明)7년(921) 무렵까지는 강주 관할이었던 지역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 즉 ‘돌산(突山)’ 내지는 그 주변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광무(光武) 3년(1899) 성립의 『전라남도여수군읍지(全羅南道麗水郡邑誌)』 방리조(坊里條)에도 ‘덕안면(德安面)’이라는 지명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덕안면’이 ‘돌산’과 접해 있는 현재의 여수시 소라면(麗水市 召羅面)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강주 덕안포’는 현재의 전라남도 여수반도에 위치하는 항구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嶋嶼之人’의 渡海 樣相

[집사성첩에서 주목되는 구절]

“嶋嶼의 사람들이 東西로 이익을 엿보고, 몰래 官印을 배우며 가짜로 공첩을 만들어 이로서 斥候의 어려움에 대비하면서 스스로 白水[郎]의 遊를 마음껏 하는지도 모르겠다.”

[嶋嶼之인의 公牒 휴행]

여기서 ‘공첩’이 언급되고 있다. 도서의 사람들(嶋嶼之人)이 ‘공첩’을 위조하여 신라국의 관찰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 실태를 문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견신라사 ‘키노미쓰(紀三津)’ 또한 그와 같은 부류-‘도서지인’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 거 아니냐며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다. 몰래 가짜 관인과 공첩을 만드는 ‘도서의 사람들(嶋嶼之人)’이 신라 연해에서 문제시되고 있기에, 거꾸로 신뢰할 만한 ‘공첩’의 지참이 요구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신라국 집사성첩이 일본국 태정관으로 발신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도서지인’이 일본국(태정관) 관할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인식 때문이며, 이는 다시 말해 ‘도서지인’ 문제란 일본에서 신라로 은밀하게 도항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그로 인한 질서의 교란, 통제의 난항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II. 海商의 이동과 渡海許可文書의 지참

(1) 상인의 활발한 왕래와 문서 지참

[왕환하는 국제 상인]

일본의 사료에서 ‘신라상인(新羅商人)’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814년 기록이다. 814년, ‘신라

상인' 31인이 나가토국(長門國) 토요우라군(豊浦郡)에 표착하였다는 기사로, 종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내항자(도항자)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단, 『속일본기』 신호경운2년(768) 10월 갑자(24일)조에 “좌우대신 이하 높은 자들에게 신라의 교관물(交關物)을 사기 위해 다자이후가 보관하고 있던 양질의 면(綿)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 무렵부터 ‘신라상인’이 일본을 왕래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성시說/ ‘768년의 교역’=9세기 교역 형태[다자이후 교역 유형]의 기원)

『類聚三代格』卷18·天長8年(831)9月7日官符는 일종의 ‘신라상인’에 관한 법령이라 할 수 있다. 이 관부는 ‘신라상인’이 내항하였을 경우, 배 안의 화물을 조사하여 ‘적용지물’의 구입과 그 京進을 행하게 하고, 그 이외는 부관 검찰 아래에 적정 가격으로 교역하도록 다자이후에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본의 정책(법령)에 의해 처음으로 ‘신라상인’의 존재가 인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된다. 이전까지는 ‘신라상인’의 내항을 의식한 수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나 ‘신라상인’의 활동을 교역 관리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형태로 일본열도 연해 지역의 인민과 ‘신라상인’ 사이의 교역을 양성화한 셈이다.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상황인 바에야 이국 상인의 존재와 그 일본 왕래를 법적으로 용인함으로써 일본의 왕권/조정은 교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선점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신라상인의 왕래는 그 이후로 지속되었다. 814년 기록을 시작으로 당-일 간을 오고 가는 ‘신라상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확인된다. 835년 무렵에는, ‘신라상인’의 왕래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이키(壹岐)로부터의 상황 보고가 중앙에 전달되고 있는데 ‘來窺不絶’, ‘往來不絶’이라는 언설이 등장하는 점에 유의된다.

840년, 변외신라신(藩外新羅臣) 장보고 사절이 일본을 방문하여 말 안장 등 방물을 헌상하였으며, 841년에는 장보고가 보낸 ‘회역사’ 이충, 양원의 다자이후 방문도 보인다. 이 속에서 혼야노 미야타마로와 장보고의 ‘唐國貨物’ 조달을 둘러싼 내밀한 거래 양상까지 수면 위로 부상한다. 사료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즉 중앙 권력에 파악되지 않는 국제 교역이 적지 않게 존재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이외에도 840년대 이후 860년대까지 도중, 이소정, 이인덕, 김진, 김자백, 흠량휘, 왕초, 김문습 등의 ‘신라인’이 ‘상인’으로서 일본을 왕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은 주로 동중국해를 통하여 당-일 간을 왕래하였고, 때로는 ‘당인’을 표방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마도 신라상인과 당 상인과의 협업이 남긴 흔적으로 추정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869년의 ‘신라해적’ 기록도 재당 신라상인의 활발한,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일본 왕래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상인들의 문서 지참]

흥미로운 점은 이들 상인이 해상을 왕래할 때 특정한 문서를 지참하였다는 사실이다.

먼저, 신라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続日本後紀』 承和9年(842)正月 乙巳(10日)조에 따르면 신라의 염장은, 이소정을 일본으로 보내어 장보고의 사망과 잔존 세력의 반란, 진압 소식을 전하게 함과 동시에 일본으로의 도망이 우려되는 적도(賊徒)=장보고 세력의 포박과, 회역사 이충 등이 일본에 가지고 간 화물의 반각 등을 요구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이소정이 일본 측에 ‘문부(文符)’의 유무를 기준으로 장보고 세력의 포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라에서 일본으로 도항하는 상인들은 ‘문부’와 같은 공식문서를 지참하도록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소정 스스로도 ‘염장이 치쿠젠국 에올리는 첩장(牒狀)’이라는 문서를 지참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신분증명서’, ‘도항허가서’

성격의 문서를 지니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의 교섭이 불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일본에서 당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이다. 仁壽3年(853) 2월 11일, 다자이후(大宰府)가 엔친(円珍)의 신청에 의해 대당상인(大唐商人, '新羅商人'으로도 등장) 왕초(王超) 등의 귀국선에 편승하여 입당할 것을 허락하는 취지가 담긴 '공험'을 발행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東京国立博物館所蔵大宰府公驗, 『平安遺文』102·103) 일본 승려가 도해할 때-상인의 배에 편승하여 당으로 향할 때- 공적 기관으로부터 문서의 발행을 요청한 것이다. 이때 다자이후가 발행한 '공험'에는 '신분증명서적인 내용', '인원 리스트', '소지품(박래품) 리스트'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에서는 당대(唐代) 여권(패스포트)에 상당하는 공문서의 명칭이 '공험公驗'이라 되어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공험'은 신분증명서, 도항증명서(허가서)뿐만 아니라 여러 공문서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던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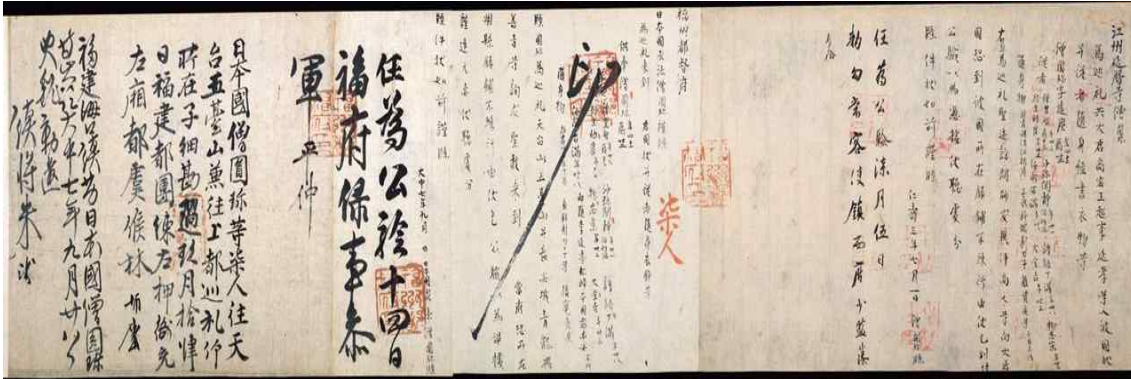
한편, 당대에 선박 화물의 점검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당국사보(唐国史補)』(하)에 '市舶使籍其名物, 納舶脚, 禁珍異'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확실하다. 이때, 승선자에 대한 체크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 『신당서新唐書』권48·백관지·홍려시(鴻臚寺)조에는 '凡客還, 鴻臚籍依齋賜物多少以降主客, 給過所'라는 규정이 보이는데, 귀국하는 '번객'(蕃客=使節·商人 양쪽 모두 가능성이 있음)에게 부여된 '과소過所'가 여권에 상당하는 문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일본에서 신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続日本後紀』承和3年(836) 12月丁酉(3日)条에는 일본국 태정관에 보내는 신라국 집사성첩(新羅国執事省牒)이 전사되어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 집사성첩이 신라의 해상세력 장보고를 의식한 내용이라 해석하고 있으나, 당해 신라성첩에 보이는 '嶋嶼之人'은 신라 장보고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열도 도서부에 거주하면서 한반도 신라로 도항을 시도하는 집단 내지 세력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일본 측으로부터 신라로 도항하는 사람들을 상정한 내용이다.

“도서의 사람들이 동서로 이익을 엿보고 몰래 관인(만드는 법)을 배워, 거짓으로 공첩을 만든다. 이로써 척후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마음대로 백수랑이 떠돌아 다니듯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는 신라 측의 척후(해상경비)를 피하기 위해 '공첩'을 위조하여 스스로의 도해 행위가 공식적인 허가 아래 이루어졌다고 거짓으로 꾸미려 했던 생업집단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당연하게도 그 배경에는 정규의 '공첩'을 휴대하여 교역 활동을 행하는 사람들(상인도 포함하여)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공첩'이라는 문서는 도항 허가서(신분증명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례로부터 해상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거기에는 상대국에 요구하는 내용, 승선자 리스트, 소지품 리스트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음)을 소지하고 있었던 실태를 엿볼 수 있다.

(2) 渡海許可文書の 형태와 내용



紙本墨書/ 33.3×133.9

이것은 이른바 엔친 관계 문서(円珍関係文書) 가운데 일부로 엔친 복주 공험(円珍福州公驗, 1卷)이라고 불리는 권자본이다. 헤이안 시대인 仁寿3年(853), 중국 唐 大中7年(853)의 것으로 현재 東京国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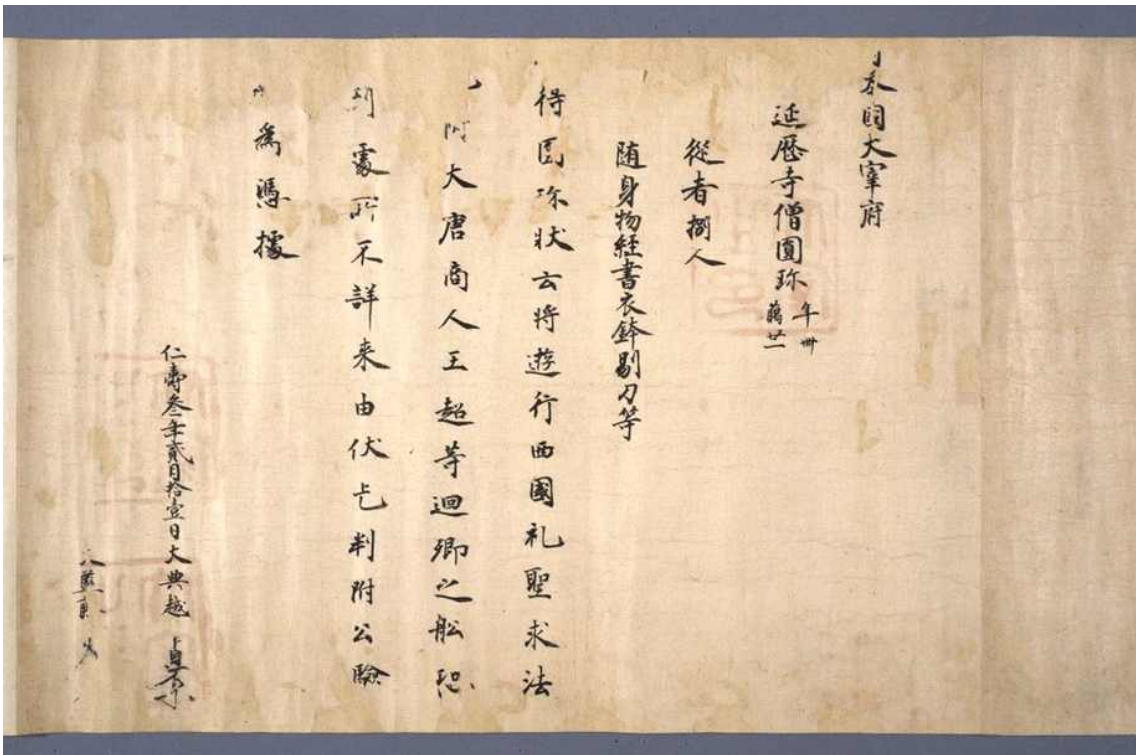
가장 우측의 문서는 仁寿3年(당 大中7年) 엔친이 복주에 도착하여, 거기서 태주(台州)로 갈 때 발급된 증명서이다. 그 다음 문서들은, 엔친 일행 7명이 천태산, 오대산 등을 순례하는 허가를 요청한 데 대해서 복주녹사참군평중(福州錄事參軍平仲)이 발급한 것으로, '복주도독부(福州都督府)'의 朱印이 네 군데 찍혀 있다. 그 뒤에는 복건 지역 관리가 발급한 통행 허가서 및 통과 증명이 붙어 있다.

이 권자본을 통해서 엔친이 일본을 떠나 당으로 이동할 때 도해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또 당에 도착한 후 당 국내를 이동할 때 통행 허가를 어떤 식으로 취득하였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1. 엔친(円珍)이 대재부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다자이후가 1에 날인, 대재소감(大宰小監)이 “任為公驗~”를 추기하여 허가증으로서 엔친에게 돌려준다.
3. 복주에 상륙한 엔친, 당 국내의 이동 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2에 이어 붙인 후 복주에 제출한다.
4. 복주가 2와 3에 간인을 찍고, 3에 날인한 다음 '印'에 押書(사인)한다. 그 후 복주녹사(福州錄事)가 “任為公驗~”을 추기한다.

이로부터 일종의 여권(패스포트)로서 활용된 <다자이후 공험>의 존재가 파악되는 셈인데, 여기서는 당풍(중국식)의 인명 및 지명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문서는 당에서 통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27) 여기 등장하는 공험, 과소에 대한 선구적 연구로는 内藤湖南, 「三井寺所蔵の唐過所に就て」, 『桑原博士選曆記念東洋史論叢』, 1931年; 駒井義明, 「公驗と過所」, 『東洋學報』40-2, 1957年 등을 들 수 있다. 당 및 일본의 통행허가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荒川正晴, 「唐の州縣百姓と過所の發給: 唐代過所・公驗文書筋記」, 『史觀』137, 1997年; 松原弘宣, 「関の情報管理機能と過所」, 『日本古代の交通と情報伝達』, 汲古書院, 2009年; 佐藤ももこ, 「唐代の通行証に関する一考察: 「行牒」と「往還牒」を中心に」, 『史泉』120, 2014年 등이 참고된다.



紙本墨書 / 27.8×39.3

이 사례는 이른바 엔친 관계 문서(円珍關係文書) 가운데 일부로 전해지는 엔친 다자이후 공험(円珍大宰府公驗) 1卷子이다. 헤이안 시대인 仁壽3年(853)의 것으로 현재 東京国立博物館이 소장하고 있다.

엔친이 仁壽3年(853) 입당 시에 다자이후에서 발급 받은 공험(도항증명서)으로 '大宰府印'이 세 군데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당 상인 왕초(王超) 등이 돌아가는 배에 편승하여 도해했다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紙本墨書 / 30.3×336.3 / 大中7年(853)

엔친 관계 문서(円珍關係文書) 가운데에는 위와 같이 당 국내에서 사용된 통행허가증도 보인다.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엔친 태주 온주 공험(円珍台州温州公驗)이다. 이는 복주(福州)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엔친이 온주와 태주를 통과할 때 사용했던 문서를 하나의 두루마리에 모은 것으로 보인다. 엔친 복주 공험과 함께 당시의 일본-중국(당) 교류 양상과 중국 국내에서의 이동 실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 할 수 있다.

『平安遺文』109번 문서로 전하는 엔라쿠지 승 엔친 첩(延曆寺僧圓珍牒)을 통해서도 해당 시기의 통행허가증의 형식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참고가 된다.

『平安遺文』109 延曆寺僧圓珍牒

台州 臨海縣

日本國求法僧〈圓珍〉謹牒

爲巡禮來到唐國狀并從者隨身衣鉢等

內供奉僧圓珍〈年四十、膈廿一、〉

從者僧豐智〈年卅三、膈一十三、〉沙彌閑靜〈年卅一、俗姓海、〉譯語丁滿〈年卅

「即」 八、〉經生的良〈年卅五、〉物忠宗〈年卅二、〉大全吉〈年廿三、〉〈○以下脱アラン。〉

隨身物〈經書并新求得計七百卷、衣鉢剔刀子等、旅竈壹具、〉

牒、〈圓珍〉爲巡禮天台山・五臺山、并長安城青龍・興善寺等、

詢求聖教、來到當縣、恐所在州縣鎮鋪、不練行由、伏乞公

驗、以爲憑據、謹連元赤、伏聽處分、

牒、件狀如前、謹牒、

大中七年十二月日 日本國求法僧圓珍牒

「任執此爲憑據、六日令幾」 〈○「臨海縣印」三アリ。〉

이 문서는 태주 임해현을 통과할 때 사용된 문서로, 일본국 구법승 엔친이 순례를 위해 당에 도착하였다는 장과 종자, 수신물(衣鉢)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내공봉승 엔친의 연령이 40세이고, 납(膈) 즉, 출가 후 햇수는 21년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종자 승려 예지의 나이는 33세, 납 13년, 사미 한정의 나이는 31세, 속성은 해(海)이다. 역어(통역) 정만의 나이는 40세였고, 경생적량의 나이는 35세, 물충종의 나이는 32세, 대전길의 나이는 23세였던 것 같다. 수신물에는 경서(경전) 및 새롭게 求得한 700권, 의발, 척도자(剔刀子, 작은 칼)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조(旅竈) 1구²⁸⁾도 있었다. 이어서, 엔친 일행이 순례할 경유지도 기재되어 있다. 천태산, 오대산, 장안성 청룡사, 흥선사 등이 그것이다.

여행의 구성원, 신분, 나이, 소지품 리스트, 방문 목적, 방문 지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통행허가증의 존재로부터 다자이후 공험 등 도해허가증(도해허가문서)도 제반 사항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래야만 본국 출항 및 도착국 입항이 가능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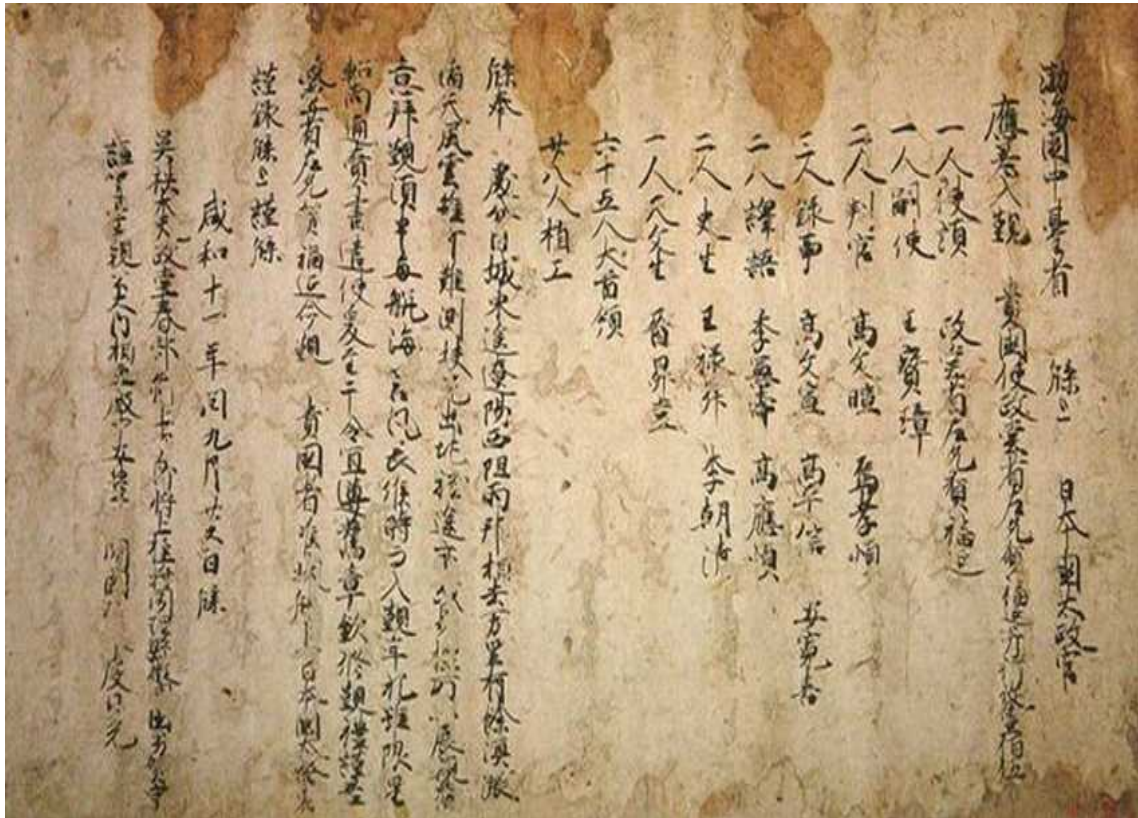
다소 후대의 자료이긴 하지만, 중세 도첩(度牒)으로부터 고대의 실태를 일정 정도 알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도첩(度牒)이란, 국가가 승려의 출가 득도를 인정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 4통의 특징적인 도첩이 전래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산사시 도첩(友山士僊 度牒)²⁹⁾이 주목된다. 이는 正和2(1313년) 4월 8일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식, 크기, 종이 재질(黃麻紙), <태정관인>의 위조, 관직명 및 지명의 중국풍 표기, 가공의 인명 표기 등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논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도해(중국으로의 도향)를 염두에 둔 위조 문서임에 틀림없다. 『制度通』卷5 僧尼度牒에 의하면, 에도시대의 학자 이토 토가이(伊藤東涯)도 “이것은 入宋을 위해 만든 것이다”라고 해석했을 정도이다. 우산사시(友山士僊)는 교토 도후쿠지(東福寺)의 선승으로 1328~1345년 입원(入元) 경력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문제의 위조 도첩이 작성, 유포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열도 사회에서 중국으로 도향하고자 하는 개인 및 집단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³⁰⁾

28) 취사 도구의 일종으로 추정됨.

29) 우산사시 도첩(友山士僊 度牒) 写, 正和2 (1313년4월8일)/ 1軸 ; 63cm/ 荻野研究室収集文書/ 37.6×47.7cm(外寸109.0×62.5cm)/ 外・箱題:正和二年度牒/ 正和2年4月8日/ 軸装/ 印記: 太政官印 / 印記: 根岸武香珍藏/ 根岸武香 旧蔵/ 현재 早稻田大学図書館 소장.

30) 榎本涉, 「中国史料に見える中世日本の度牒」, 『禅学研究』82, 2004년 참조.

앞에서 살펴본 853년 엔친 북주 공험(円珍福州公驗)에서도 일본 엔라쿠지의 소재지 오우미(近江)가 강주(江州) 등과 같이 중국풍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는데, 그것은 9세기 당시에 이미 일본의 지명과 인명이 중국식으로 표기되는 양상이 일반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해역을 왕래하는 다수의 상인과 승려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시대상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³¹⁾



長29cm、幅48.8cm / 楷書

마지막으로 사절단이 지참하는 외교문서 또한 도해 허가 문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위의 이미지는 옛 壬生家文書의 일부로 전해진 <발해국 중대성첩(안)>으로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³²⁾ 841년 발해국 중대성에서 일본국 태정관으로 보낸 외교문서의 필사본인 셈이다. 발해와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문서의 전반부는 아래와 같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31) 이외에도 『入唐求法巡礼行記』에서 엔닌(円仁)이 수급한 過所, 公驗이 전해지고 있으며, 돈황 막고굴 가운데 제122굴 앞에서 과소의 필사가 발견된 바 있다. 이는 불과 7행의 단편이기는 하지만 천보(天寶)7년(748년)의 기년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1973년에는 투르판 아스타나 석굴 가운데 509호 묘에서 開元20年(732년) 소그드 상인 石染典 등 알행이 사용한 과소 실물이 발견되었다. 당대에는 과소와 유사한 것으로 공험公驗이 있으며, 송대 후반에는 공빙(公憑), 인거(引摠)라 불리는 문서가 존재하였다. 일본에서는 공식령, 관시령 등에 규정이 보인다. 관민이 관소를 통과할 때에는 소속하는 관사, 본관지가 있는 국사, 군사에 대해 과소의 청구를 행하였고, 왕복하는 경우에는 도중에 있는 국사에게 왕로의 과소를 보여주고 청구하였다. 관소(세키)의 역인(관사關司)은 통행자에게 과소를 제시받아,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松原弘宣, 「関の情報管理機能と過所」, 『日本古代の交通と情報伝達』, 汲古書院, 2009년 등 참조)

32) 宮内庁書陵部所蔵壬生家文書古往来消息雜所収渤海國中台省牒写.

발해국 중대성(中臺省)이 일본국 태정관(太政官)에牒을 올립니다.
 貴國에 가서 알현할 사신 政堂省 左允 賀福延과 그 일행 105인을 마땅히 파견합니다.
 使頭(大使) 1인, 政堂省 左允 賀福延
 嗣使(副使) 1인, 王寶璋
 判官 2인, 高文暄, 烏孝愼
 錄事 3인, 高文宣, 高平信, 安寬喜
 譯語2인, 李憲壽, 高應順
 史生 2인, 王祿昇, 李朝淸
 天文生 1인, 晉昇堂
 大首領 65인
 梢工 28인 (하략)....

여기에는 발해 사신단의 구성, 즉 직책, 인명, 인원 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즉 중대성첩이 승선 인원 리스트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사례는 외교문서 그 자체도 도항 증명서, 신분 증명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교관계에서는 표, 계, 첩 등 외교문서의 서식(형식)도 중시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서식(형식)이 어떻든 간에 기재 내용에 해당 문서를 지참하는 사신단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정보와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사신단을 받아들이는, 즉 입국을 허가해야 하는 쪽에서는 조금 더 쉽게 입국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거꾸로 직책명, 인명, 인원 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외교문서의 지참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도해 허가 취득으로 인정되고 있었을 수 있다.

(3) 劃期로서의 호키 연간(宝龜年間)

동아시아 해역에서 교역 활동에 종사하는 상인들 또는 성인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 생업을 위해 바다를 왕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해외 도항을 보장해줄 수 있는 문서 지참에 힘을 쏟기 시작하게 되었다.³³⁾

그런데 그와 같은 문서의 지참이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호키 연간(770~781년)이었다. 이때부터 도항자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대한 입국 관리의 철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입국 관리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신빙할 수 있는 ‘문서의 지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지막 신라사신’ 김난손 등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본국 신라로 귀국할 때 앞으로 내향하는 사신은 반드시 문서, 그 가운데서도 ‘표(表)’라는 형식의 문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그와 동시에 일본의 관문에 해당하는 다자이후 및 쓰시마에도 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사신의 입국 자체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일본으로의 입항자, 그 중에서도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 수상한 사람 등이 증가하자 입국 자격 심사를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 지참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입국 관리의 메커니즘이 바로 ‘긴 9세기’의 상한에 해당하는 호키 연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환언하면, 호키 연간의 상황은 이국 상인의 빈번한 입항, 그리고 그에 대한 일본 측의 문서(=신분증명서, 도해허가증의 성격) 지참 요구라는 새로운 국면의 기점이 된다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³⁴⁾

33) 정순일, 「고대 동아시아 해역 세계의 교류」, 『동아시아사 입문』, 동북아역사재단, 2020년, 245쪽.

34) 정순일, 「고대 동아시아 해역 세계의 교류」, 『동아시아사 입문』, 동북아역사재단, 2020년, 247~248

Ⅲ. 生業集團의 은밀한 도항과 문서의 위조

(1) 生業集團의 밀항 실태

지금까지는 800년대라는 시기에 동아시아 해역을 왕래하는 해민이 존재했고, 이 해민의 이동을 각국의 정부, 각 왕권이 강력하게, 또 엄중하게 통제, 제어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했다. 그와 같은 이동의 제어가 도해 허가 문서 지참의 요구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국제 이동, 해상 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생업을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승려의 경우라면 구법순례 등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바다라는 경계를 넘어 이국으로 향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출입국 업무를 관장하는 지역의 관아와 잘 협의가 되어 도해허가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찌되었거나 이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 바다를 건너고, 해상을 왕래해야 했을 것이다.

인민의 출입항 시 문서 지참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도해허가문서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란 과연 무엇이였을까? 다음의 몇 가지 사례에서 그 실태를 엿볼 수 있다.

먼저, 845년 12월 다자이후의 보고를 통해 알려진, 일본인들의 도해 실태이다. 『続日本後紀』承和12年(845) 12月 戊寅(5日)条³⁵⁾에 따르면, 일본인 50여 명이 신라 연해에 표류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이 신라인에 의해 본국 일본으로 압송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 일본인을 데리고 온 신라인이 강주첩(康州牒) 2통을 지참하였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 이글 冒頭에서 검토한 집사성첩에서도 신라-일본 사이의 도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주(강주)가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소개되어 있는 생업집단의 동향에 대해서이다. 『入唐求法巡禮行記』大中元年(847) 9月 6日条³⁶⁾에 의하면, 신라의 무주 남쪽 黃茅嶋 泥浦에 배를 정박하였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丘草嶋라고도 부른다는 것이다. 4~5명이 산 위에 있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잡으려고 했더니 달아나서 잡지 못하였다고 한다. 여기는 신라국 제2 제상이 말을 풀어 기르는 곳인데 고이도를 따라 구초도에 이르기까지 산과 섬이 서로 이어져 있는 풍경이라는 것이다. 동남쪽으로 멀리 탐라도가 보이는 구초도에서는 신라 육지까지 좋은 바람이 있을 때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섬지기 한 사람과 무주 태수 집에서 매 기르는 사람 두 사람이 배로 올라와,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지금 당의 칙사가 와서 500여 명이 경성(금성)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지난 4월 중, 일본국 쓰시마 백성 6명이 고기잡이로 인해 이곳에 표류하여, 무주의 관리가 잡아갔다는 것이다. 일찍이 왕에게 상주하였으나 아직까지 칙(勅)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지금 무주에 감금되어 본국 일본으로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6명 가운데 1명은 병으로 죽었다고 전한다.

다음으로, 9세기 중후반(866년 무렵)의 사례도 있다.³⁷⁾ 쓰시마(對馬嶋)를 격취하기 위해 신

쪽.

35) 大宰府馳駢言, 新羅人齎康州牒二通, 押領本国漂蕩人五十余人來著.

36) 六日卯時, 到武州南界黃茅嶋泥浦泊船, 亦名丘草嶋, 有四五人在山上, 差人取之, 其人走藏, 取不得處, 是新羅國第三宰相放馬處, 從高移嶋, 到此丘草嶋, 山嶋相連, 向東南, 遙見耽羅嶋, 此丘草嶋, 去新羅陸地, 好風一日得到, 少時守嶋一人, 兼武州太守家捉鷹人二人, 來船上, 語話云, 國家安泰, 今有唐勅使, 上下五百余人在京城, 四月中, 日本國對馬百姓六人, 因釣魚, 漂到此處, 武州叟將去, 早聞奏訖, 至今勅未下, 其人今在武州囚禁, 待送達本國, 其六人中一人病死矣.

라로 건너간 군령층(郡領層)이 밀고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다. 히젠국(肥前国) 키이군(基肆郡) 의대령(擬大領) 야마노 하루나가(山春永) 등이 신라인 진빈장(珍賓長)과 함께 신라로 건너가 兵弩器械 제조기술을 배워서 모반을 꾀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 군령층이 肥前国의 여러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같은 해 866년 오키국 전 국사 오치노 사다아쓰가 신라와 통모하였다고 하며 같은 국 낭인 아즈미노 사키오에 의해 고발되었다는 기사도 주목된다. 물론 이 사건은 후에 무고였음이 판명되지만 한반도 쪽을 바라보고 있는 연해 지역의 전직 지방 장관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신라 측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지방 사회에서 상상되었다는 자체가 내밀한 교류 양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870년 다자이 다이니 후지와라노 겐리마로가 신라와 통모하였다고 규탄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서일본의 여러 지역을 끼고 있는 해역 세계의 불안정화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³⁸⁾ 통제 바깥에서 밀항을 일삼는 행위가 점차 확대되거나, 방관시되는 상황이었다.

끝으로 『日本三代実録』에 의하면 870년 2월, 쓰시마(対馬嶋)의 시모아가타군(下県郡) 사람 우라베노오토쿠소마로(卜部乙屎麻呂)가 가마우지(鷓鴣鳥)를 잡기 위해 신라 국경 지역까지 갔다가 잡혀서 구금되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이후 탈출에 성공하여 일본으로 돌아간 오토쿠소마로는 신라에서 목격한 일(군비확충 및 군사훈련 장면)을 보고하면서 그것이 쓰시마를 취하기 위함이라 설명하였다고 한다.³⁹⁾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사례이긴 하지만 신라로 건너간 일본인, 다시 말해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로 도향한 사람들의 실태를 엿볼 수 있었다.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들 모두가 은밀한 도향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일본 측으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도착국에 해당하는 신라로부터도 정식으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반, 통모를 위해 도향을 시도한 케이스도 있는가 하면, 고기잡이나 가마우지 포획 등 생업을 위해 바다를 건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신라 측이 허가받지 않은 일본인의 도향을 확인하게 되면 문서외교(‘강주첩’을 송부하는 장면) 내지는 문서행정(무주가 경성의 ‘勅’을 대기하는 장면)을 동원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신라로 은밀하게 도향한 일본인들이 대부분 쓰시마 사람이거나 그 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다. 뿐만 아니라 쓰시마를 공취하기 위해 신라로 건너간 군령층이 히젠국(肥前国)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인데, 이곳은 지리적으로도 크고 작은 섬이 밀집해 있는 다도해 지역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바로 쓰시마 및 肥前国의 연해, 도서 지역이야말로 신라국 집사성첩에보이는 ‘嶋嶼之人’(상인을 포함한 생업집단)의 주요 활동 거점이었던게 아닐까 추측된다.

(2) 渡海許可文書 및 官印 偽造 橫行의 가능성

은밀한 도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생업집단이 은밀히 도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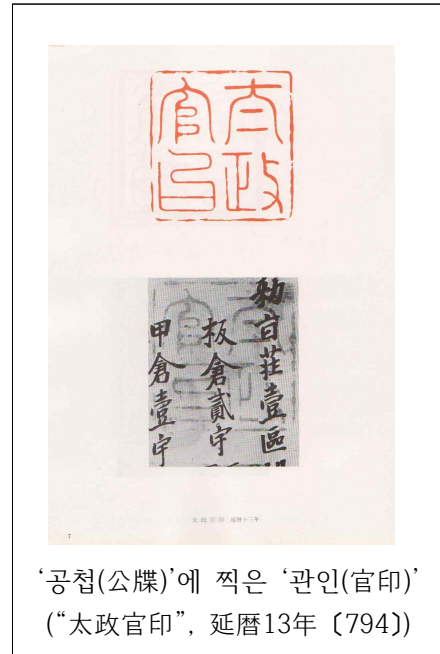
37) 『日本三代実録』 貞觀8年(866) 7月 15日条: 大宰府馳駢奏言, 肥前国基肆郡人川邊豊穂告, 同郡擬大領山春永語豊穂云, 与新羅人珍賓長, 共渡入新羅国, 教造兵弩器械之術. 還來將擊取对馬嶋. 藤津郡領葛津貞津, 高來郡擬大領大刀主, 彼杵郡人永岡藤津等, 是同謀者也. 仍副射手冊五人名簿進之.

38) 河内春人, 「古代東アジアの國際關係と交流」, 『日朝關係史』, 吉川弘文館, 2017年, 79~80쪽.

39) 『日本三代実録』 貞觀12年(870) 2月 12日条: 先是. 大宰府言, 对馬嶋下県郡人卜部乙屎麻呂, 為捕鷓鴣鳥, 向新羅境乙屎磨為新羅国所執, 囚禁土獄. 乙屎磨見彼国挽運材木, 構作大船, 擊鼓吹角, 簡士習兵. 乙屎磨窃問防援人曰, 為伐取对馬嶋也. 乙屎磨脱禁出獄, 纔得逃歸.

은 도해허가문서의 지참이 강력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생업집단은 그같은 정식의 도해허가문서를 확보하거나 취득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라국 집사성첩에 전하는 것처럼, 일본 측의 해민들은 관인의 위조를 일삼고, 위조한 관인을 사용하여 가짜 공첩, 거짓 공식문서를 만들어내는 사태가 초래된 게 아닐까 추찰되는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태정관인의 사례를 보면 전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아마도 신라 측은 일본국이 사용한 태정관인의 진위를 판별해낼 수 있는 감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정관인의 새겨진 형태를 보고서 진짜라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입국을 허가해주고, 만약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일본 측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출입국 관리를 해나갔던 게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해역을 왕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관인을 세밀하게 똑같이 파서 위조 문서를 만들어 도항하였을 것이다. 관인 및 공첩의 위조마저 힘든 경우라면 아예 도해허가문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바다를 건넌 수도 있다. 그랬다가 신라 측의 척후(해상경비)에게 단속, 체포된다면 ‘표류’, ‘표착’ 등 불의의 재난사고로 인해 도달하였다고 변명을 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신라로의 도항 사유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신라 측으로부터 ‘해적’ 취급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공첩(公牒)’에 찍은 ‘관인(官印)’
 (“太政官印”, 延曆13年〔794〕)

관인을 가짜로 만들고, 도해허가문서(공첩)를 위조하는 사례는 후대에 훨씬 빈번하게 확인된다. 특히, 중세에는 통교와 생업을 위해 외교문서 자체를 위조하는 일이 비밀비재하였다.⁴⁰⁾

15세기 중엽부터 쓰시마와 하카타에서는 조직적으로 가공의 명 의와 가짜 통교 사절을 꾸려 조선왕조와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특히 1510년 이른바 ‘삼포 왜란’으로 조일 관계가 단절되자 통교 무역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위사’(가짜 사절)가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5세기 이후 쓰시마의 소씨(宗氏)는 조선에 빈번하게 위사(僞使)를 파견하여 조선 통교에 따른 다대한 권익을 얻고 있었다. 위사를 파견하기 위해 사절에게 지참하도록 하는 문서(조선 측에서는 이를 ‘晝契’라고 했음)를 지속적으로 위조, 개찬한 덕분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계에 찍는 도서(圖書) 등 도장을 소씨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계(宗家) 구장 자료(큐슈국립박물관 소장) 가운데에는 조선왕조로부터 받은 동제(銅製)의 도서가 23개 있다. 그 대부분은 1563년, 1567년에 도서의 복구에 성공한 深處倭(큐슈 지역의 왜인들) 명의였다. 그러나 그것은 쓰시마에 의해 조작된 거짓 명의였다. 그 외에도 아시카가 쇼군 印인 ‘德有鄰’ 인이 4개, 오우치 씨가 조선왕조에게 받은 割符인 通信符가 2개, 朝鮮國王印인 ‘爲政以德’ 인이 1개 있는데 모두 쓰시마에서 위조된 木印이었다.⁴¹⁾ 동제(銅製)의 ‘도서’는 조선 측이 사여한 진짜 도장(銅印)이지만, 새겨진 명의는 가공의 인물이 많다. 한편, 목제의 위조인은 진짜 ‘도서’(동인)을 본떠 만든 가짜 도장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궁내청 서릉부에 현존하고 있는, 만력18년(1590) 3월 날짜의 ‘朝鮮

40) 関周一, 「偽造された国書」, 『日朝関係史』, 吉川弘文館, 2017年, 174~176쪽 참조.

41) 田代和生・米谷均, 「宗家旧蔵『図書』と木印」, 『朝鮮学報』156, 1995年.

國王 李昞(宣祖) 書契'(조선국서)와 같은 연월 날짜의 '朝鮮國王 李昞 別幅'(‘별폭’이란, 진물 목록을 가리킴)은 황윤길을 정사로, 김성일을 부사로 하는 조선통신사가 같은 해 7월, 토요일 미 히데요시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나 2통 모두 소 요시토시 등에 의해 개찬된 문서이다. 앞서 서술한 소케 구장 자료의 '위정이덕' 인에는 날인 하였을 때의 朱印이 지금도 부착되어 있으며 성분 분석의 결과 이 2통의 문서에 있는 印朱와 성분이 일치한다. 이 목인도 개찬 시점에 작성되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되기도 한다.⁴²⁾

한편, 15세기 중엽 조선과 일본 간의 통교 무대에서 갑작스레 등장한 거짓 외교사절들, 위사들은 어떠한 배경에서 나타났을까. 쓰시마 소씨가 주체가 되어 대장경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 사절을 보냈고 조선 측도 이를 곤혹스러워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 측도 '牙符'라고 하는 '割り印'을 이용하여 쇄도하는 위사들을 판별해내고자 하였으나, 쓰시마 측이 그 틈새를 또다시 빠져나가고자 궁리하고 시도하였다는 것이다.⁴³⁾

對한반도 교류를 통해 생업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였을 때 그것이 뜻대로 관철되지 않았을 때, 바다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 바로 관인을 위조하고 가짜 공첩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한 양상이 중세 이후 한일관계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비하면 덜 상세히 남아 있지만 고대 동아시아 해역에서도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신라국 집사성첩에 보이는 해민의 실태를 바탕으로 도해허가문서의 발급, 내용,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적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대에는 사람들의 해상 왕래, 국제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했구나. 사람의 이동이 아주 불편했고, 원활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이다. 도해 움직임의 강력한 통제는 사람들의 활발한 왕래, 끊임없는 교류를 전제하고 있다. 공첩을 지참하지 않는 사람을 문제시하고 단속하는 기록이 빈출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러한 도해허가문서를 지참하지 않은 채 바다를 은밀하게 건너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해허가문서가 강하게 요구되는 모습으로부터 역설적으로 9세기 동아시아 해역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며, 개방적 교류의 맥시멈(maximum) 상태가 폐쇄적 형태의 통제, 규제, 단속으로 발현되는 현상, 그것이야말로 바로 신라국 집사성첩이 전해주고 있는 역사상인 것이다.

42) 九州国立博物館編, 『戦国大名 九州の群雄とアジアの波濤』, 西日本新聞社・TVQ九州放送, 2015年.

43) 橋本雄, 『偽りの外交使節: 室町時代の日朝関係』, 吉川弘文館, 2012年.

신안선 목간으로 본 몽골제국의 물류체계

정동훈
서울교대

들어가며

1976년 발굴이 시작된 신안 해저유물은 중세 동아시아의 무역관계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이후 1984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발굴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유물들이 인양되었다. 신안선은 중국 慶元(현재의 浙江省 寧波)을 출발하여 일본의 하카다(博多)항으로 향하는 도중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⁴⁾ 여기서는 도자기를 비롯한 문화재 22,000여 점과 동전 800만 개, 총 28톤, 紫檀木 1,017본, 선체편 720여 점 등이 출토되어 당시의 선박의 형태와 교역물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때 발굴된 유물들은 모두 세 차례에 걸친 보고서와 한 권의 종합편으로 정리되어 발표되었다.⁴⁵⁾

특히 1982년과 83년의 조사에서는 모두 364점의 목간⁴⁶⁾이 발견되었다. 목간에는 화물주의 이름이나 소속, 화물의 수량, 積載 일자 등이 기록되어 신안선의 연대와 항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목간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안선은 至治 3년(1323년) 유월 3일(양력 7월 4일) 이후 며칠 내에 출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배에 실린 화물의 주인이나 승선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안선에서 인양된 목간에 대해서는 발굴보고서에서 1차적으로 분석이 시도되었다. 여기서는 목간이 선적 화물의 소유주와 수량 등을 표기하기 위한 下札, 附札의 성격을 가진다고 파악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주로 船底에 실린 대량의 동전들의 소유주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목간을 형태에 따라 유형분류하고, 목서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신안선의 연대와 행선지, 승선인원의 구성 등을 확인하였다.⁴⁷⁾ 신안선에 대한 이후의 연구들⁴⁸⁾도

44) 尹武炳, 「綜合的 結論」, 『新安海底遺物』綜合編, 1988.

45) 文化財管理局, 『新安海底遺物』資料編 I, 1981 ; 『新安海底遺物』資料編 II, 1984 ; 『新安海底遺物』資料編 III, 1985 ; 『新安海底遺物』綜合編, 1988.

46) 발굴보고서에서는 木牌라고 명명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목간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발굴보고서에서는 목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木牌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나무조각에 무역상품에 대한 所有主들의 이름을 墨書한 것으로 말하자면 物標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소형의 木製名牌를 가리켜 이름한 것이다.” 尹武炳, 「木牌」, 『新安海底遺物』綜合編, 1988, 253쪽.

47) 尹武炳, 「木牌」, 『新安海底遺物』資料編 II, 1984 ; 「木牌」, 『新安海底遺物』資料編 III, 1985 ; 「木牌」, 『新安海底遺物』綜合編, 1988.

48) 崔光南, 「新安海底遺物船과 引揚資料」, 『島嶼文化』5, 1987 ; 金元東, 「新安 引揚 遺物을 中心으로 한 元代 海外貿易에 관한 小考」, 『大邱史學』34, 1988 ; 鄭良謀, 「新安 海底遺物을 통해 본 14世紀 東아시아의 陶磁文化」, 『震檀學報』71·72, 1991 ; 이용현, 「신안해저발견 목간에 대하여」, 국립중앙

여기서 얻어진 결론들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 동아시아의 무역 관계를 밝히는 데에 주목하였다.⁴⁹⁾ 특히 목간의 내용과 화물의 적재 상태 등을 토대로 신안선의 무역 형태, 고려 기항 여부 등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어져왔다.⁵⁰⁾

이 글에서는 신안선 출토 목간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몽골제국의 물류체계와 신안선의 무역 형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는 몽골제국의 海運과 해양 교역의 큰 흐름을 간략히 그려보고, 이어서 신안선이 출항했던 14세기 초의 몽골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2장에서는 신안선에서 인양된 목간의 목서 내용과 특히 그 형태에 주목해서, 목간이 교역의 어느 단계에서 작성, 부찰되었는지, 그 과정에 참여한 인물은 누구였는지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몽골제국의 해운과 해양교역

1) 해운의 등장과 한반도 연장

1276년 남송의 수도 杭州를 함락하면서 몽골제국의 중국 정복은 일단락되었다. 1206년에 칭기스칸이 대칸의 자리에 오르며 본격적인 몽골제국의 시작을 알린 지 70년 만의 일이었다. 이로써 몽골제국의 육상 방면으로의 확장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몽골제국의 남송 병합은 몽골제국사뿐만 아니라 중국사, 나아가 세계사 전체에 걸쳐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우선 중국사의 측면에서 보면 1276년의 이 사건은 중국 대륙이 ‘재통일’되는 장면이었다. 1127년 북송의 멸망으로부터 따지면 150년, 907년 당의 멸망과 五代-거란의 분기로부터 따지면 370년, 더 멀리 755년 安祿山의 난부터 따지면 530년만에 중국 대륙이 ‘재통일’되었던 것이다. 사실 삼국시대(220~280)에 양쯔강 유역과 그 남쪽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남북조 시대(221~589) 내내 분열 상태에 있었던 중국 대륙은 隋와 唐 초기의 약 200년의 짧은 통합을 거친 이후 다시 화북과 강남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13세기에 남하하기 시작한 몽골제국이 마주한 ‘중국’은 키타이, 즉 金이 차지한 華北과 만지, 즉 南宋이 자리잡은 江南으로 갈라져 있었다. 몽골은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을 재통일하였고, 이때 만들어진 판도는 이후 명과 청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⁵¹⁾

중국의 남북 통일은 나아가 세계사의 차원에서 보자면 내륙 교통로와 해양 교통로의 통합을 의미했다. 12세기 초 거란이 무너지고, 북중국 방면에는 金이, 중앙아시아 방면에는 카라키타이가 자리잡고서 대치하면서 동서를 횡단하는 내륙의 교통로는 한동안 단절되어 있었다. 이 일대를 정치적으로 통합하여,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요동부터 서쪽으로는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국경의 장벽을 없앤 것은 몽골제국의 중대한 공헌이었다. 이 루트는 서아시아와

박물관, 『고려 조선의 대외교류』, 2002 ; 김병근, 『수증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국학자료원, 2005.

49) 신안선 출토 목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박예리, 「신안선 출수 명문자료 연구 현황과 전망」,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 3, 2020 참조.

50) 김병근, 앞의 책, 2005 ; 이강한, 「‘원-일본간’ 교역선의 고려 방문 양상 검토」, 『해양문화재연구』 1, 2008 ; 조진욱, 「신안선의 무역 모델과 의미 - 신안선의 고려 기항 여부와 목적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55, 2017

51) John W. Dardess, “Did the Mongols Matter? - Territory, Power, and the Intelligentsia in China from the Northern Song to the Early Ming,” Paul Jakob Smith & Richard von Glahn ed., *The Song-Yuan-Ming Transitions in Chinese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중앙아시아 방면에서는 남북 방향으로까지 연장되었으나, 정작 가장 광대하고 풍요로운 중국 방면에서는 황하와 양쯔강 사이에서 가로막혀 있었다. 한편 그에 앞선 한 세기 반 동안, 남송은 廣州, 泉州 등의 거점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와 인도, 나아가 서남아시아를 잇는 해양 교역 루트를 장악하고 있었다. 몽골제국은 남송의 정권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남송이 구축해놓은 해양 교역로와 그를 운영할 역량을 고스란히 승계하였다. 몽골제국은 이 광대한 영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혈관으로써 잠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큰 공력을 쏟았다.⁵²⁾ 이로써 유라시아대륙의 물류 시스템은 내륙과 해양 양방면에서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개통되었다.⁵³⁾

몽골제국은 초원지대의 군사력에 바탕을 둔 채 정주지대의 경제력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본거지이자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북쪽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大都, 즉 현재의 베이징에 수도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⁵⁴⁾ 자연히 북중국에 집중된 거대한 규모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식량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쯔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강남에서 산출된 곡물을 화북으로 운송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내륙의 運河가 있었다. 짧았던 통합의 시기를 상징하는 대운하는, 그러나 강남에서 黃河 연안까지만 운행되고 있었다. 문제는 황하에서 대도에 이르는 구간이었다. 몽골제국은 처음에는 이 구간의 일부, 약 100km 정도를 육상으로 운송해야 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1289년에는 산둥반도 내륙부를 관통하여 황하와 衛河(御河)와 연결하는 會通河를 개착하였다. 현재와 거의 같은 대운하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토목 기술로는 회통하를 통해 황하로 유입되는 대량의 토사를 처리하지 못했고, 고도가 높은 지대를 통과하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 년 내내 지장 없이 곡물을 수송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다.⁵⁵⁾

그러던 중 남송 정벌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바얀은 襄陽에서 출발해서 양쯔강을 타고 동진하여 杭州를 함락시키고는, 1276년에는 거기서 거둔 전리품을 대도로 실어 나를 때에는 해로를 이용하였다. 최초로 해운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곧이어 1282년부터는 동남 해안에서 활동하던 해운업자인 朱清과 張瑄에게 곡물을 바닷길로 수송하는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해운이 개시되었던 것이다. 출발점은 양쯔강 하구의 劉家港(현재 상하이시)였고, 도착점은 直沽(현재의 텐진시)를 거쳐, 大都 안에 위치한 積水潭까지 이르는 노선이었다. 이후 주청과 장선은 20년간 해운을 독점하다가, 1302년에 부패 혐의로 단죄되었다. 이후 몽골제국 정부는 해운을 직접 경영하기 시작했고, 곡물 수송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1329년 최대치로 연간 247,000톤을 운송하였다.⁵⁶⁾

한편 1289년 몽골제국은 南海 무역의 창구인 泉州로부터 해운의 적출항에 가까운 杭州(현재의 浙江省 杭州市)까지의 바닷길에 水站을 설치하였다.⁵⁷⁾ 명목은 외국에서 보내오는 조공품을 수송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목적지는 당연히 大都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水站 루트는

52) 黨寶海, 『蒙元驛站交通研究』, 崑崙出版社, 2006 ;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010, 141~157쪽.

53) 杉山正明, 『クビライの挑戦 : モンゴル海上帝國への道』, 朝日新聞社, 1995 ; 재닛 아부 르 고드 지음, 박흥식 옮김, 『유럽 패권 이전 - 13세기 세계체제』, 까치, 2006.

54) John W. Dardess, "From Mongol Empire to Yuan Dynasty: Changing Forms of Imperial Rule in Mongolia and Central Asia," *Monumenta Serica* 30, 1972

55) 星斌夫 譯註, 『大運河發達史—長江から黃河へ』, 東京: 平凡社, 1982, 381-387쪽 ;

56) 上田信, 『海と帝國—明清時代』, 東京: 講談社, 2005, pp.56-66.

57) 『經世大典』 站赤, 至元 26년 2월 16일의 尙書省 奏(『永樂大全』 권19418) ; 『元史』 권15, 세조 본기, 지원 26년 2월 丙寅.

자연히 해운 노선과 연결될 것이었다. 같은 시기, 해운을 책임지고 있던 張瑄의 아들 張文虎는 海道運糧萬戶라는 관직을 띠고 1287년에는 交址 정벌에 동원되어 양식 17만 석을 운송하기도 하였고, 1291년에는 류큐 정벌에 동원되기도 하였다.⁵⁸⁾ 즉 양쯔강 하류의 杭州와 劉家港, 그리고 寧波를 중심으로, 남서쪽으로 해외 교역을 통해 모아들인 물자들이 북쪽으로 향하는 해운로를 따라 대량의 곡물과 함께 수송되는 흐름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몽골제국의 해운 시스템에 한반도, 당시의 고려도 일시적이거나 포괄되었던 점이다. 1293년부터 1303년까지 10년간 운영되었던, 제주도에서 압록강 하구까지 연결된 水驛 루트가 그것이다.

두 차례의 일본 출병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쿠빌라이는 일본 원정의 뜻을 꺾지 않았다. 남송 정벌 이후 막강한 해상 운송 능력을 보유하고, 1281년의 제2차 일본 출병으로 그 능력을 확인하게 된 몽골 정부는 바다를 통한 물류망을 한반도까지 연장할 계획을 세웠다. 1283년부터는 해운을 주도하던 주청과 장선이 일본 원정 준비에 투입되었고, 1285년에는 강남의 미곡 100만 석을 합포에 쌓아 두고서 일본 출병에 대비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⁵⁹⁾

그러나 주지하듯이 세 번째 일본 원정은 실행되지 않았다. 1287년, 요동 일대에서 일어난 나얀의 난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동방왕가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이 반란은 만년의 쿠빌라이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⁶⁰⁾ 이 반란은 1292년에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는데, 그 진압 과정에 고려군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1290년대 전반 내내 강남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다시 요동으로 대량의 미곡이 운송되었다.

1293년, 쿠빌라이는 제주도에서 압록강 입구에 이르는 11개의 수역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⁶¹⁾ 이때의 루트에 대해 『원사』 지리지에서는 ‘楊村海口’를 포함한 13개 수역을 세웠다고 기록하였다.⁶²⁾ 여기에 언급된 ‘楊村海口’는 直沽, 즉 원대 해운의 종착역이었던 현재의 텐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⁶³⁾ 그렇다면 강남의 유가항에서 출발한 해운이 직고를 거쳐 발해만, 요동반도 南岸을 지나 압록강 하구에서 제주도까지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서 연장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 수역 루트는 개설된 지 10년만인 1303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⁶⁴⁾ 요동 지역의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더 이상의 미곡 수송 필요가 사라진 것이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그때까지 해운을 주도하던 주청과 장선 세력이 숙청된 일, 쿠빌라이 사후 14세기 초에는 거의 ‘해금’ 수준의 무역 견제책이 행해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⁶⁵⁾

58) 이강한, 「1293~1303년 高麗 서해안 ‘元 水驛’의 置廢와 그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33, 2012, 135~136쪽.

59) 『원사』 권13, 세조 본기, 지원 22년 11월 癸巳.

60) 이 난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는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소나무, 2010 참조.

61) 『원사』 권17, 세조 至元 30년(1293) 2월 辛亥. “詔沿海置水驛, 自耽羅至鴨淥江口凡十一所. 令洪君祥董之.”

62) 『원사』 권63, 地理志 6, 征東等處行中書省. “三十年, 沿海立水驛. 自耽羅至鴨淥江并楊村海口凡十三所.”

63) 森平雅彦, 『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342~343쪽.

64) 『원사』 권178, 王約. “命故臣洪子藩爲相, 俾更弊政. 罷非道水驛十三, 免耽羅貢非土產物, 東民大喜.” 이상의 수역 치폐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강한, 「1293~1303년 高麗 서해안 ‘元 水驛’의 置廢와 그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33, 2012 참조.

65) 이강한,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2013, 1부 2장//.

2) 일본 출병 이후의 몽골-일본 관계

한국·중국에서는 ‘日本遠征’으로, 일본에서는 ‘蒙古襲來’ 혹은 ‘文永·弘安의 役’, ‘元寇’ 등으로 불리는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친 麗元 연합군의 ‘日本出兵’은 그를 전후한 시기 원-일본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대략을 살펴보면, 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속에서, 한편으로는 公認된 무역선인 寺社造營料唐船이 왕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허가를 받지 못한 倭寇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⁶⁶⁾ 과연 일본 출병이 끝난 이후 신안선이 출발했던 1323년까지 40여 년 동안 몽골과 일본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1281년 제2차 일본출병이 끝난 이후로도 원은 일본 정벌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쿠빌라이는 1283년과 1287년에도 대규모 일본 출병을 준비하도록 했으나, 각각 江南과 占城의 반란 및 乃顔의 난으로 인해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원의 움직임을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幕府-北条氏를 중심으로 매우 공고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었다.⁶⁷⁾ 가마쿠라 정권이 울령 국가의 지배기능을 흡수하고, 봉건국가로서의 성장을 시도함에 있어서 대외군사적 긴장이 획기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⁶⁸⁾

고려에서도 일본의 군사적 보복을 우려하여⁶⁹⁾ 변경 방어를 강화하고, 원과의 연계태세 정비에 주의를 기울였다.⁷⁰⁾ 제2차 원정 직후, 81년 10월에는 경상도의 淸浦(지금의 마산)와 전라도에 鎭邊萬戶府를 설치하여 “控制日本”의 태세를 갖추었고,⁷¹⁾ 이후 1301년에는 耽羅에도 만호부를 설치하였다.⁷²⁾ 또한 원정 실패 이후에는 征東行省의 역할도 대일본방어 기관으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⁷³⁾ 1302년 정동행성을 요동행성과 병합하고 그 치소를 요양에 두자는 이른바 ‘立省策動’에 대한 고려의 반대 명분으로 요양에서 淸浦까지의 거리가 멀어, 防倭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높다는 점이 제기되었음⁷⁴⁾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뿐만 아니라 元에서도 일본에 대한 방비에 유념하게 되었다. 1292년 10월, “日本の 배가 四明(慶元, 지금의 浙江省 寧波)에 이르러 互市할 것을 청하였는데, 배 안에 甲仗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탄 속셈이 있을까 우려하여, 詔를 내려 都元帥府를 세우고, 哈刺帶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여 海道를 방어하게 하였다”⁷⁵⁾는 기록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때 설치된 都元帥府란 浙東道 都元帥府로, 이전까지는 宣慰使司가 설치되어 있었다가 변경방어를 목적으로 都元

66) 13세기 말~14세기 전반, 원-일본 관계의 대략에 대해서는 中村榮孝, 「十三 . 十四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6 및 田中健夫, 「十四世紀以前における東アジア諸國との關係」,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75 참조

67) 南基鶴, 「蒙古襲來以後の日本と東アジア」, 『蒙古襲來と鎌倉幕府』, 東京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4, pp.195~196 및 pp.209~211.

68) ‘蒙古襲來’가 특히 九州 일대에서의 鎌倉幕府 집권력 강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中村榮孝, 위의 논문, pp.35~39 및 村井章介, 「蒙古襲來と鎭西探題の成立」,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참조

69)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제1, 제2차 일본출병이 있은 후 각각 일본에서는 실제로 고려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남기학, 「일본침공 이후의 麗日關係」, 『蒙古의 高麗 · 日本 侵攻과 韓日關係』, pp.111~116.

70) 권영국, 「원 간섭기 고려 군제의 변화」, (한국역사연구회 원간섭기)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 변동명, 「고려 충렬왕대의 만호」, 『역사학보』121, 1989

71) 『高麗史』 권29, 충렬왕 7년 10월 己亥

72) 『高麗史』 권32, 충렬왕 27년 3월 癸卯

73) 高柄翊,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 『東亞交渉史의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74) 『高麗史』 권32, 충렬왕 28년 是歲條

75) 『元史』 권17, 至元 29년 10월 戊子

帥府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1292년은 원에서 일본에 재차 牒狀을 보내 귀부를 종용하던 시기로 일본의 返答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던, 매우 긴장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都元帥府 설치 조치는 단순히 倭船에 대한 경계 강화라는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원의 민감한 반응이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때 설치되었던 도원수부가 곧 폐지되었음⁷⁶⁾을 고려하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다.⁷⁷⁾

한편 쿠빌라이 시대 건설된 광대한 교역권에서 일본이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출병 도중에도 일본의 상선은 송대와 마찬가지로 慶元에 왕래했다. 쿠빌라이 스스로도 중국에 왕래하는 일본의 상선에 무역을 허용하라는 詔諭를 연해의 官司에 내리기도 하였다.⁷⁸⁾ 쿠빌라이가 일본과의 ‘互市’를 허용한 데에는 단지 일본의 金·水銀·珍珠 등에 대한 경제적 욕구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四夷에 군림하는 天子로서의 관대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본의 ‘來朝’를 촉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⁹⁾

1293년에 이르면 원의 대외무역정책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른바 ‘市舶則法’이 발령된 것인데, 그 대강은 사무역의 금지, 출입하는 내외의 선박 모두에 원의 市舶司에서 발행하는 公憑을 지참하게 함으로써 무역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⁸⁰⁾ 이 ‘市舶則法’의 결과 일본 선박의 중국 연해 출입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한 邊防의 강화로, 일본 상선에 대한 경계태세도 고취되었다. 이후 成宗대에 들어서면 일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퇴조하면서 무역정책도 소극적으로 변화하여, 대일무역에 대한 원의 태도도 제한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⁸¹⁾ 14세기 초에는 市舶司의 置廢가 거듭되었고,⁸²⁾ 1303년에는 상인에 대해 下海通蕃의 금지가 내려졌으며, 다음해에는 매년 도래하는 일본선을 경비하기 위해 千戶所를 定海에 설치하기도 하였다.⁸³⁾

그 후 1314년에는 下蕃市舶의 금지가 풀려, 廣東·泉州·慶元 세 곳에 市舶司를 부활시키고, 결국 1322년에 復置된 이후로는 그대로 원말까지 존속하게 되었다. 또한 22개조의 통제규정을 설치하여 사무역을 엄금했다.

일본 측에서도 중앙에서 무역에 관한 권한을 독점화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⁸⁴⁾ 鎌倉幕府는 이미 13세기 중반부터 민간에서 발주하는 唐船의 수를 제한하는 등 민간무역에 대해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蒙古襲來는 국내정치에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幕府=北条氏의 집권력 장악 노선에 박차를 가하는 사건이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鎮西探題의 성립과 北条氏에 의한 해상교통요충 장악이었다. 국방과 교통 양 측면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막부는 대외무역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막부의 독점적 지위가 잘 표현된 것인 寺社造營料唐船이다. 이는 막부의 공인과 보호 하에 대륙에 파견된 무역선으로, 그 첫 사례는 1290년까지 소급된다. 이후 14세기 중반까지 여러

76) 1302년에 다시 浙東道都元帥府 설치가 건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에 앞서 宣慰使司로 복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시기는 아마도 세조의 사거와 동시에 제3차 일본원정 계획이 중지된 때였을 것으로 보인다.

77) 榎本涉, 『元朝の倭船對策と日元貿易』,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 吉川弘文館, 2007, pp.112~113

78) 『元史』 권10, 世祖 至元 15년 11월 丁未

79) 南基鶴, 위의 논문, p.206

80) 『元典章』 戶部., 市舶, <市舶則法>

81) 中村榮孝, 위의 논문, pp.46~47 ; 田中健夫, 위의 논문, pp.43~44 ; 榎本涉, 위의 논문, pp.110~115

82) 『元史』 권 94, 食貨志2, 市舶

83) 『元史』 권20, 成宗 大德 6년 10월 甲子

84) 이하 일본의 對元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南基鶴, 위의 논문, pp.208~213을 주로 참조하였음.

차례에 걸쳐서 사사조영료 마련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상선이 막부의 공인 하에 원과 왕래했다. 1976년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이른바 신안해저유물선 역시도 慶元에서 출발하여 博多로 향하던 寺社造營料唐船이었다. 가마쿠라의 유명한 이른바 關東大佛 역시도 대원무역으로 얻은 수입으로 주조된 것이라고 한다.⁸⁵⁾

이들 唐船의 공통된 성격은 모두 寺社 修造의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륙을 왕래하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海商이었다는 점, 막부나 조정의 公許를 받아 계획 내지는 경영된 무역선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公許를 받았다는 것은 入元의 준비나 귀국에서 편의를 얻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원에서도 公許貿易船이라는 점에 의해 신용을 얻어, 왜구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부는 이들 唐船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해적 등으로부터 무역선을 보호하였고, 이들로부터 抽分錢을 거두어 사원 조영의 용도에 충당했다. 막부에서는 이러한 公許 唐船 외에는 중국과의 민간무역을 철저히 금지했다.

막부의 대원무역 독점은 원의 무역방침의 변화, 즉 자유무역에서 원의 공허를 얻은 상선에 한해 무역을 인정하는 제한적 무역으로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이는 마치 명대의 勘合무역을 연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⁸⁶⁾ 그러나 室町막부의 足利씨가 勘合무역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로서 日本國王으로 책봉받는 등 明-日관계에서는 국가외교와 대외무역이 어느 정도 일치하여 전개되었던 것과는 달리, 元-日관계에서는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성립이 없이도 정부의 公許에 기초한 독점무역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던 가운데 원의 市舶則法과 막부의 寺社造營料唐船 운영으로 무역이 중앙정부에 의해 독점되자 그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해오던 일본의 중소세력들은 공인받지 못한 세력으로 변모하였고, 종종 무력을 동반하여 무역행위를 지속하였다. 이것이 高麗와 元の 사료에 이후 자주 등장하게 되는 이른바 ‘倭寇’이다.

14세기 초, 倭寇의 활동으로 처음 기록된 것은 1309년의 일이다. 원대 慶元의 地方志인 『延祐四明志』와 『至正四明續志』에는 慶元의 官舍, 學校, 寺觀 등 113곳 가운데 24곳이 이때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원 조정에 큰 충격으로 전해졌다. 원은 慶元에 거주하던 일본인 승려들을 검거하고, 향후 한동안 慶元港 자체를 폐쇄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연해지방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전까지는 경계의 대상이 일본의 군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때 이후로는 倭商의 폭동에 대해서도 방비하기 시작하였다.⁸⁷⁾ 이후로도 왜구에 관한 기사가 간혹 언급되기는 하지만, 14세기 후반과 같은 대규모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倭寇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1350년 이후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⁸⁸⁾ 13세기 말~14세기 전반에 걸친 倭寇의 활동 사례는 14세기 후반, 남북조시대(1336~1391)의 정세 불안에서 비롯되어 본격화된 왜구와는 그 배경이나 목적, 규모, 활동범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이 시기 기록에 나타난 왜구의 활동이란 어디까지나 무역 목적으로 내항했던 상선의 폭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초부터 해적이거나 약탈 행위를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원-일본간 무역의 중앙독점화에 대한 반발로 표출되었던 倭寇는 본격화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5) 森克己, 『日宋文化交流の諸問題』, 刀江書院, 1950

86) 명대의 공무역으로서의 勘合무역에 대해서는 佐久間重男, 「明代の外國貿易 - 貢舶貿易の推移」, 『日明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1 참조.

87) 榎本涉, 「元朝の倭船對策と日元貿易」,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 吉川弘文館, 2007, pp.120~134

88) 『高麗史』 권37, 忠定王 2년 2월, “倭寇之侵始此” 1350년 이후 사료에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倭寇를 이른바 ‘庚寅 이래의 倭寇’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 『일본역사연구』24, 2006 참조

2. 출토 목간을 통해 본 신안선의 교역 형태

1) 목간의 인양 과정과 출토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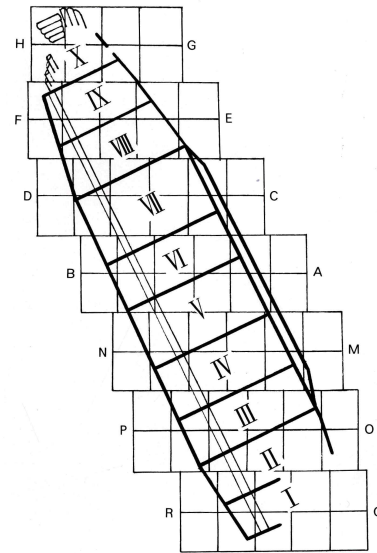
신안선에서 인양된 목간의 총수는 364점이다. 이는 발굴작업이 船底部에 도달된 82년도에 328점, 그리고 다음해인 83년도에 36점이 발견되었다. 이 목간들은 선저부에 퇴적된 흙을 흡인호스(suction hose)를 사용해서 빨아올렸을 때 다량의 동전 및 기타 약간의 유물들과 함께 올라왔다.⁸⁹⁾

발굴 초기에 선체의 윤곽과 인양된 유물의 발견 위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圖面化하기 위하여 철제구획틀(mapping frame)을 사용하여 배 전체를 區劃하였다.⁹⁰⁾ 그러다가 발굴이 진행되면서 선체의 중간부분을 가로막고 지나가는 隔壁이 발견되면서 선체 내부가 9개의 구간(船倉)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안선에서 인양된 유물들의 위치는 원래 선체의 구획에 따라 I~X區로 파악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가설된 철제구획틀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지점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목간은 흡인호스로 빨아올리는 방식으로 인양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획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I~X區로만 나누어서 확인된다.

목간이 인양된 선체의 부분을 거의 같은 위치에서 인양된 동전과 紫檀木과 함께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⁹¹⁾ 신안선 구획도는 <그림 1>과 같다.⁹²⁾

	동전 (kg)	목간 (개)	자단목 (本)
I 區	262		
II 區	7,869	138	
III 區	5,786	130	44
IV 區	3,474	55	211
V 區	167		74
VI 區	2,616	19	183
VII 區	4,000	12	226
VIII 區	350	3	191
IX 區	150	1	6
X 區	906	5	4
계	25,580	134	939

<표 56> 동전, 목간, 자단목의 선창별 출토표



<그림 40> 신안선 구획도

위 표를 통해 출토된 목간의 수량은 대체로 동전의 수량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목간이 대부분 동전의 소유주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쓰였을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실제로 목간에 묵서된 내용 중에는 ‘大錢’과 같이 내용물이 동전임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89) 尹武炳, 위의 글, 1988, p.253.

90) 尹武炳, 「船體 및 遺物의 發見 狀態와 調査過程」, 위의 책, 1988,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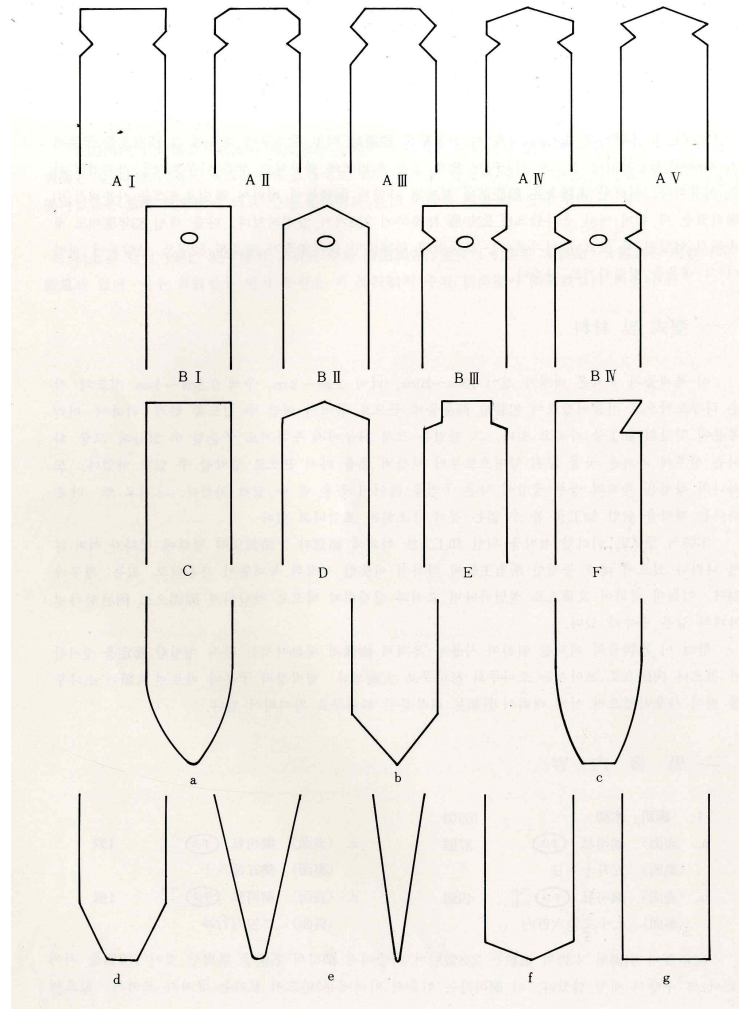
91) 尹武炳, 「船體 및 遺物의 發見 狀態와 調査過程」, 위의 책, 1988, p.96. 참조

92) 윤무병, 위의 글, 1988, p.99에서 전재.

것과 동전을 세는 貫·貫文 등의 단위가 표시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2) 화물주와 목간의 형태

발굴보고서에서는 목간의 유형을 목간의 윗부분의 모양과 아랫부분의 모양을 근거로 나누었다.⁹³⁾ 그리고 모든 각각의 목간들을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⁹⁴⁾ 분류한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41> 목간의 유형 분류

A 유형은 목간의 윗부분에 작은 홈을 파서 끈으로 맬 수 있도록 만든 형태이다. 이는 전형적인 부찰, 하찰의 형태로 볼 수 있다. B 유형은 작은 구멍을 뚫어서 끈을 꿰 수 있게 만든 형태로 역시 부찰용으로 쓰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C 유형은 목간에 특정한 가공을 하지 않은 형태이다. D, E, F 유형의 목간은 발견된 수량이 많지 않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목간의 형태를 근거로 대부분의 목간들이 下札, 附札의 용도로

93) 尹武炳, 「木牌」, 『新安海底遺物』資料編 II, 1984, p90.

94) 尹武炳, 「木牌」, 『新安海底遺物』資料編 II, 1984, pp.214~227.

-----, 「木牌」, 『新安海底遺物』資料編 III, 1985, pp.153~154.

쓰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목간의 형태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전체 364개의 목간 중에서 온전한 형태로 남아 그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목간은 모두 332개이다. 이들 목간들은 39개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윗 부분의 형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목간은 353개이다. 이중 A I에 해당하는 것이 97개(27.5%), A II가 49개(13.9%), A III가 58개(16.4%), A IV가 51개(14.4%), A V가 1개(0.3%)로 A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256개로 전체의 72.5%를 차지한다. B 유형의 목간은 모두 41개로 11.6%에 이른다. 부찰로 쓰기에 적합한 A, B 유형의 목간이 전체를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목간이 화물에 소유주를 표시하기 위해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윗부분에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은 C 유형도 42개(11.9%)로 적지 않은 수량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모든 목간을 일괄적으로 끈을 묶어서 포장된 상품들에 매달아 두는 형식의 부찰로 파악하는 것은 일단 성급해 보인다. 각각의 형태에 따라 부찰된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체의 목간 중에서 아래 부분의 형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337개이다. 이중 a에 해당하는 것이 96개(28.5%), c가 104개(30.9%), g가 87개(25.8%) 등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화물에 꽃아서 세우기에 적합한 형태인 e 유형은 29개(8.6%)로 많지 않은 경우를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목간의 아래 부분은 특별한 용도를 염두에 두고 가공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안선에는 상당한 양의 동전과 자단목, 도자기 등의 무역품들이 실려있었다. 이들 물품들이 배에 실리기까지는 대개 네 번 정도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즉 생산자 → 판매자 → 화물주 → 선박(선적 과정)의 순서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선적된 물품들에는 소유주를 표시하는 목간들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목간은 어느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 부착된 것일까?

우선 생산자가 생산 이후 물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목간을 부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과정 자체가 주문형 생산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동전은 官에서 직접 주조하였던 것이고, 또한 원의 禁輸品에 해당하는 것으로⁹⁵⁾ 생산 단계부터 주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나머지 가능성은 거래가 이루어진 후 판매자나 화물주가 부착했을 가능성, 그리고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선박 소유주가 부착했을 가능성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화물주별로 어떤 목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화물주별로 어떠한 형태의 목간을 사용했는지를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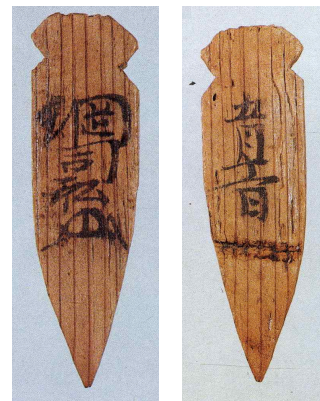
	綱司	東福寺	八郎	松 菊得	菊一	秀忍	隨忍	本とう 二郎	とう二 郎	一田早 米	まこ三 郎
A I	3										
A I a	6			1							
A I b	3										
A I c		1			6		4		5		4
A I d	5								1		

95) 金元東, 위의 논문, 1988, p.12.

A I e											
A I f											
A I g	1	10			2						5
A II a	27										
A II b				1							
A II c			1	3						1	
A II d											
A II e											
A II f											
A II g		2								8	
A III a	56										
A III b											
A III c											
A III d											
A III e											
A III f											
A III g											
A IV a	1										
A IV b											
A IV c	6						1	2	1		
A IV d											
A IV e											
A IV f											
A IV g		28								1	
A V a	1										
B I c			17								
기타				Ec 1	Ed 1	Cc 2		Cd 1		Cg 2 De 1	
계	109	41	18	6	9	2	4	2	8	14	9

<표 2> 화물주별 목간의 형태

위의 표에서 잘 드러나듯이 각각의 화물주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목간을 사용하였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綱司의 경우 A II a 유형이 27개, A III a 유형이 56개로 대다수의 목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로 아래 부분을 둥글게 다듬은 형태의 목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東福寺가 표기된 목간의 경우 A I g 유형이 10개, A IV g 유형이 28개로 역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아래 부분을 가공하지 않은 형태가 대다수임을 말해준다. 또한 八郎의 경우는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B I c 유형이 거의 대부분이다. 전체 39가지 유형의 목간 중에서 특정한 유형의 목간이 한 명의 화물주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각각의 화물주들은 자신의 화물에 표시할 목간을 따로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A III a 유형의 '綱司' 목간

특히 동전의 양을 나타내는 '貫' 또는 '貫文'을 묵서한 목간의 경우에도 東福寺는 A II g나 A IV g 형태의 목간을 사용했던 데에 비해 松菊得은 A II b, A II c 형태의 목간을 사용하였다. 또 包 단위로 세어진 물품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綱司 소유의 것은 A III a 형태의 목간을 주로 사

용하였지만, 荷主로 ‘敎仙’이 묵서된 목간의 경우에는 Cc 형태로 되어있다. 동일한 물품의 경우에도 각각 다른 형태의 목간이 쓰이고 있음은, 목간을 붙이는 일이 판매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같은 구역에서도 서로 다른 형태의 목간들이 다양하게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서 선적과정에서 그것을 담당했던 인력이 붙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화물에 목간을 붙이는 일은 물건의 판매자나 혹은 선적 과정에서 선박의 담당자가 수행한 것이 아니라 화물주가 직접 담당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화물주는 물품을 구입한 후에 각자 따로 준비한 목간에 일자나 수량 등을 적어서 화물에 부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화물주의 이름이 기입된 대부분의 목간에는 그의 手決도 동시에 기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목간을 둘러싸고 수결이 필요한 일종의 절차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만약에 목간에 내용을 기입해서 부착하는 과정이 화물주에 의해 단독으로 진행된 일이었다면 이러한 수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목간들은 화물주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포장된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그 표시로 수결을 하였거나, 혹은 화물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화물임을 확인하는 표시로 수결을 해서 목간을 부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목간들 중에는 ‘五月十一日’, ‘六月二日’ 등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 날짜를 물품을 구매하여 넘겨받는 날짜보다는 선적하는 날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BIc 유형의 ‘八郎’ 목간

<그림 5>
AIVg 유형의 ‘東福寺’ 목간

<그림 6>
AIIb 유형의 ‘松菊得’ 목간

3) 화물의 종류와 목간의 형태

신안선에 선적된 물품들을 위치별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맨 아래쪽에 자단목이 1,000여 본이 실려 있고, 그 바로 위에 28톤이 넘는 동전이 다량으로 실려 있어 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그 위로 2만 점 이상의 도자기가 실려 있었고, 그 외도 720여 점의 금속기와 소량의 향료·약재가 인양되었다. 그리고 형체는 남아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木製軸으로 보아 書畫나 絹織物 등도 무역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에서 목간은 船底部에서 다량의 동전과 함께 출토되어, 대부분 동전의 수량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목간에 묵서된 내용 중에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표시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목간이 동전에만 부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 물품의 종류를 직접 묵서한 예는 ‘大錢’, ‘陳皮’, ‘藥’ 정도가 확인이 된다. 또한 수량을 기입한 것 중에는 단위를 표시한 예들이 여러 가지 확인되는데, 화폐 단위인 ‘貫’과 ‘貫文’을 표기한 것이 89점으로 가장 많고, ‘包’로 표기한 것이 52점, 용적을 의미하는 ‘斗’를 표기한 것이 12점, ‘斤’으로 표기한 것이 2점 등이 있다. 이렇게 묵서된 내용을 통해서 목간이 표시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가 다양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물품의 종류에 따른 목간의 형태는 어떠한지, 또 그에 따라서 부찰하는 방식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다.



<그림 48>
A I g 유형의 ‘貫’ 목간

<그림 46>
A III a 유형의 ‘包’ 목간

<그림 47>
Ce 유형의 ‘斗’ 목간

우선 가장 많은 경우를 보여주는 貫이나 貫文은 A IV g, A I g, A II e, A I c 등 다양한 형태

를 보이고 있다. 1貫은 동전 1000枚를 의미하는 것이다. 貫이나 貫文으로 수량이 표시된 대부분의 목간들은 화물주로 東福寺가 목서되어있다.

다음으로 많은 수가 보이는 ‘包’는 거의 대부분이 AⅢa의 유형으로 綱司 소유의 물품을 표시한 것이 그중에서 49점에 이른다. 이중 48점의 목간은 모두 동일하게 表面에는 ‘綱司私(手決) 六月三日’라는 내용이, 裏面에는 ‘七十三包六百內’라는 내용이 목서되어 있다.⁹⁶⁾ 包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들 목간들이 대부분 Ⅱ區(船尾쪽에서 두 번째 船倉)에서 인양되었는데, 이곳에서는 다량의 동전과 함께 貫, 貫文을 표기한 목간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여기에도 역시 동전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신안선에서는 동전을 나무상자에 담지 않고 끈으로 몇 백 매씩 묶어 포대에 담아 놓았는데,⁹⁷⁾ 동전의 인양은 흡인호스로 퇴적된 흙과 함께 빨아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간이 부착된 방식은 알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의 목간이 윗부분에 끈을 맬 수 있도록 홈을 파 놓은 A유형의 것임에 미루어볼 때, 포대의 입구 부분에 목간을 부착하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貫·貫文과 包의 경우 모두 동전을 나타내기 위한 단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목간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물품의 종류보다는 화물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목간의 형태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용적을 나타내는 斗가 표기된 것은 모두 12점이다. 그중 ‘福四斗’가 목서된 것이 10점으로 1점이 Cc의 형태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Ce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北米七斗’가 목서된 것은 2점으로 모두 Cg유형의 형태이다. ‘福’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용적을 나타내는 斗를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北米의 경우를 통해서 곡식의 일종이 아닐까 추정된다.⁹⁸⁾ 목간의 형태는 아래 부분을 뾰족하게 깎아 다듬은 Ce의 형태이다. 이는 이 목간을 물품에 꽂아 두었을 가능성으로 떠올리게 한다. ‘福四斗’ 목간은 동전에 부착된 목간들이 다량으로 인양된 Ⅱ區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그것들과는 달리 蟲害를 입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전들보다 선창의 상부에 적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⁹⁹⁾

Cg 유형은 장방형의 조각에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형태로, 부착로 기능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동시에 표기한 드문 예로 ‘斤’이 표기된 목간이 주목된다. 이는 ‘陳皮廿七斤 正悟(手決)’이 목서된 목간과 ‘陳皮五拾五斤’이 목서된 목간이 그것이다. ‘陳皮’는 굴껍질을 말하는데,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濟州牧의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고,¹⁰⁰⁾ 實錄에도 일본에서 보낸 토산물의 종류에 다른 약재들과 함께 자주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다.¹⁰¹⁾ ‘陳皮五拾五斤’는 그 파손되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고, ‘陳皮廿七斤 正悟(手決)’ 목간은 Df 유형으

96)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을 ‘七十三包六百內’라고 읽었다.(『新安海底遺物』Ⅱ, 214~227.) 그러나 도면을 통해서 보면 ‘百’은 ‘万’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위의 책, p.329, 圖版 95-1.2.3.) 이 경우 包의 내용물을 동전 6만 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목간에서 대부분의 동전 수량을 枚數가 아닌 貫으로 표기하였고, 가장 많은 경우도 12貫 정도인 것으로 보아, 60貫이 되는 6만 매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1관의 무게는 3.75kg이고 이는 전체 800만 개의 동전의 무게 28 ton과도 대략 일치하므로, 60관의 무게는 대략 225kg으로 운반하기에 어려운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97) 김병근, 「신안선 적재유물의 내용과 특성」, 『수중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국학자료원, 2004, p.195.

98) 福은 ふく로, 北米는 きたよぬ로 읽혀, 人名을 표기했을 가능성도 보인다.

99) 윤무병, 위의 글, 1984, p.96.

100) 『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全羅道 濟州牧 土産.

101) 『世宗實錄』권19, 5年 2月 5日 丙辰 등.

로 동전을 표시한 목간들과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물품의 종류나 포장의 형식과 목간의 형태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동전의 수량을 나타내는 貫·貫文이나 包가 표시된 목간은 형태에 아래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각각의 소유주가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부찰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곡식이나 혹은 약재의 용적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斗 목간의 경우 아래쪽이 뾰족하게 다듬어져 물품에 꽂아두기 적당하게 가공되었다. 이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부찰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게 고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전 이외의 물품을 표기한 부찰의 종류와 수량이 적어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신안선의 교역 형태

이상의 검토를 확인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간은 화물주의 이름을 기재하여 화물에 부찰한 것이다. 둘째, 화물주는 대부분 일본인, 혹은 일본의 사찰 등이었다. 셋째, 목간은 화물주, 혹은 그의 대리인이 직접 마련하였다. 넷째, 목간은 배에 화물을 적재할 때 그 날짜를 적고 수결을 한 후 자신의 화물에 부찰하였다.

그렇다면 신안선의 화물들이 이 배에 실리기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해보자.

- (1) 도자기, 동전 등의 생산자가 각각 현장에서 생산했다.
- (2) (1) 혹은 그 대리인이 경원항까지 상품을 운반했다.
- (3) 일본인 화물주가 (2)로부터 물품을 구입했다.
- (4) (3)은 중국인 綱司, 즉 선장, 혹은 선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선적했다.
- (5) (3)과 (4)는 하카타, 교토 등으로 가서 상품을 인계(3), 혹은 판매(4)할 예정이었다.

만약 목간이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1) 생산지의 생산자나, 아마도 더 높은 확률로 (2) 경원항의 중개 상인이 그것을 마련한 후 (3) 구매자=화물주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각각의 목간에 이름을 써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검토 결과 셋째에 따르면 목간은 (3) 화물주가 직접 마련해서 부찰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도자기, 동전 등의 상품이 1323년 5월부터 6월 초에 걸쳐 거래된 절차와 거기에 참여한 주체들을 상상할 수 있다. (1) 생산자와 (2) 중개 상인은 주문 제작이나 조달의 형태가 아니라, 장차 경원항에서 판매될 것을 기대한 채 생산, 운반하였다. (3) 일본인 구매자=화물주는 경원의 시장에 나온 상품들을, 자신의 수요에 따라 구입하였다. (4) 그리고 중국인 綱司에게 의뢰하여 이 화물을 배에 싣는 과정에서 미리 마련한 목간에다 화물과 수량, 화물주를 기재해서 붙인 것이다.

이상의 논증이 타당하다면, 신안선의 교역 형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정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첫째, 중국 상인이 일본 현지에서의 수요를 기대, 혹은 예측하고서 상품을 싣고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판매하는 형태. 둘째, 일본 상인이 역시 일본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경원으로 건너와 물품을 도매로 구입해서 건너가는 형태. 즉 신안선에 실린 화물은 대부분 일본인 에이전트들이 애초에 수요를 확정한 채 경원으로 와서, 현지의 시장에서 그만큼을 구매한 후 하카타, 혹은 교토로 돌아가 자신의 의뢰인, 물주에게 이를 넘기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단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이 ‘綱司私’ 명의로 기재된 화물이었다. 우선 ‘綱司私’ 명의의 목

간이 몇 건, 어디에서 출토되었는지 정리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¹⁰²⁾

목서 내용	출토 구역				합계
	Ⅱ구역	Ⅲ구역	Ⅳ구역	X구역	
綱司私 (手決) 五月十一日		31	2	4	37
綱司私 (手決) 六月三日 七十三包六百內	38	5	8		51
綱司 (이하 불명)	9	10	2		21
	47	46	12	4	109

<표 58> 綱司私 명의 목간의 수량과 출토 구역

‘私’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강사의 사적인 물품” 나아가 “강사가 사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면, 이는 위의 대리 구매와는 구별되는 교역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綱司私’ 명의의 목간은 기재 내용이 불명확한 21건을 제외하면 모두 5월 11일(37건)과 6월 3일(51건) 날짜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들 목간은 대부분 신안선의 제일 뒤쪽인 Ⅱ구역(47건)과 Ⅲ구역(46건)에서 출토되었다. 그런데 6월 3일은 목간에 기재된 날짜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상상할 수 있다. 경원의 시장에 물품을 내놓은 중국인 상인은 최대한 많은 수량을 일본인 구매자에게 넘기려고 하였다. 綱司는 이들의 화물을 신안선의 앞쪽부터 차례로 실었다. 그러나 경원의 상인들은 출항 일자에 임박해서도 미처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수량을 綱司에게 떨어 형태로 팔아넘겼다. 강사는 이를 마지막으로 빈자리에 채워넣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하카타나 교토의 시장에서 현지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강사가 처리한 것이다.

요컨대 신안선에 실린 상품은 일본인 화물주들이 애초에 필요 수량을 정해서 경원으로 와서 구매해가는 상품이 약 70%, 선주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시장에 내다 팔 예정인 상품이 약 30% 정도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전자가 중심이 되었을 것이고, 후자는 전자의 수를 초과하는 공급량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 방편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나가며

이상 본론에서는 몽골제국이 내륙과 해양을 모두 통합한 거대한 교역 시스템을 완성한 13세기 말부터 신안선이 경원을 출발하여 하카타로 향하던 1323년 무렵까지, 몽골제국의 물류 시스템과 몽골-일본 간 교역 형태를 추적해보았다. 몽골은 화북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강남의 곡물을 수송하는 데 본격적으로 해운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해운은 당시 동남아시아, 서아시아까지 확장되었던 해외교역로와도 직접 연결되었다. 신안선에 1,000본 이상 실린 동남아시아산 자단목이 그 연결 고리를 확인시켜주는 유물이다. 1281년의 제2차 일본 출병 이후로도 몽골과 일본은 교역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132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 측의

102) 조진욱, 앞의 논문, 212쪽 참조.

수요가 증가하면서 선박 왕래가 더욱 활발해졌고, 1322년, 신안선이 출발하기 한 해 전에는 慶元에 해외무역 관리기구인 市舶司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교토의 東福寺, 하카타의 釣寂庵 등은 사찰 건립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인, 상인들을 경원에 파견하여 도자기, 동전, 자단목 등을 수입하게 하였다. 이들은 泉州에서 제작되어 중국인 선주, 즉 綱司가 운용하는 배를 빌려 상품을 싣고 동중국해를 횡단하던 중 신안 앞바다에 침몰했던 것이다.

몽골과 일본 양측의 교역 욕구는 신안선의 비극적 침몰에도 꺾이지 않았다. 이런 형태의 교역은 이후 10여 년 동안 더 지속되었다. 이 해로에 배가 다니지 않게 된 것은 바다의 문제가 아니라 육지의 문제였다. 1330년대 중반부터 강남 지방에 전염병이 퍼지면서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염병은 곧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번졌고, 몽골제국을 지탱하던 거대한 경제 권역들이 비슷한 몰락의 길을 걸었다.¹⁰³⁾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 일본은 남북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바다를 건너는 이들은 자본보다는 무기를 소지하고, 교역보다는 약탈에 집중하게 되었다. 드디어 倭寇가 시작된 것이었다. 중국과 일본 모두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바닷길로 통하게 되는 데에는 그로부터 약 한 갑자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103) 1340년대 이후 몽골제국의 붕괴 상황에 대해서는 David Robinson, *Empire's Twiligh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특히 몽골제국 말기 전염병과 천재지변이 몰고 온 파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Timothy Brook, *The Troubled Empire: China in the Yuan and Ming Dynast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Ch.3 <The Nine Sloughs> 참조.

「신안선 목간으로 본 몽골제국의 물류체계」에 대한 토론문

이주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신안선은 특정시대의 유물이 대량으로 선적된 난파선으로 중세 동아시아의 물류체계와 문화사 연구에 있어 폭넓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원대의 중국도자기와 금속 공예품, 석제품, 향신료, 한약제 등의 무역품들은 중세 중국과 고려, 일본의 해상교류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와 사회경제의 모습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 아시아 수중고고학이 찾은 최고의 타임캡슐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신안선에 대한 연구는 발굴조사 이후 40여 년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이루어져 왔으며, 364점에 달하는 신안선 출수 목간에 의해 신안선은 1323년(1323년) 6월 초에 중국 경원항에서 일본 하카다와 교토를 향해 출항하였음이 밝혀졌다. 발표문은 신안선이 운영되던 14세기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와 이에 따른 해양교역의 큰 흐름을 개관하면서 몽골제국의 물류체계와 신안선의 무역형태를 살핀 것이다. 특히, 몽골과 일본과의 관계에 주목하며 신안선 목간의 목서 내용과 목간의 형태에 초점을 두고 원-일본간 교역 프로세스의 일부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 동안 신안선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고고미술사와 조선공학적 시각에 집중되어 왔으며, 특히 출수품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주로 무역도자와 금속공예품, 동전 및 일부 명문자료에 주목하여 신안선의 항해시기와 출항지, 항로, 목적지, 무역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 등의 연구가 편중되었음을 되돌아보게 할지도 모른다. 토론자는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몽골제국의 해운과 해양교역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으며, 발표자가 목간의 형태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도한 신안선의 교역형태에 대하여서도 별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발표문을 탐독하면서 궁금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발표자의 현답과 보완설명을 구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먼저, 출수 목간의 형태와 화물주와의 관계이다. 발표자는 364점에 이르는 목간의 출수 위치와 화물의 위치를 검토하여 이들 목간은 대부분 신안선의 바닥에 선적된 동전의 소유주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선적된 물품들에는 소유주를 표시하는 목간들이 각각 부착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화물주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목간을 사용하여 자신의 화물에 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39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목간 가운데 동일한 화물주인 綱司의 경우에는 10종류(A I a, A I b, A I d, A I g, A II a, A III a, A IV a, A IV c, A V a 등)의 목간이 해당되고, 東福寺로 표시된 목간은 4종류(A I c, A I g, A II g, A IV g)가 존재한다. 특히, 綱司는 개인 이름이 아닌 고려와 일본을 오갔던 중국상인 조직(상단)이나 선

단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는데, 綱司 목간의 한 유형인 A I g 유형의 목간에는 東福寺(10점)나 菊一(2점) 뿐만 아니라 まこ三郎(5점)이란 일본인의 화물주도 있다. 이는 목간의 형태가 다르면 화물주도 다를 것이라는 이번 발표문의 내용과 서로 정합하지 않은 양상이다. 또한, 동일한 화물주인 東福寺 목간에 있어서는 필체가 서로 다른 것이 보이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 東福寺 화물의 물주가 복수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직 신안선 출수 모든 목간에 대한 공개와 후속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현 단계에서 단순하게 목간의 형태만을 기준으로 각각의 화물주를 상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목간 기록의 주체와 형식, 필체, 목간의 재질 및 제작기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와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완설명을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일본간의 교역에 있어서 예외적인 신안선의 항로와 관련되는 것이다. 신안선은 원의 무역선으로 원의 慶元路에서 가마쿠라의 博多(하카다)로 향했던 교역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출수된 고고자료 등으로 볼 때 신안선의 국적과 출항지, 목적지, 항해목적 등은 가마쿠라 사찰의 건립 등을 위해 운항하였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고려 기항여부와 고려가 원-일본간의 중계무역을 실질적으로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설이 없고 몇 가지의 가능성만 제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견해로는 ①신안 해저유물의 분석과 문헌자료의 인용을 통해 신안선의 항로는 고려로 기항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설(김병근, 2003, 「수중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②신안선이 침몰한 지점을 근거로 신안선은 고려를 경유하는 삼국무역을 위한 항로를 선택하여 항해하는 도중 한국의 서해 연안에서 침몰했을 가능성(고미경, 2005, 「신안해저 출토 용천요 청자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③신안선에 넓은 지역에서 포집된 화물이 선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안선이 순회교역이나 중계식 해운 교역의 모델을 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진대수, 2016, 「원대 해상무역과 신안선 관련 문제」, 『신안해저발굴 40주년 국제학술대회』), ④원과 가마쿠라의 시대적 상황을 분석하여 신안선의 고려기항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비정기적으로 고려에 기항했거나 표착한 것(이강한, 2008, 「원-일본간 교역선의 고려방문양상 검토」, 『해양문화재』1호)이라는 견해 등이다.

이처럼 고려기항의 가능성도 높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연구 상황에서 발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안선 목간 가운데 ‘斤’이 표기된 목간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동시에 표기한 것으로 ‘陳皮二十七斤 正悟(手決)’와 ‘陳皮五十五斤’이 묵서된 것은 주목되는 목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陳皮는 제주도와 일본의 특산물로 알려져 있으며 신안선에서 다량의 陳皮가 선적되었다는 사실은 신안선의 항로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가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안선이 침몰한 장소가 고려의 연안항로임을 고려해 둔다면, 경원로를 출항한 신안선은 제주도의 특산품인 陳皮를 구하기 위해 제주도에 일시 정박하였으며, 陳皮를 다량 선적한 후에는 일본으로 이동하는 항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인 한반도 서남해안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동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중국 경원항에서 선적한 도자기와 약재 및 제주도의 陳皮를 개경으로 가지고 가기 위한 것으로, 고려와의 중계무역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

태안해역 수중발굴과 목간

김병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역사의 연구를 문헌이 아닌 실증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고고학이다. 고고학은 유적·유물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은 물론 정치·경제·사회 등을 복원하는 다양한 자료의 원천이다. 고고학은 선사·역사·환경·수중고고학 등 여러 가지 분야로 세분화한다. 본고는 수중고고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태안해역 수중발굴과 출수 목간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목간을 통해 화물선과 조운선의 성격을 전개하였다.

II. 수중고고학이란?

고고학은 과거 사람들이 남겨놓은 물질 자료를 통해 당시 기술·사회조직·문화·역사 등을 복원한다. 우리나라 고고학은 육상고고학을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연구 성과로 역사 복원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수중유물·유적의 발굴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는 수중환경의 특수성 기인한다.

수중고고학은 바다나 호수 속에서 고고학 자료를 찾아 연구하는 고고학 한 분야이다.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은 1970년대부터 주로 침몰선과 그 적재유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침몰선·부두·선창·조선소 같은 해양 기반 시설이 주 대상이다.

수중고고학은 수중발굴을 통해 해양문화를 재조명하는 타임캡슐이다. 수중고고학의 명칭은 우리나라·일본 水中考古學, 미국 Underwater Archaeology, 유럽 Maritime Archaeology, 중국 水下考古學으로 불린다.

1. 수중고고학의 개념

수중고고학은 바다·강·호수 등 수중 침몰, 기타 요인에 의해 가라앉은 고대 유적·유물 연구하는 고고학의 한 분야이다. 육상고고학이 육상의 인류가 태동한 이래 인간생활과 문화의 역사적 발전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적과 유물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면, 수중고고학은 조사범위 수중으로 확대한 것이다.

수중고고학의 시작은 유럽, 특히 서양 문화의 중심지 지중해로 1,000척이 넘는 침몰선 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은 고대의 항만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된 건축 등 다양한 유적이 존재한다.

1970년대 이전 세계 수중고고학은 유럽이 주도하였다. 유럽의 수중발굴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세에 침몰한 대형 군함의 발굴이다. 대표적인 선박은 스웨덴 바사호와 영국 메리로즈호 등

이다. 이외에 수중유적·유물은 지각변동 등 자연현상에 의해 물속에 잠겨버린 고대도시, 항구 시설, 선박과 유물이 주종을 이룬다.

수중발굴은 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과 다른 과학기술 필요하다. 잠수의학·해양학·해양공학·해양지질·측량학·보존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수중고고학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수중개발에 앞서 수중에 대한 사전조사가 시행되고, 수중발굴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태안해역의 수중발굴도 이루어졌다.

2. 수중발굴조사 방법

1) 조사방법

육상발굴과 같이 기록·도면 작성 등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탐색, 사진 촬영, 조사과정 등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진행된다.

2) 조사 과정

첫째,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다. 이는 조사단 구성, 관계기관 유기적 협조, 작업계획과 필요장비 구비, 예산수립이다.

둘째, 발굴준비이다. 문헌·현장탐문 등 자료 수집은 기본이다. 현지 주민과 원만한 관계 유지 등도 필요하다. 더불어 해양학적 기초조사인 해저지형·저질·퇴적층·수온·염분·조류·해류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장비탐사는 해저상황 파악을 위해 위성위치측정기, 측면주사음파탐지기, 지층탐사기, 다중빔음향측심기, 금속탐지기 등 기록데이터 분석으로 이상 물체를 포착한다. 이후 이상물체 지점에 부표를 설치하고 잠수사가 입수하여 확인한다.

넷째, 수중탐색이다. 수중탐색은 장비탐사 결과를 중심으로 유물·유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매물 또는 깊은 경우 시추 등 최종적인 확인도 필요하다. 탐색은 원형탐색, 횡대탐색, 탐색선 이동탐색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유물·유적이 확인되면 제토, 시추, 수중비디오, 카메라 촬영 등을 한다.

다섯째, 수중발굴이다. 수중발굴은 유적·유물지점에 부표, 그리드 등을 설치 후 시작한다. 제토는 퍼내거나 떠내는 방법, 흘려보내는 방법, 기기 이용방법 등이다. 기기는 에어리프트(Air lift), 진공흡입펌프, 물분사기 등이 있다.

여섯째, 사진촬영·실측기록이다. 수중사진 촬영은 하우스형 장착한 장비를 이용한다.

평면도·단면도·측면도 등 실측기록을 남긴다.

일곱째, 유물 인양이다. 유물 인양은 유물 위치, 유물명을 기록한 라벨을 작성한다.

유물 인양은 도자기 등은 유물바구니, 선박 등 원형·해체인양 등으로 유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다.

여덟째, 종합평가이다. 유물의 역사적 사실과 연결 해석, 선박은 조선공학·목재학 등 이론적인 해석, 기타 유물 분석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모형제작 등 실험적인 비교도 필요하다. 문양이나 기타 자료로 시대, 사회경제 등 파악한다.

아홉째, 보존과 복원이다. 과학적인 분석과 보존처리, 복원 가능 부분은 복원한다. 이후 보고회, 발표회, 유물 전시 등으로 연구자료제공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태안해역 개요

태안해역의 수중발굴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해역 북위 36°41'53", 동경 126°07'54"'중심 반

경 5km일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서해로 돌출되어 안개·풍랑이 잦고, 복잡한 해저지형으로 조류가 빠르고, 수중 암초가 많아 항해에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나라 4대 險阻處의 한 곳으로 예로부터 중요한 뱃길이었다. 조운선·중국 무역선·사신선 등 길목 역할을 하였다.

고려시대부터 운하를 파서 안전한 뱃길 확보하려 하였지만 지형상 문제로 실패하였다. 이에 편안한 길목이라는 뜻의 안흥량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안흥정을 설치 해 뱃사람들의 통행을 돌보거나 휴식처로 삼았다.

태안의 서쪽 끝인 신진도와 마도 주변의 해협인 ‘安興梁’은 험한 물길로 인해 선박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이전에는 難行梁으로 불렀는데, 조선시대『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이 남아 있다.

“옛날에는 難行梁이라 불려 왔는데, 바닷물이 험하여 漕運船이 이곳에 이르러 여러 차례 침몰했으므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싫어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선박 사고가 자주 일어나 옛사람들에게는 불행하였지만, 현재 태안해역은 우리나라 수중고고학 보고가 되었다. 2007~2015년까지 태안선, 마도1·2·3·4호선 등 5척이 잇달아 발굴되었다. 특히 목간·도자기·곡물 등이 대량 출수되어 고려·조선시대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태안해역의 중국 관련 출수유물은 2009~2012년까지 마도해역에서 총 200여 점이 출수되었다. 닻돌과 다량의 중국 도자기·동전 등 발굴로 해양실�크로드 중심 해역임을 확인하였다. 도자기는 대부분은 백자이며, 흑유·도가청자 등도 있다. 이 도자기들은 주로 중국 宋·元대의 것으로 생산지는 중국 남부의 福建省·浙江省·江西省·江蘇省·廣東省 등지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몽고병’이라고 불리는 도기사이호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길쭉한 형태로 어깨부분에 끈을 켈 수 있는 4개의 귀가 있다. 중국도자기 바닥에 묵서가 있는데 ‘鄭綱’, ‘楊綱’, ‘林綱’ 등 ‘姓’을 의미하는 글자와 ‘綱’자가 함께 적힌 사례, ‘姓’을 의미하는 글자만 적힌 사례, 수결만 적힌 사례, ‘綱’자만 적힌 사례 등이 있는데, 이는 도자기의 소유권 商團 표시의 용도로 중국 송나라의 국제무역선에서 발견되며, 상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후쿠오카해역에서도 출수된 도기사이호는 원과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로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에서도 출수되었다. 이처럼 마도 해역에서 중국 상인과 관련된 유물의 다량 발견은 당시 중국 상인들이 고려와 무역을 하기 위해 개경으로 가던 중 이곳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는 태안해역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무역의 중요 길목 역할을 한 ‘바닷속의 경주’,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보고’임을 알 수 있다.

IV. 태안해역의 수중발굴과 출수 목간

1. 태안선

1) 태안선 개요

태안선은 안흥량 일대에서 발견된 첫 번째 선박이다. 태안선의 발견은 주꾸미잡이를 하던 어부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2007년 5월18일 어로작업 중 청자대접 1점을 발견 신고하였다. 주꾸미는 소라껍질에 알을 낳고 그 입구를 조개껍질이나 돌맹이로 막는 습성이 있는데, 어부에게 잡힌 주꾸미는 조개껍질 대신 청자대접으로 입구를 막았다. ‘주꾸미가 건져올린 고려청자’ 덕분에 발견된 청자운반선이다.

2008~2008년 수중발굴을 통해 선체8편(외판)·청자·도기·목간·인골·땃돌·청동완 등 25,000여 점 유물을 발굴하였다. 보물로 지정된 두꺼비 모양의 벼루, 사자모양의 향로 등 고급스러운 청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태안선 발굴로 태안해역의 수중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태안선은 목간에 적힌 '辛亥'라는 글자를 바탕으로 1131년에 침몰되었다는 사실 확인되었다. 또한 태안선은 목간의 '耽津'을 근거로 고려시대 중기 전라남도 강진에서 만든 도자기를 가득 싣고 개경으로 향하던 중 태안 앞바다에서 난파되었음을 밝혔다.

2) 태안선의 목간

태안선에서는 목간 34점이 출수되었다. 목간의 기록으로 청자를 운반하던 선박이었다는 것은 쉽사리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목간에 적힌 명문을 통해 태안선은辛亥(1131)년에 耽津縣(현재 강진)에서 청자를 싣고 개경으로 향하던 중 태안 대섬 근처에서 불의의 사고로 침몰하였다.

목간 몇 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崔大卿 宅上'은 최대경 댁에 올린다는 의미이다. 태안선에서는 최대경에게 올린다는 뜻의 목간이 3점 출수되었다. 이 목간에는 받는 사람인 최대경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사전에 물건을 주고받는 이가 서로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보낼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 일 것으로 추정된다.

'耽津(縣)在京隊正仁了守付砂器八十' '卽(式)載船長수결'은 탐진현에서 개경에 있는 대정인수 집에 도자기 팔십꾸러미를 붙인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배에 싣는 것을 맡아하는 자의 수결을 표기하였다. 태안선의 목간 중 명문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목간으로 출항지·도착지·인수자·당시 청자를 砂器로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辛亥XX安永戶付沙器一裹'는 신해(신미)년 XX에 안영 집에 도자기 한 꾸러미를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목간에는 간지가 적혀있어 태안선이 침몰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태안선 선체에 대한 나이테연대측정과, 방사선탄연대 측정 결과 95.4%의 확률로 AD 1126~1150년 사이에 태안선 건조에 사용된 목재가 벌목되었음을 추정 해 볼 수 있었다. 태안선에 실린 도자기들은 12세기 전기로 추정된다.

목간 용도의 용도를 분류하면, 발신지(와) 수신인, 화물종류, 수량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자기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나무에 수결을 하였다.

태안선 목간 출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굴한 고려시대 목간이다. 목간을 통해 생산·유통과정, 수취체계, 물품유통, 문장 종결 때 사용하는 印, 몇 개씩 의미하는 式 등 고려시대 이두 연구 자료로 의미가 있다.

2. 마도1호선

1) 마도1호선 개요

마도1호선은 2007년 7월 어로작업 중 그물에 걸린 청자 24점을 발견·신고한 계기로 이루어졌다. 2009년 수중발굴 결과 도자기·생활용품·곡물류·목간 등 800여 점이 출수되었다.

특히 인물의 이름이 적힌 목간과 丁卯年과 戊辰年 간지가 적혀있는 목간이 함께 출수되어 마도1호선의 시기 편년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 목간에 보이는 金純永은『고려사』『고려사절요』에 1199년 장군으로 승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대장군으로 승진한 것은 그 이후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묘년과 무진년의 절대연대는 1147년과 1148년, 1207년과 1208년에 해당한다. 출수유물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볍씨 등 4개의 시료가 모두 일치하는 연대는

1207년과 1208년으로 침몰연대는 1208년으로 밝혀졌다.

마도1호선의 잔존 상태는 저판 7열, 외판 2단~3단, 길이 10.8m, 중앙폭 3.7m이다.

저판은 폭 25~40cm, 두께 35~40cm 정도이다. 중앙저판에는 돛대구멍 2개가 있다.

멍에형 가물은 외판 1단에 썬기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외판 1단에 황강력구조재인 원통목 3개 확인되었고, 외판 좌우 연결은 반턱이음식이다. 외판 상하 연결은 흙붙이클링커식 이음이다.

2) 마도1호선 출수 목간

마도1호선에서는 목간 73점이 출수되었다. 회진현(나주), 죽산현(해남), 수녕현(장흥), 안로현(영암), 戊辰年號(1208, 熙宗4)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남부지방인 나주, 해남, 장흥에서 생산된 곡물과 도자기 등을 싣고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목적지로 향하던 배임이 밝혀졌다. 마도 1호선에서는 청자와 도기·호·다수의 법싸·조·메밀·콩·각지·게 젓갈 등도 함께 실려 있었다.

목간에서 丁卯年 10월, 12월 28일, 戊辰年 1월, 2월 19일이라는 간지와 날짜가 확인되었다. 또한 발송지 竹山(해남)·會津(나주)·遂寧(장흥)이고, 화물은 白米·조(粟)·메주(末醬)·게장(蟹醢) 등이다. 발송자는 宋椿 등, 수취인 大將軍 金純永·別將 權克平·校尉 尹邦俊 등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목간을 몇 점 살펴보면,

‘丁卯十二月二十八日竹山縣在京檢校 大將軍尹起華宅上 田出粟參石各入貳拾斗□ □ □ □ □ □ □’이다. 정묘년 12월 28일 죽산현에서 개경(수도)에 있는 검교대장군 윤기화 댁에 올림. 전출의 조 3섬 각 20말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는 죽산현(해남)에서 조 3섬을 정묘년 12월 28일 개경에 있는 검교대장군 윤기화 댁에 올린다는 내용이다.

‘戊辰二月十九日□□□□崔光□宅上□□□□□各田出粟拾石木麥 參石末醬貳石各入拾伍斗印 □□竹山縣□ □尹花押’은 무진년 2월 19일, □□□□□ 최광□댁에 올림. □□□□□ 각 전지(田)에서 나온 조[粟] 2석, 메밀 3석, 메주 2석을 각각 15두씩 담음. 끝. □□ 죽산현 □□ 윤. 수결이다. 이는 무진년에 죽산현에서 화물을 올린다는 내용이다.

‘大將軍金純永宅上田出組六石’은 대장군 김순영 댁에 전출 벼 여섯 섬을 올린다는 내용이다. 목간에 표기된 ‘田出’이라는 용어는 수조지에 대한 田租라는 의미와 사유지의 地代라는 성격이 있다. 마도1호선의 전출 의미는 수취자와 발송인을 중심으로 볼 때 지대가 타당하다. 마도 1호선에는 대장군 김순영에게 벼 여섯 섬을 보낸다고 기록된 목간이 6점 발견되었고, 대장군 댁에 메주 2섬을 올린다는 목간도 1점 발견되었다. 김순영이라는 인물은 『고려사』에서 신종2년(1199) 장군에 임명되는데, 목간에는 대장군으로 기록된 것으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대장군에 임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99년 이후 정묘와 무진은 각각 1207년과 1208년이다. 이를 통해 마도 1호선은 1207년 10월경부터 1208년 2월경까지 전라남도 해남, 나주, 장흥에서 부친 쌀과 조, 메밀 등을 싣고 개경으로 향하던 중 마도에서 침몰하였다. 마도1호선의 목간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간지와 연월, 수취인 관직과 성명, 발송지와 발송자(長또는 戶長 지방향리, 개인 이름), 선적책임자, 화물의 종류와 수량, 포장단위, 화압 등을 표기하였다.

마도1호선 목간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굴한 고려시대 죽찰(목간과 죽찰 함께 발굴)이 출수되었다는 것이다. 출수된 73점은 목간 15점, 죽찰 58점으로 죽찰은 해남, 나주, 장흥 등 현지 습득 쉬운 재료이다. 아울러 생산·유통과정 이해, 수취체계 등을 알 수 있다.

3. 마도2호선

1) 마도2호선 개요

2009년 10월 시굴조사에서 선체를 확인하였다. 수중발굴은 2010년 마도2호선 선체 발굴조사와 인접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하였다. 수중발굴 결과 마도2호선과 범씨 등 각종 곡식류·청자매병과 통형잔 등의 도자류·목간·각종 동물 뼈·선상용품 철제 솔·청동손가락청동그릇·대나무젓가락 등 400여 점이 출수되었다.

마도2호선 구조는 잔존선체 길이 약 12.8m, 너비 약 5m, 깊이 1.2m(저판 7열, 외판 최대 5단 잔존)이다. 인양 선체 저판 21부재, 외판 23부재(좌7, 우16), 가롱목 5부재 등이다.

2) 마도2호선 출수 목간

마도2호선에서는 목간 47점이 출수되었다. 목간을 통해 마도 2호선은 현재 고창군인 무송현, 고창현, 장사현과 현재의 정읍인 고부군에서 개경에 있는 별장 정원경, 낭중 이극서 등에게 보내는 화물선이었다.

발굴된 목간을 통해 고창, 정읍에서 생산된 곡물과 도자기 등을 싣고 고려의 수도인 경을 목적지로 향하던 배임이 밝혀졌다. 침몰연대는 목간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하여 1200년 전후(신종~희종년 간)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목간의 기록을 보면, 매병의 목에 묶여 함께 출수된 목간을 통해 유물의 용도와 명칭 등을 밝혔다.

‘重房都將校吳文富 宅上精蜜盛樽封’ 목간은 중방 도장교 오문부댁에 꿀을 단지에 채워 올린다는 내용이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에 매달려 있었다.

‘重房都將校吳文富 宅上眞盛樽封’ 목간은 중방 도장교 오문부 댁에 좋은 참기름을 단지에 채워 올린다는 내용이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에 매달려 있었다.

마도2호선 매병 출수 전에는 매병의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막연히 물이나 술을 담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하지만 목간에 적힌 내용으로 꿀과 참기름을 담는 용기로 일상 생활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매병의 명칭도 당시에는 ‘樽’이라고 불렀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하였다. 『宣和奉使高麗圖經』에 ‘樽’의 기록이 보인다. 청자매병 2점은 보물로 지정되었다.

‘李克僑郎中宅上田出x’는 이극서 낭중 댁에 田出x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목간에 적혀있는 수취인李克僑는 고종대 추밀원부사(1219년)와 평장사(1220년)를 지낸 인물이다. 목간에서 이극서의 관직은 郎中으로 적혀있어 마도2호선은 1219년보다는 앞서고, 유자량의 관력을 통해 1213년 이전으로 좁힐 수 있어 1200년대 전후 마도2호선은 마도1호선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나오는 곡물을 개경에 있는 관직자에게 운반하던 곡물운반선이었다.

마도2호선 목간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화물의 운송표가 가장 많고, 수취인 관직과 성명, 발송지와 발송지, 화물의 종류와 수량, 포장단위 등을 알 수 있다.

마도2호선 목간 출수 의미는 목간과 죽찰 함께 출수되었고, 생산·유통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수취체계, 물품유통 종류인 稻類(白米, 中米, 米), 豆類(太, 大), 末醬, 곡물, 젓갈, 참기름, 꿀 등이다.

목간의 크기가 다양한데 30cm 내외가 대부분이지만 원형이 12~15cm도 있다. 특히 매병 2점에 매달려 있는 죽찰 2점은 다른 목간에 비해 크기가 잘 다듬어져 있다.

이는 용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포장단위는 石裹缸(항아리항)으로 사용

되었다. 목간에 표기된 '田出'이라는 용어는 수조지에 대한 田租라는 의미와 사유지의 地代라는 성격이 있다. 마도1·2호선의 전출 의미는 수취자와 발송인을 중심으로 볼 때 지대가 타당하다.

4. 마도3호선

1) 마도3호선 개요

마도3호선은 2009년 탐사선 씨뮤즈를 이용한 광역탐사로 선체 위치를 최초로 확인하였다. 선체는 육지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매몰되어 있었다. 수중발굴은 2011년에 실시하여, 도자기·생활용품·곡물류·동물뼈·목간 등 590여 점이 출수되었다. 목간은 35점으로 呂水縣에서 출발하여, 고려의 임시수도인 강화도를 목적지로 향하던 선박의 성격을 밝혔다. 즉 武臣政權의 실세들에게 보낸 화물이다.

마도3호선에서는 45점이나 되는 많은 양의 도기항아리가 출수되었다. 도기호에 담겨있는 유기물들은 함께 출수된 목간의 내용과 일치하는데, 주로 목간에 적혀있는 것처럼 젓갈을 주로 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물을 담았던 도기호와 도기호 자체가 상품으로 선적되었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다.

마도3호선에서는 그밖에도 선원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용기 60점, 철기 2점이다. 용기는 음식을 조리하고 먹는데 사용하는 식생활용인데 종류는 음식을 담는 청동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이 주류를 이룬다. 선박의 침몰연대가 밝혀져 이 시기 금속제품의 연대를 확인하는 단서이다.

이외에도 사슴뿔 13점, 목서명 고막 껍질, 대나무 상자, 목제 빗, 곡물 더미, 안교형 목제품 등 다양하게 출수되었다. 특히 장기돌 46점이 선원들이 생활했던 공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꺼번에 나왔다. 모서리가 둥근 조약돌에 글자를 적어 사용하였는데 마도3호선이 침몰된 시기인 시기에는 선원들이 즐길 만큼 장기라는 놀이가 대중화되었음을 알려준다.

마도3호선의 구조는 마도1·2호선과 전체적인 형태는 비슷하다. 하지만 선미 부분이 平底에서 尖底로 변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고려선박에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이다. 이는 남해안 바다를 항해하기 편리한 형태이다. 즉, 남해안의 섬과 섬 사이는 물론 서해안 보다 깊은 수심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이다.

마도3호선의 크기는 길이 12m, 폭 8m, 선심 2.5m. 선체는 좌현(동쪽)이 8~12도 가량 기울어졌다. 장축 방향은 중앙 저판을 기준으로 북동방향으로 45도이다. 선형은 중앙부가 가장 넓고, 선수가 선미보다 넓은 구조이다. 선박은 선수와 선미, 좌·우현, 돛대와 고정지지대 등이 거의 원형으로 남아 있어 고려시대 선박구조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2) 마도3호선 출수 목간

마도 3호선에서는 목간 35점이 출수되었다. 수취인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김준을 비롯한 고위관직자인데, 특히 김준과 정치적 혈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집단이었다. 또한 마도1·2호선에 비해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개인과 都官, 重房, 三別抄 등이 수취기관으로 등장한다.

목간의 내용은 마도3호선의 주요화물인 전복·홍합·상어 등 고급 어패류와 곡물, 그리고 布로 출수 유물들과 일치한다. 간지가 적힌 목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화물을 받는 시랑 신윤화, 유승제(유천우), 김영공(김준) 등이 활동하였던 시기를 근거로 마도3호선은 1265년~1268년 사이에 침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수현 부사심택에 올린다’는 목간과, 화물의 배송지로 전민변정도감, 삼별초, 도관 등 당시 고려의 임시수도였던 강화도에 설치된 관청의 기록은 마도3호선이 여수 인근에서 화물을 싣고 강화도로 향하다가 침몰한 선박임을 알게 한다.

마도3호선은 마도1·2호선의 주된 화물인 곡물이 외에도 전복[生鮑]·개고기포·물고기 기름·홍합·상어 등 다양한 화물의 명문이 적힌 목간이 출수되었다.

마도3호선은 목간과 죽찰로 만들었고, 용도는 화물의 운송표, 수취인 관직과 성명, 발송지와 발송지, 화물의 종류와 수량 등이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과정 이해, 수취체계, 물품유통 등을 알 수 있다.

목간 몇 점을 살펴보면,

“呂水縣副事審宅田出皮麥柒斗□■□□□□<앞>.次知載船丞同正吳手<뒤>”은 여수현부사 심택에 전출 피맥 일곱 말□■□□□□을 올린다. 배에 싣는 것을 맡은 자는 승정동오로 수결을 하였다. 화물의 수취인은 呂水縣 副事審이다. 여수현은 현재의 전라남도 여수시로 마도3호선의 발송지이다.

화물의 종류와 수량은 皮麥柒斗의 피맥은 밀기울이라는 뜻도 있지만, 걸보리로 볼 수 있다. 이하 목서의 내용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 목간의 수중매장 상태는 조로 보이는 곡식 사이에 들어있었다.

‘辛允和侍郎宅上’신윤화 시랑 댁에 올린다. 신윤화는 『고려사절요』에서 이름이 확인되는 인물로, 원종 원년(1260)에 장군의 신분으로 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장군과 시랑은 같은 4품의 관직으로 마도 3호선이 1260년을 전후한 시기에 침몰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生鮑 醢一 缸’전복 젓갈 한 항아리 의미이다.

‘右三番別抄都上’乾蛟壺石’ 우삼번별초 말린 홍합 한 섬을 올린다. 삼별초 관련 자료는 右三番은 좌우별초가 三番으로 나뉘었다는 기록 뒷받침한다. 別抄都領侍郎은 별초의 우두머리, 4품 시랑이 별초도령을 맡은 첫 사례이다. 重房右番은 중방의 구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목간을 통해 강화도시기 최후의 정치군사경제적 실상과 먹거리, 놀이문화 등을 연구의 획기적인 자료이다.

5. 마도4호선

1) 마도4호선 개요

마도4호선은 2014년 9월 초 씨뮤즈호를 이용해 광역탐사 중 선체편으로 추정되는 목재를 확인하였다. 주변을 시굴조사를 하던 중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백자다발과 선체가 매몰되어 있었다.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발굴조사를 하였는데 발굴결과 최초로 발견된 조선시대 선박으로 밝혀졌다.

마도4호선에서는 화물로 실렸던 곡물, 분청사기와 도기, 목간, 선상용품으로 사용한 빗과 자귀 등의 목제 유물 그리고 솟돌 등 석제 유물들이 출수되었다. 분청사기는 마도4호선의 시기 편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목간은 선박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분청발과 접시가 총 158점 출수되었는데 분청사기 3점에 ‘內贍’이 찍혀있는데 이것은 ‘內贍寺’라는 기관을 뜻하는 명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1417년(태종 17년) 공납용 자기에 공물의 수납처이자 사용처인 관사의 사호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침몰 시기를 1417년 이후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기형을 살펴보면 도장을 이용해 승령문과 집단국화문을 촘촘하게 찍었다. 문양을 표현하는 방식과 소재 등을 고려하면 인화문이 최성기를 보이는 15세기 2/4분기까지 시기가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좀 더 시기를 좁혀 볼 수도 있는데 1421년(세종 3

년) 기사에 진상하는 그릇을 튼튼하게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릇에 匠人의 이름을 써넣게 하도록 상소하였다. 출수된 분청사기에는 장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 없어 1421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마도4호선은 1417년~1421년 사이에 세곡과 공물을 신고 가다 마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방사선탄소연대 분석과 위글매치 연대분석 결과 95.4% 신뢰구간에서 AD 1331~1391 또는 1410~1433년 산출되었다. 단년생 곡물류는 AD 1415~1455년 (95.4% 신뢰구간) 사이에 침몰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마도4호선의 침몰연대는 14세기 초기가 확실하다.

목간은 총 60여 점 출수되었다. 15세기에는 종이 많이 보급되어 목간 사용이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화물에 묶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도나 편의성에서 나무가 종이보다 더 편리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목간은 대부분 발신처인 나주와 수신처인 광흥창을 뜻하는 '羅(叻)州廣興倉'이 적혀있다. 전라남도 나주 영산창에서 거둬들인 세곡 또는 공납품을 한양에 있는 광흥창으로 운반한 것이다.

마도4호선은 상단(갑판)과 좌현 외판 일부 제외하고 외형이 잘 남아 있었다. 선체내부에는 다량의 곡물류·목간·분청사기·목제·석제유물 등 300여 점이 적재되어 있었다. 마도4호선의 잔존 크기는 길이 13m, 폭 6m, 선심 약 2m. 저판 3단, 좌현 외판 4단, 우현 외판 11단, 선수재 3단, 선미재 2단이 남아있었다. 최초의 조선시대 선박으로 해양사·도자사·선박사·문화사 등을 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마도4호선의 출수 목간

마도 4호선은 최초로 발견된 조선시대 선박으로 조세를 운반하던 조운선이다. 선체 내부에서 확인되는 다량의 곡물 등 마도4호선이 관에서 운영한 조운선이라는 정황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바로 '羅州廣興倉' 목간이다.

마도4호선 목간의 재질은 나무와 대나무로 목간 43점, 죽찰 20점 등 총 63점이다.

목간의 주요 내용으로 발송지역의 지명은 '羅州' 총 52점이다. 나주는 세곡과 공납품의 발송처이다. 이는 공납품의 수취지역, 즉 田出 곡물의 경우 토지가 있는 지역과 특산품을 수합하여 발송하는 지역이다. 출항지는 나주를 중심으로 인근 수조지역의 곡물과 특산물 모아 영산창에서 출발한 것이다.

수취처는 목간 중 파악 가능한 50여 점이다. 수신처는 목간에 광흥창을 뜻하는 '羅(叻)州廣興倉'이 적혀있다. 즉 나주 영산창에서 거둬들인 세곡 또는 공납품을 관리의 녹봉을 관리하던 조선시대 국가 기관인 廣興倉에 入庫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중발굴에서 발굴된 최초의 조선시대 선박이자 조운선 화물 종류는 '白米十五

斗', '麥三斗'와 기타 목간은 벼 의미이다.

마도 4호선에서 발견된 63점의 목간 중 55점이 '나주광흥창' 명 목간이며, 나머지 7점은 화물의 종류와 양이 적힌 목간이다. '나주광흥창'이라는 목간의 뜻은 나주에서 광흥창(지금의 마포)로 보낸다는 뜻이다. 광흥창은 조선시대 관료의 녹봉을 지급하던 곳으로 전국에서 출항한 조운선이 도착하는 곳이다. 즉 마도 4호선은 나주에서 보낸 세금을 광흥창으로 옮기던 조운선이다.

마도 1:2:3호선에서 발견된 목간은 개인이 개인에게 혹은 기관에게 보낸 화물을 기록한 고려시대 목간과 마도4호선에서 나온 나주광흥창 목간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마도 1

2:3호선은 당시 권력자나 개인에게 보낸 화물들을 운송하던 선박으로 조운선 여부는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마도4호선의 목간과 분청사기는 공물을 운반하던 조운선임을 밝혀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VI. 나가기

태안해역의 침몰선은 모두 목간을 통해 성격이 밝혀졌다. 침몰선의 화물선적 방법과 목간 출수 양상은 대체로 유사하다. 목간·침몰선의 발굴로 문헌을 대체하여,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

고려시대 선박인 마도 1:2:3호선에서 발견된 목간은 개인이 개인이나 기관에게 보낸 화물이다. 조운선 여부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 선박인 마도4호선은 조선시대 선박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최초의 조운선이 명확하다. 나주에서 보낸 세금을 광흥창으로 입고하는 공적 물류시스템에 의한 세곡의 운송을 목간이 증명하고 있다.

태안해역은 선박과 함께 우리나라 초기 도자기부터 조선 후기 백자까지 다양한 유물이 출수되었다. 더불어 중국 도자기와 다량의 닻돌(고려, 중국) 등은 선박의 왕래와 정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세 해양실크로드의 역사를 밝히는 타임캡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태안해역은 지속적으로 침몰선과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 있고,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 해양사, 해양실크로드 연구의 중요한 거점지역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圖經』.

『新增東國輿地勝覽』.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고려청자 보물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마도1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태안마도2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태안마도해역 탐사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태안마도3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 『태안 마도 출수 중국도자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태안마도4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한국의 보물선 타임캡슐을 열다』, 공명.

김병근, 2004, 『수중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국학자료원.

「태안해역 수중 발굴과 목간」에 대한 토론문

이주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4대 협조처의 한 곳인 태안 안흥량은 조류가 빠르고 수중에 암초가 많아 항해하는데 매우 어려운 곳이었으나, 예로부터 조운선과 중국 무역선 등이 다니던 중요한 뱃길이었다. 특히, 태안 신진도와 마도 해역은 네 곳에서 서로 유입되는 해류에 의해 물길이 순탄하지 못하여 크고 작은 해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침몰선의 흔적이 현재에도 해저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발표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안흥량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 태안선과 마도 1호 ~4호 침몰선에 대한 것이다. 수중 발굴조사는 바다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의해 육상 발굴에 비하여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출수된 유물의 정리와 분석 작업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당시의 어려운 조사 환경과 관련학계와 사회의 관심 부족에도 불구하고 5척의 침몰선에 대한 수중발굴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발굴보고서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몰된 선박을 재현하고 출수 유물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관을 건립하여 해양문화재를 통해 우리 역사의 의미를 찾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태안해역에서 침몰된 화물선에서 출수된 유물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목간은 화물의 수취인, 발송지, 발송자, 화물의 종류와 수량 등과 같이 당시 물류의 유통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자기류는 선박의 편년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발표문 또한 이를 고려하여 화물선의 침몰연대와 항로 및 선적화물의 성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태안해역의 수중발굴과 출수 목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며 발표자의 보완설명을 경청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먼저, 태안선의 침몰연대에 관한 것이다. 발표자는 본문에서 “... 태안선은 목간에 적힌 ‘辛亥’ 라는 글자를 바탕으로 1131년에 침몰되었다 ...” 라거나, “ ... 목간의 기록으로 청자를 운반하던 선박이었다는 것을 쉽사리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목간에 적힌 명문을 통해 태안선은辛亥(1131)년에 耽津縣(현재 강진)에서 청자를 싣고 개경으로 향하던 중 태안 대섬 근처에서 불의의 사고로 침몰하였다 ...”라고 단정지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태안선의 침몰시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편년과 간지명 목간, 그리고 선체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등을 근거로 하여 연구자마다 각각 차이가 있다. 특히, 태안선 청자의 제작시기에 대한 견해는 百家爭鳴의 양상을

보이는데, 태안선 청자의 전반적인 양상과 목간의 연대를 고려한 ①12세기 전기설(최지명 2009「태안 대섬 해저 출수 고려청자 의 양상과 제작시기 연구」『미술사학연구』279.280, 나선화, 2009「태안 대섬 침몰선 청자 인양조사의 성격과 의미」『고려청자보물선』) ②특정 기종이나 시문 기법의 양상을 비교 검토한 12세기 중기설(박지영, 2009「고려시대의 청자발우-태안 대 섬 출토품을 중심으로-」『고려청자보물선』, 조은정 2009 「태안 해저인양 청자의 성격과 제작 시기」『고려청자 보물선과 강진』, 염혜희 2007「고려 퇴화 청자 연구」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진아 2011「태안 대섬 출토 음각앵무문·양각연판문 대접·접시의 특징과 제작시기 고찰」『해양문화재』4, 이희관 2011「태안 해저 인양 청자화로형향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해양문화재』4) ③강진 용운리 10호-Ⅱ층(나)유형에 가까운 것을 고려한 12세기 후기~13세기 전기설(장남원 2008「조운과 도자생산, 그리고 유통: 해저인양 고려도자를 중심으로」『미술사연구』22) ④태안선 청자의 기형과 세부적인 특징이 1220년대로 추정되는 군산 비안도 청자와 가깝다는 것을 근거로 한 13세기 초기설(윤용이 2009「고려청자의 생산과 소비, 향로」『청자보물선 뱃길 재현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서유리 2009 「고려 철화청자의 발생과 특징」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어 그 제작시기가 연구자마다 다양하며 청자 제작시기에 대한 연대 폭이 거의 한 세기에 이른다. 또한, 태안선 출수 목간의 ‘辛亥’라는 간지에 대해서도 역대의 墨跡에 보이는 ‘辛’, ‘亥’, ‘未’자를 각각 자세히 대조하여 ‘辛亥’로 판독하기 보다는 ‘辛未’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태안선 청자의 제작시기를 1151년으로 보고자 하는 설(이희관 2019「태안 대섬 출수 고려청자의 제작시기 전문」『한국학연구』68) 도 최근에 발표되었다. 이처럼 태안선 청자와 목간에 대한 학계의 통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연구경향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발표자의 추가설명을 바란다.

다른 하나는 마도 3호선의 출항지 문제이다. 그동안 침몰선에서 출수된 190여점의 고려도기에 대하여 기종과 형태 제작기법 등의 연구를 통해 청자와 같이 고려도기에도 지역성이 강하게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른 근거로 태안해역에서 침몰된 화물선에서 출수된 도기의 형태적, 제작기법적 특징을 파악하여 생산과 소비유적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생산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화물의 선적지(발송지)나 출항지(모항)를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11년에 발굴된 마도 3호선의 경우에는 35점의 목간이 출수되었으며, 그 중 呂水縣(현재 여수시)이 기록된 목간이 있어 화물의 발송지(출항지)를 여수를 포함한 남부지역으로 이해하였으며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여러 유물의 생산지 또한 전라도 남부지역으로 전제하여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고려도기에 대한 종합적 연구 성과에 따라 완도선.태안선.마도 1호.2호선에서 다수 확인되는 盤口壺가 마도 3호선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양상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여수현 목간 1점을 근거로 여수지역을 마도 3호선의 출항지로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여수는 운항 도중 들렀던 중간 기항지이면서 곡물을 위주로 한 화물 선적항 중 하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마도 3호선의 출항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목간과 공반된 선상용 도기에 주목하여 그 공급지를 전남지역이 아닌 경상도 동.남해안으로 이해하고, 마도 3호선은 이지역의 물품과 세곡을 적재하여 운송하던 조운선이었으며 이 지역을 수세구역으로 하는 석두창(마산 합포)에서 출항한 조선으로 비정하였다.(신종국 2016「고려

선박 출수 도기호의 제작유형과 생산지역 검토』『역사와 역사교육』33: 2017「도기를 통한 태안
마도 3호선의 출항지 연구』『도서문화』50: 2018 「고려 침몰선 출수 도기의 생산과 유통』『도서
문화』52) 이는 기존에 목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여 왔던 것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학계의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
의 견해는 어떠한지, 보완 설명을 바란다.

국립해양박물관
경북대 인문학술원 HK+사업단

공동학술대회

문자자료로 본

동아시아

해양문명